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인형치료
과정에 나타난 가정생활 내러티브 탐구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김진미

2021년 8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인형치료 과정에 나타난 가정생활 내러티브 탐구




지도교수 김 민 호

김 진 미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6월

김진미의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서 명 석 
위 원 김 종 의 
위 원 김 민 호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21년 6월

Narrative Inquiry on Family Life of a Filipino Marriage
Migrant Woman in the Process of Figure Therapy

Jinmi Kim

(Supervised by professor Min Ho Kim)

A thesis submitted in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Education [Master of Psychotherapy]

2021. 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Min Ho Kim, Prof. Psychotherapy

Min Ho Kim

(Name and signature)

June, 2021

Date

Department of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6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7
II. 이론적 배경	9
1.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9
2. 가족치료와 인형치료	17
3. 가정생활	20
III. 연구방법	25
1. 내러티브 탐구 방법	25
2. 연구자의 자전적 이야기	26
3. 연구 참여자 소개	29
4. 연구절차	30
5. 연구의 신뢰성 및 윤리적 고려	38
IV. 연구결과 및 해석	40
1. 연구 참여자의 삶의 이야기	40
1) 결혼이주 전 원가족 상황	40
2) 결혼 직후 가정생활	45
3) 현재의 가정생활	52
2.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가정생활 의미	65
1) “가족 안에서의 나”	65
2) “가족 밖에서의 나”	75
3) “가족을 이끌어가는 나”	81

V. 논의 및 결론	94
1. 논의.....	89
2. 결론 및 제언.....	100
참고문헌.....	106
부록.....	120
ABSTRACT.....	121

표 목 차

< 표 II-1 > 출신 국적별 혼인 비중, 2017-2019년	10
< 표 II-2 > CFO 국제결혼 통계	11
< 표 II-3 > 출신 국적별 이혼 비중, 2017-2019년	13
< 표 II-4 > 출생아 모(母)의 출신 국적별 비중, 2017-2019년.....	14
< 표 III-1 > 연구 참여자 기초정보	29
< 표 III-2 > 사티어의 빙산탐색 질문	32
< 표 III-3 > 인형치료 탐색 질문	33
< 표 III-4 > 가정생활 탐색 질문	34

그 립 목 차

[그림 II-1] 연도별 다문화 혼인건수 및 다문화 비중	9
[그림 II-2] 연도별 혼인, 이혼, 출생(모) 추이.....	15
[그림 III-1] 인형치료기법 활용 시 선택한 동물인형 모습.....	37
[그림 IV-1] 시어머니와 나의 관계에 중재하는 남편	89

국문초록

결혼이주여성의 인형치료 과정에 나타난 가정생활 내러티브 탐구

김진미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지도교수 김민호

이 연구의 목적은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이 인형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표현된 가정생활에 대해 그 경험을 탐색하여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살펴보고 결혼이주여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심리치료 등 지원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담자들과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질적 연구방법 중 내러티브 탐구를 사용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 경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다. 연구의 참여자(영화)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영화(가명)로만 18세에 한국으로 이주하여 12년간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다.

자료수집 방법은 면접상담, 인형치료과정에 나타난 인형사진, 관찰노트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2020년 10월부터 시작하여 2021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총 6회기 면접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총 4회기 동안 인형치료 도구를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현장텍스트를 반복하여 듣고 읽으면서 그 의미를 분석하고 인형치료사진과 연구노트를 교차하며 분석하면서 지도교수와의 확인 과정을 통해 주제를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도출된 가정생활의 의미는 ‘가족안에서의 나’, ‘가족 밖에서의 나’, ‘가족을 이끌어가는 나’ 이다.

첫째,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한 가정생활의 의미는 ‘가족 안에서의 나’ 이다. 연구 참여자는 원가족에서 사이에 낀 아이로 태어나고 자랐으며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겪기도 하였고 극적으로 화해하기도 하였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남편을 의지하였다. 둘째, ‘가족 밖에서의 나’ 이다. 연구 참여자는 자신 인생의 개척자로

서 만 16세에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직장생활을 하였고 더 나은 삶을 위해 국제결혼을 선택하였다. 그뿐 아니라 한국에 와서도 공부를 멈추지 않고 억척스럽게 일을 하면서 미래에 결혼 이주민들을 위한 지도자로 일할 수 있기를 꿈꾸며 노력하고 있었다. 셋째, ‘가족을 이끌어가는 나’ 이다. 연구 참여자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책임자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친정아빠의 죽음으로 친정가족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능동적인 자세로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있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상호작용하고 있었다. 남편 또한 연구 참여자를 믿고 모든 경제와 자녀 돌봄 등 제반사항을 다 맡기도 있었다. 또한 아이들에게도 미래에 책임감이 강하고 자립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적극적인 지지로 이끌어 주고 있었다.

이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전생애적 가정생활에 초점을 두고 한 사람으로 접근하고자 시도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선행연구들 중에 인형치료를 매개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이 없다는 점과 인형치료를 통해 내러티브 탐구 방법으로 접근한 점이 이 연구가 유일하였다.

본 연구는 필리핀에서 결혼 이주한 한 여성의 내러티브를 기초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남편 입장에서의 가정생활 내러티브가 없으며 부부 상호작용에 대한 경험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주제어 :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인형치료, 가정생활, 내러티브 탐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에서의 국제결혼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도 다양해지면서 동남아 출신의 이주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 저개발국가에 대한 편견이 만연해 있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가운 시선은 아직도 존재한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여성이고 아내이고 어머니이다. 우리 사회가 결혼이주여성을 한 인간으로서 오롯이 바라보고 이해하기보다는 동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는 사회적 시각으로 인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있다.

한편으론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 다양한 정부정책과 제도가 세워져 왔고 이로 인해 각 관련 기관들의 노력이 있어 왔다. 특히 최근 들어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뉴스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몇 년간 이주여성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가 전국적으로 하나 둘씩 세워지고 있다. 연구자가 근무하는 기관도 그 중의 하나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의 인권을 옹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러한 업무의 일환으로 연구자는 인형이라는 도구를 통해 피해 이주여성들을 만나며 그 고충을 이해하고 한 사람으로서 오롯이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결혼이주여성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써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정생활 교육프로그램 개발, 가정생활문화 이해 및 적응 사례 연구(채옥희, 홍달아기, 송복희, 2011), 결혼이주여성의 일·가정양립경험 연구,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부부의 결혼동기와 한국가정생활 경험 및 지원 사례연구(채옥희, 한은진,

송복희, 2012),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가정생활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김선정, 2012)가 있었다. 송복희(2011)는 결혼이주여성 80명을 중심으로 가정생활적응에 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고, 또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배경, 출국 전 한국가정생활 교육내용에 대한 경험을 탐구하였다.(채옥희, 홍달아기, 송복희, 2011) 앞서 언급한 연구들을 살펴볼 때 첫째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이라는 주제에 맞춰 결혼전후를 아우르는 전생애적인 접근에 대한 경험연구가 미흡하였다.

둘째로, 많은 선행연구들이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통해 특정한 주제에 대해 자세히 연구하고자 하였으나 가정생활이라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루지는 못하였다. 이주여성의 단편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다음과 같았다. 베트남과 몽골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삶과 학습경험과 홀로서기에 대한 연구(전주성, 2011),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두 명의 언어정체성 연구(홍영숙, 2019), 필리핀 여성들의 국제이주의 동기 연구(이용승, 2014), 구직활동과 취업경험 연구(전은희, 2014), 필리핀계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선천성 지체장애자녀를 키운 어머니의 경험 연구(김래성, 2019), 필리핀을 포함한 타국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들은 장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에 초점에 맞춘 연구(주성희, 한경임, 2017)(하미용, 2015), 중국과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을 경험하여 이혼한 경험 연구(황해영, 김영순, 이춘양, 2018)가 있었다.

셋째로, 선행연구들 중 생애사 연구 방법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부분적으로 서술되었으나 가족 체계적 관점으로 전생애를 풀어놓은 이야기들은 미흡하였다.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자기 복원’ 적 삶을 생애사로 기술한 연구(강영미, 2015), 중국 조선족인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부분 생애사 연구(전현영, 2012), 필리핀 이주여성 두 명을 대상으로 생애사를 연구(신난희, 2016)가 있었다. 생애사 이야기 방법론을 이용하여 내러티브 연구를 한 전현영(2012)은 농촌 결혼이주여성이 겪은 삶의 갈등과 그에 대한 적응방식이 무엇인지 문화적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넷째로, 상담적 접근을 통해 한 사람의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을 심층적으로 연구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은경, 최미, 최한나(2016)가 연구한 ‘국내

다문화 상담연구 동향 : 학술지 및 학위 논문 분석(1993~2016.7)'에 따르면 지금까지 다문화 상담 복지지원 및 환경구축 등 외부적 체제를 갖추는 것이 우선시 되었는데 앞으로는 다문화 내담자의 심리 정서적 접근의 내부적 지원 및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다문화 내담자들의 특징에 대한 상담적 개입 및 처치, 검사도구 및 개발, 연구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오은경, 최미, 최한나, 2016:238)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가 다수 차지하나 위 연구의 제언처럼 다문화 내담자의 특징에 대한 상담적 개입에 대한 연구가 많이 미흡한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의 2018년도 [다문화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니 다른 어려움들은 감소하였으나 외로움이 18.5%에서 24.1%로 증가했다는 점이 두드러진 변화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기간이 늘어나면서 한국생활 적응력은 높아졌지만 '도움, 의논 상대가 없다'고 답한 비율이 29.9%로 2015년도(25.7%)에 비해 4.2%로 증가했다고 조사결과를 밝혔다. 이와 같이 심리적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비해 상담적 개입에 대한 연구의 부족과 실제적으로 이주여성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기에 이 연구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치료를 통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다.

다섯째, 결혼이주여성이 한국가정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문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보면 아직까지 심리 치료적 관점의 연구는 많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주은선 외(2012:48)이 연구한 결혼이주여성의 상담 체험에 관한 질적 연구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최근에 들어서 다문화 상담관련 연구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로는 양적인 기초 실태조사 정도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은선 외(2012:49)는 다문화 상담을 경험한 내담자들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한국사회에서의 전문적인 다문화 상담의 정착을 위해서 상담을 경험한 결혼이주 여성들의 경험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김현수와 최연실(2012)은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 관련 요인의 탐색'에 대한 양적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조선족, 중국, 일본 출신의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가족상담의 필요성 인식이 낮았으나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 출신 여성들은 가족상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동훈 외(2005)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은 적응상의 다양한 문제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이 필요할 때 타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거나 배우려

하기보다 스스로 해결하거나 그냥 당하거나 참는 등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정(2011:144)의 연구에서는 개인 및 가족 상담 서비스를 47.1%가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평균 만족도는 3.2877로 전체 만족도 분야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면서 문정화(2017:93)는 다문화 가정이 안고 있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다문화 상담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심리 관련 연구들을 찾아보니 필리핀 여성이 결혼생활에서 경험하는 불안연구(김영옥, 한재희, 2014),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접근성과 우울감 경험에 대해 양적 연구(장주영, 2021),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이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양적연구(김선숙, 고대영, 김혜원, 조요셉, 최성은, 민기채, 2020),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권명희, 2011), 광주·전남지역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연구한 양적연구(임수진, 오수성, 한규석, 2009)를 찾아볼 수 있었다.

여섯째,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는 양적 분석 연구가 지금까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질적인 연구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집단상담 프로그램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프로그램 운영 후 효과성 검증에 대한 관점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또한 기술적 상담보다는 도구를 이용하거나 활동위주의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과의 일대일 질적 연구는 심리치료적 관점보다는 면담위주의 질적 연구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이주여성과의 심리치료 과정은 언어적 한계와 문화적 인식의 차이로 인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아직까지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리치료적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었다. 신체 동작 심리치료가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효과연구(임화영, 2012)와 집단표현예술치료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이설희(2019)의 연구가 있었다.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의 변화 연구(인효연, 2020)와 집단미술치료가 결혼이주여성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한아름, 공마리아, 최은영(2015)의 연구, 콜라주를 활용한 집

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양운정, 이근매, 2013)의 연구도 있었다. 한국고전소설인 [만복사저포기]를 함께 감상한 후 자기서사 쓰기를 적용하는 수업을 통해 결혼과정과 가정생활에 주목하여 경험한 차이의 극복 문제와 성찰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의 실현에 최종 목표를 두고 치료적 자기성찰의 계기를 마련한 신영미(2011)도 찾아 볼 수 있었다.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 이주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과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 정의용과 문지영(2019)의 양적연구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심리 치료적 관점으로 연구한 질적 선행 연구들이 많지 않음을 볼 때 현재까지 인형치료를 매개로 하여 결혼이주여성을 상담한 후 연구한 내용이 없다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 중에 인형치료를 활용한 연구 대상들은 부부, 부모, 보육교사, 아동, 여성상담자, 청소년, 아동학대행위자, 다문화 아동이었다. 연구 형태도 사례연구가 많은 수를 차지하며 효과성 연구, 진단평가 연구, 자문화기술지, 현상학적 연구, 특성 연구, 해석연구 등 질적연구가 중심을 이루었다.

한편, 인형치료는 심층심리학, 가족체계이론, 트라우마 가족치료, 현상학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최광현, 선우현, 2016:95) 인형이라는 도구는 다양한 대상자에게 심리치료시 활용될 수 있으며 가족체계 안에서 가족 간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통해 형성된 자아를 탐색하는데 있어 무의식적인 내용도 탐색할 수 있는 안전한 대체 도구이다. 언어로 자신의 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언어로 잘 표현할 수 없거나 표현이 서툰 아동이나 청소년에게도 적합하다. 특히 인생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하여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거나 거부하는 대상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담도구이다. 이런 점에서 인형치료는 한국어가 모국어인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을 표현하는데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고, 또한 인형이라는 도구를 통해 말로 표현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들여다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는 기존 인형치료를 활용한 사례연구나 효과성을 밝히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인형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이 가정생활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인형을 도구로 하여 결혼이주여성을 상담한 후,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가정생활 경험을 연구한 내러티브 탐구가 아직까지 없기에 이 연구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이 인형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나타난 가정생활 경험을 탐색하여 연구 참여자가 이야기한 가정생활 경험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내러티브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가 살아온 가정생활 경험을 오롯이 들여다 보고 인형치료 과정에서 어떻게 재 경험되는지를 이 연구에 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과 상담자들이 결혼이주여성의 삶과 심리를 깊이 이해하게 되어 추후 결혼이주여성을 돕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연구 참여자인 한 사람의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한 가정생활에 대해 시간과 장소의 맥락, 사회적 상호작용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시간의 맥락이라 함은 연구 참여자가 기억하는 유년기, 청소년기, 결혼 초기, 현재의 가정생활과 현재 인형치료과정을 하는 상담과정에서의 맥락을 말한다. 장소의 맥락이란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장소들을 말하는데 태어나고 자란 필리핀 중부 지역 섬과 마닐라 도시, 결혼이주한 제주시, 직장생활을 했던 직장과 현재 상담을 받고 있는 상담소를 말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이란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가정생활 안에서 원가족인 필리핀 가족들과의 상호작용한 경험들과 제주로 결혼이주한 후 새롭게 형성된 시댁식구들과의 관계, 현가족의 가족구성원, 즉 남편과 두 딸과의 상호작용을 말한다. 이러한 3차원적 맥락 속에서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탐구하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은 인형치료 과정에서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둘째,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이 인형치료 과정에서 보여준 가정생활의 의미는 무

엇인가?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연구의 범위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이 인형치료 과정에 참여하면서 표현한 삶의 이야기들 중에 가정생활에 대한 내용이다. 연구 참여자는 인형치료 과정에서 국제결혼 이전의 원가족에서 경험한 이야기, 국제결혼 후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면서 경험한 이야기, 새로운 가족을 이뤄가며 살아가는 관계들 속에서 경험한 이야기가 있었다. 또한 국제결혼 이후에 친정 가족들과의 관계와 현재 가족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도 구술하였다. 구술된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가정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범위에 따른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결혼하여 이주한 여성이다. 최근 동남아 국가들, 베트남, 캄보디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이주한 여성들의 이야기들을 다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필리핀은 한국과 비교하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문화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나라로 인식된다. 이러한 점에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한 가정생활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한계를 지닌다.

둘째, 결혼이주여성 중에 한국에서 생활한지 10년 이상이 되면서 한국어 표현 능력이 높은 통번역 일을 하는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가정생활에서 경험한 미묘하고도 세세한 감정과 경험을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언어장벽과 문화 차이를 경험하였고 이러한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그 차이에서 나타난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듣고자 하였다. 그러하기에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 중 한국의 거주기간이 짧아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거나 한국어로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하여 통역이 필요한 이주여성들의 이야기는 담을 수 없었다.

셋째,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이 진술한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가정생활과 관련된 부분만 연구내용으로 구별하였다. 결혼을 통한 이주는 가족관계뿐 만 아니라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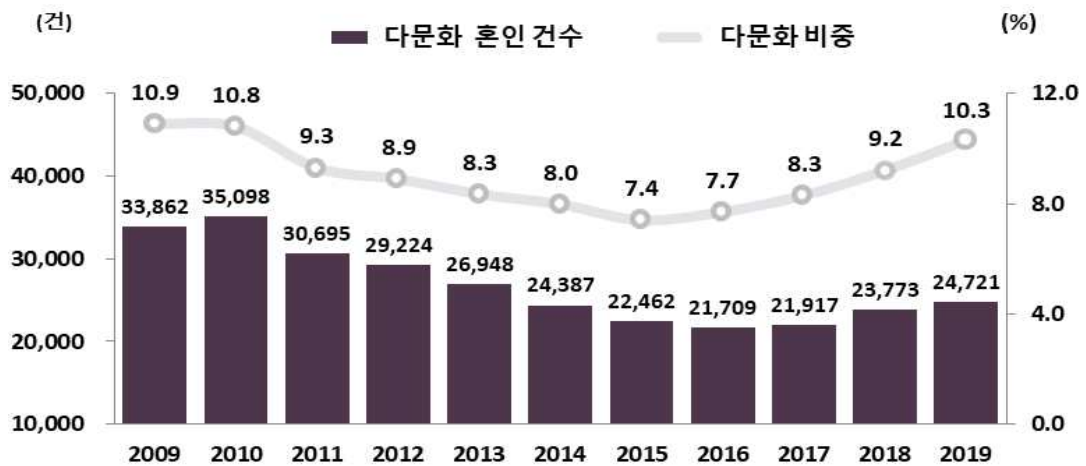
활전반에 많은 변화와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가정생활과 관련된 경험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그와 연결된 개인의 삶과 선택 등에 대해 서술하였고 그 외 사회생활 및 직장경험에 대해 자세히 포함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넷째, 연구 참여자는 인형치료 상담 과정을 통해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인형이라는 도구를 통해 개인이 살아온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인형이라는 도구로 과거의 경험을 시각화하여 스스로 보고 구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상담과정을 통해 과거의 경험을 지금-여기에서 다시 살펴보고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구술되는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탐색하였다. 그리하기에 인형치료 상담과정에서 나타난 이야기들은 다른 상담기법을 사용할 때 탐색되는 이야기들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결혼이주여성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통계청의 자료에서 나타난 지난 10년간 추이를 비교해 보면 국제결혼은 지속적인 우리 사회의 현상임을 볼 수 있다. 통계청의 ‘2019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혼인은 24,721건으로 전년대비 4%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의 비중이 10.3%로 전년대비 1.1%가 증가하였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다문화 혼인 건수 추이를 보면 7~10% 정도로 다문화혼인이 차지할 만큼 꾸준히 결혼이주가 진행되어 있다.



[그림 II-1] 연도별 다문화 혼인건수 및 다문화 비중
출처 : 통계청의 ‘2019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한국에서 결혼이주 현상이 발생했던 초기에는 중국동포(한국계중국인)가 주였으나 최근 3년간 자료에 따르면 30.4%가 베트남 여성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국가도 다양화 되고 있다. < 표 II-1 >을 살펴보면, 이 중에서 필리핀은 일본 다음으로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이나 중국, 한국계 중국인이거나 일본은 불교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비슷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에 필리핀은 스페인과 미국의 영향력으로 인해 서구화가 진행된 국가로 인식되어 문화적으로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데 결혼이주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 표 II-1 > 출신 국적별 혼인 비중, 2017-2019년

(단위: 건, %)

국제결혼	2017	2018	2019
건수	21,917	23,773	24,721
계	100.0	100.0	100.0
한국인 아내	20.0	18.8	17.7
외국인 아내 ¹⁾	80.0	81.2	82.3
베트남	27.7	30.0	30.4
중국	25.0	21.6	20.3
태국	4.7	6.6	8.3
일본	3.9	4.2	3.7
필리핀	4.3	4.0	3.6
미국	2.8	2.7	2.7
캄보디아	2.5	2.5	2.5
러시아	0.8	1.0	1.3
대만	1.3	1.3	1.3
우즈벡	1.1	1.2	1.2
기타	5.9	6.1	6.9

1) 귀화자는 귀화 이전 출신 국적, 외국인은 혼인 당시 외국 국적으로 분류
출처 : 통계청의 '2019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필리핀은 해외 이주자들을 위한 사전교육을 시행하며 외국 정착을 위해 자국민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래의 통계, < 표 II-2 >는 필리핀 CFO가 제공한 자료로 출국전 등록(PDR : Pre Departure Registration) 과정을 이수하고 출국한 여성들의 숫자를 집계한 것이다. CFO에 따르면 2009년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결혼이주한 사람이 2009년에는 1,458명이었다가 2014년도에 982명으로 2018년도에는 687명으로 감소하였다. 필리핀 국가 입장에서는 한국으로

결혼하는 비율은 1~2% 안팎에 불과하다. 김정석(2009:10)의 연구에서 CFO의 PDR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내용에 의하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경우 두 가지의 사례로 갈린다고 설명한다. 하나는, 필리핀에서의 어려움보다 새로운 기회와 삶을 찾으려는 이상향(Dreamland)에 무게를 두고 찾으려는 사례로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가 포함되고 있는 경우이다. 다른 경우는 필리핀에서의 어려움이 너무 크기에 벗어나려는데 더 무게를 두는 사례인데 두 가지 다 필리핀을 떠난다는 것과 최종 자기결정이 다르지만 그 과정과 기대는 다르게 나타나고 설명하였다.(김정석, 2009:10) 이용승(2014)은 사례들을 통해 국제이주의 동기를 가족부양과 취업기회확대, 더 나은 삶에 대한 욕망과 만족추구, 사회적 네트워크 등이 이주를 선택하는데 중추적인 동기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 표 II-2 > CFO 국제결혼 통계

(단위 : 건)

연도	총계	한국	비율
2009	79,718	1,458	1.8%
2010	86,075	1,565	1.8%
2011	83,410	1,618	1.9%
2012	83,640	1,632	1.9%
2013	78,228	1,419	1.8%
2014	80,689	982	1.2%
2015	92,998	700	0.7%
2016	89,354	694	0.7%
2017	79,779	616	0.7%
2018	73,719	687	0.9%

출처 : CFO (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

필리핀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다수 성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서는 필리핀공화국법 제6955호(1990.6.13., 일명 우편주문신부금지법)에 따라 자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 간에 일체의 영리·비영리 목적의 결혼중개 활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중

개자뿐만 아니라 혼인당사자인 외국인도 형사 처분 및 강제추방 후 입국금지 등 제재를 당한다. 또한, 우리나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는 중개업자에게 외국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재국에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현지 공관으로부터 중개업자의 개인정보와 업체의 영업정보를 통보 받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한국으로 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가족이나 지인의 소개를 통해 결혼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에리텐(2019:25)의 연구에 따르면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통로가 친구, 친척 등의 소개가 3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연애결혼이 22.8%,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16.5%, 종교기관을 통해서 15.2%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승(2014:140)도 결혼이주민은 사실상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1세대라고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결혼이주민들의 연결망에 따른 연쇄 이주의 성격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다문화 혼인 건수와는 별도로 이혼도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다. 다문화 결혼율과 이혼율을 단순히 비교해 보더라도 여러 가지를 유추해 낼 수 있다. 중국국적의 아내와 결혼한 부부가 2019년도에는 결혼이 20.3%에 비해 이혼율은 37.8%에 육박하는 수치로 가장 많이 차지한다. 베트남과 일본 등의 결혼이주 아내는 결혼률보다 이혼율이 낮다. 반면 2019년 최근 통계, < 표 II-3 >에 따르면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크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률보다 이혼율이 높게 기록되고 있다. 그중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의 결혼률이 3.6%인 반면 이혼율은 3.9%로, 결혼률 5위에서 이혼율 3위로 상승 기록되고 있는 부분을 유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 표 II-3 > 출신 국적별 이혼 비중, 2017-2019년

(단위 : 건, %)

국제결혼	2017	2018	2019
건수	10,307	10,254	9,868
계*	100.0	100.0	100.0
한국인 아내	15.2	16.1	17.1
외국인 아내 ¹⁾	84.8	83.9	82.9
베트남	41.8	39.9	37.8
베트남	26.0	26.1	26.5
베트남	3.8	3.9	3.9
캄보디아	3.0	3.3	3.1
일본	1.7	1.8	2.0
태국	1.4	1.6	1.9
미국	1.4	1.3	1.5
우즈벡	1.2	1.4	1.3
몽골	1.0	1.1	1.0
캐나다	0.5	0.4	0.6
기타	3.1	3.2	3.4

1) 귀화자는 귀화 이전 출신 국적, 외국인은 혼인 당시 외국 국적으로 분류
출처 : 통계청의 '2019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최근 3년간 출신국적별 아이 출산 현황은 < 표 II-4>로 다음과 같다. 2019년 도 출생아 부모 출신의 국적을 살펴보면 베트남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중국과 필리핀 순이다. 베트남 어머니가 자녀를 출생하는 비율은 2019년도에 38.2%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과 태국출신의 어머니의 자녀 출산 비중은 지난 3년간 비교해 보았을 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필리핀은 2017년도에 7.3%에서 2019년 도에는 6.1%로 지난 3년간 추이를 보면 계속 낮아지고 있다.

< 표 II-4 > 출생아 모(母)의 출신 국적별 비중, 2017-2019년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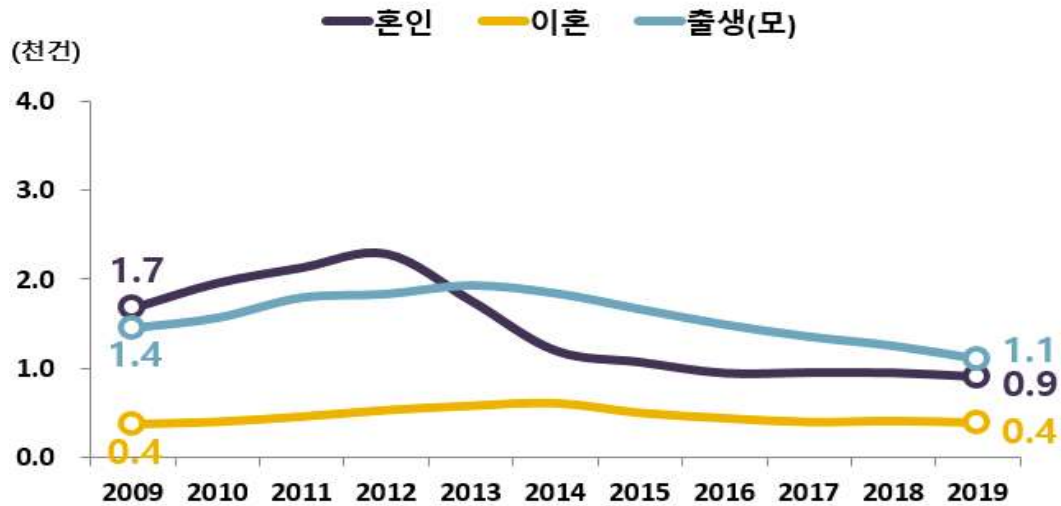
	2017	2018	2019
출생아 수	18,440	18,079	17,939
계*	100.0	100.0	100.0
한국인 모	16.0	15.9	14.0
외국인 모 ¹⁾	84.0	84.1	86.0
베트남	34.7	35.6	38.2
중국	22.0	20.8	19.9
필리핀	7.3	6.9	6.1
캄보디아	4.0	4.1	4.1
일본	3.9	3.8	3.8
태국	1.8	2.4	3.1
미국	2.2	2.2	2.1
기타	8.0	8.1	8.6

* 국적미상 제외

1) 귀화자는 귀화 이전 출신 국적, 외국인은 혼인 당시 외국 국적으로 분류
출처 : 통계청의 '2019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혼인과 이혼, 출생에 대한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II-2]에 나타났다. 지난 10년간을 보았을 때 혼인은 1.7%에서 0.9%로 감소하였고 자녀 출산도 1.4%에서 1.1%로 감소하였다. 이혼율은 10년 동안 변화 없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국에 시집온 1세대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을 통해 2세대 지인들이 한국으로 시집을 오고 있다고 한다면 1세대들의 한국생활 만족도가 낮다고 유추해 볼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자녀출산율의 감소로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김필숙, 이윤석, 김두섭(2018)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이 남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리고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의향은 더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애리덴(2019)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에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남편의 지지가 높을수록, 사회참여활동이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정(2018)이 연구한 첫 자녀 출산 부모의 결혼만족도 변화경로 및 예측 요인 논문

에 따르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첫 자녀 출산 후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부부
 갈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 연도별 혼인, 이혼, 출생(모) 추이
 출처 : 통계청의 '2019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연구자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학습이나 교육의 관점에서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김가연(2021)의 한국어능력 시험 학습경험으로 인해 생긴 삶의 변화에 대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 연구가 있었다. 채옥희 외(2011)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배경과 출국전 한국가정생활 교육내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고, 은고요나(2017)는 필리핀 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실 활용에 대한 연구를, 나윤경 외(2008)은 필리핀 이주여성들의 행위자성과 평생교육의 지향점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화적 관점에서 연구한 내용들도 아주 다양하였다. 김희주와 은선경(2007)은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위한 대처전략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였고, 이외에도 국내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자원의 영향 (애리덴, 안정신, 2021)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홍달아기 외(2012)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가정생활 문화적응 단계별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권복순(2009)은 대구지역의 베트남, 필리핀, 중국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과 자아 존중감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으며 강미연, 장

인자(2009)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엄마 되기’ 경험을 중심으로 본 정체성의 문화정치를 연구하였다. 정근미(2020)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을 대상으로 모국 설화집 구성을 통한 다문화 가정의 상호문화주의 문화교육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김현경, 신동주(2008)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결혼생활 현상에 관해 연구하였다. 김정선(2012)은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변화하는 ‘home’의 의미와 시민으로 주체되기에 대한 내용에서 문화와 공동체의 의미를 탐구하였는데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의 공동체가 대안적 home으로서 잃어버린 귀속감을 회복할 수 있는 문화적 거처의 구실을 하여 필리핀인이라는 종족 정체성에 의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주의 관점으로 연구한 내용들도 있었다. 박혜경과 이재경(2010)은 탈빈곤 전략으로서의 이주결혼의 역설에 대해, 김정선(2010)은 아래로부터의 초국적 귀속의 정치학을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고 김동엽(2010)은 필리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초국가적 행태에 대해 연구하였다. 김민정 외(2006)은 베트남과 필리핀 이주여성의 국제결혼 딜레마와 선택에 대해 연구하였다.

정선주(2020)는 EBS<다문화고부열전>에 출연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연구하였고 류주현(2012)은 베트남과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거주분포와 민족적 배경에 관한 소고를 연구하였다. 안정애(2016)는 한국 내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정보 탐색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Neonita Cruz Bang(2011)은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소비행동과 가치관에 관한 평가라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영경과 이정향(2014)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근린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 자본에 대해 연구하였다.

반면 필리핀뿐 아니라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의 특성을 연구한 송유진(2016)은 배우자의 국적에 따른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이 다양하다고 밝혔다. 송유진(2016)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 남성들은 어린 필리핀 여성과 초혼을 선호하나 교육수준이나 영어구사능력은 상대적으로 낮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거나 결혼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송유진(2016)은 또한 일본 및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필리핀 여성들의 낮은 사회경제적 특성과 의

사소통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국제결혼이 빈번한 필리핀에서는 일본이나 한국이 국제결혼 선택지로 그다지 선호되는 국가가 아닐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필리핀인들은 미국과 역사적 연관성과 미국에 대한 전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서술하였다.

다문화 자녀와 관련되어 연구한 내용들도 다수 발견되었는데, 박순용과 오덕렬(2012)는 취학연령 자녀를 둔 필리핀 및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교육문화 적응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한진숙(2014)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자녀 한국어 교육지원에 관한 경험을 연구하였고 송선화, 안효자(2011)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을 연구하였다. 박은민 외(2011)는 농촌을 중심으로 자녀양육 경험을 연구하였으며 필리핀과 일본 어머니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자녀 교육의 실제와 의미 교육(전홍주, 배소영, 광금주, 2008),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자녀교육경험 연구(최승은, 2019), 김현식(2018)의 출신 국가별 출산력 차이 분석 연구 등이 있었다.

2. 가족치료와 인형치료

가족체계란 가족 단위를 하나의 체계,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이다. 김춘경 외(2016)은 일반체계이론에서 체계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위요소들의 집합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체계이론을 가족에 적용하면 가족을 구성하는 가족원들이 상호작용하여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그 가족 전체 체계내에서 뿐 아니라 다른 가족체계에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가족체계 관점에서의 문제는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닌 가족 간 상호작용 관계에 있다고 본다.

1) 가족치료

가족치료는 가족 체계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 치료적 개념이다. 전해성(2019)은 구조적 가족치료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의 부부 적응 및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상담 방안 모색에 대해 연구하였다. 20세기 중반에 개인이 속한 가족을 하나의 구조, 하나의 체계로 본 가족 치료적 방법들이 발전해 왔다. 관점에 따라

구조적 가족치료, 경험주의 가족치료, 다세대 가족치료, 전략적 가족 치료, 해결 중심 단기 가족치료, 이야기 가족치료 등의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사티어(Satir)의 경험주의 가족치료(experiential family counseling)에 서는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이해하기보다 개인들의 집합으로 보며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변화를 통해 가족의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치료기법으로는 가족조각, 재정의, 은유, 역할극, 유머, 접촉, 나의 표현, 가족 생활연대기, 빙산탐색 등이 있다. 사티어 모델에서 빙산은 개인의 내부와 외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개념으로서 자신과 가족 상대의 그러한 면을 편안하게 자각 하고 이해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개념이다.(김영애, 2014:19~20) 이러한 빙산, 즉 수면 위의 보이는 부분을 인간의 행동으로, 수면 바로 밑을 감정과 생 각으로, 수면 아래 부분을 기대와 열망으로, 가장 아래에 있는 부분은 자아로 설 명하고 있는데 빙산탐색 질문이란 이러한 인간의 다양한 면을 탐색하기 위한 질 문방식이다. 사티어가 발전시킨 경험주의 가족치료는 체계화된 기법으로 상담과 정을 계획하고 구조화에 기여하였다.(김춘경 외, 2016) 오연미(2017:13)에 따 르면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는 가족이 지니고 있는 특정한 갈등과 행동양식 을 인정하며 가족원 간의 경험적 관계를 촉진시킴으로써 개인이 성장하도록 돕 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지금-여기에서 경험되는 상담자와 가족 구성원,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순간순간 일어나는 상황을 중시하며 상담과정을 통해 성장적 경험의 과정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치료라고 강조하였다.(오연미, 2017)

2) 인형치료

인간은 인형을 친밀감과 위안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 왔다. 이는 인간의 심리적 기제에 활용되기 위한 목적이었다.(최광현, 선우현, 2016:36) 최광현과 선우현(2016:35)은 인형치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인형치료는 가족치료 기법 중 하나인 트라우마 가족치료의 이론적 토대를 통해서 발전되었 는데 가족치료나 놀이치료뿐만 아니라 심리상담의 광범위한 현장 속에서 개인 상담을 위한 좋은 도구로 사용된다. 또한 인형은 개인 상담을 할 때 면담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치료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도구이고 무엇보다도 언어적 상담

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다. 또한 최광현과 선우현(2016:35)은 인형이라는 도구는 언어를 통한 기존의 상담방법이 갖는 한계, 예를 들어 방어기제를 사용하거나 증상을 표현하는데 문제가 위장될 수 있는 점을 보완해 주며 가족과의 관계와 상호작용의 모습을 파악하도록 도와주는 도구라고 설명한다. 최광현과 선우현(2016:42)은 인형치료의 이점을 설명하면서 인형은 또한 치료적 은유를 위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은유는 언어와 이미지를 통해 상반되는 것들을 결합시켜 통합하도록 기능한다고 밝혔다.

맹미숙(2020)은 아동기 자녀를 둔 부부 4쌍을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부부들의 가족체계에서 자아인식, 배우자 인식, 가족관계 인식, 상처인식을 통해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러한 과정이 자녀 양육태도가 현가족의 자녀들에게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수와 최광현(2020)은 상처 입은 내면 아이 인형치료를 적용하여 부부관계에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사례를 연구하였다. 부부가 각 원가족으로부터 자신의 내면과 관계규칙을 물려받아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투사하고 전이와 역전을 반복하고 있으며 어린 시절의 상처들이 현재에도 재현되고 있는 것을 인형치료를 통해 시각화 하였다. 김명숙(2015)은 부부 사이의 역기능적인 체계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인형치료와 언어적 치료를 활용하여 부부가 자신과 배우자를 이해하고 성장하는데 기여하였다. 최정임과 최광현(2020)은 인형심리진단평가를 활용하여 중년여성의 부부관계 및 투사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50대 중년여성 4명을 대상으로 질적 사례분석을 하였다.

최장은(2021)은 양육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8인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화상 인형치료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어떠한 변화와 경험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하였는데 네 명씩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나누고 양적분석과 질적분석을 실시하여 인형치료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금순과 최광현(2018)은 10대 청소년 자녀가 있는 5명의 중년 어머니를 선정하여 인형치료 집단 프로그램이 이들의 자아정체감 효과를 연구하여 그 결과를 밝혔다.

인형치료의 진단과 평가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선택한 동물 피규어의 종류, 대비와 공통점, 공간적 배치, 전체적 구성을 보고 해석학적 의미를 찾고 내담자의 문제체계를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 질문 단계를 통해 가족의 질서, 애착, 억압의

영역을 탐색함으로 시작된다(최광현, 선우현, 2016:43). 그러나 인형치료는 상징물들의 이미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지 않으며 다만 연구 참여자가 세운 상징의 이미지 흐름 속에서 주어진 맥락 속에서 이해한다.(최광현, 선우현, 2016:43)

3. 가정생활

인간이 처음 태어나 겪게 되는 사회가 바로 가정이다. 그 가정 속에서 인간은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게 된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가정에서의 생활은 더 큰 영향력을 가지며 한 개인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는다.

1) 아들러의 개인과 가족

아들러(Adler)는 가족은 개인이 태어나 처음 경험하는 사회집단이기 때문에 개인의 생활양식과 성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권석만, 2019:132) 부모를 중심으로 한 가족 구도 속에서 부모가 민주적으로 모든 자녀에게 대등한 관계에서 양육하지 못할 경우 어떤 자녀는 심리적 상처를 받을 수 있다.(노안영, 강영신, 2011: 98) 형제자매 관계는 단순한 구조적 특성뿐만 아니라 형제자매간의 자극과 반응, 그리고 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신념, 지식, 태도 감정들의 견지에서 지각되어 이것이 특정한 방법으로 반응하도록 한다는 심리적 상호의존성에 대해 강조하였다.(Hustn, 1982) 형제관계의 심리적 특성 중 온정과 친밀감은 부모와 또래 관계에서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과 신뢰감에 유의한 상관을 보이며(김상희, 박성연, 1990), 서로에게 어떤 기준이나 모델이 되기도 하며 서로에게 자극이 되기도 하며, 빈번한 갈등과 충돌과 싸움으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익히게 된다.(이지선, 1994) 그러하기에 가족 내에서의 경험이나 형제관계, 사건으로 형성된 태도로 인해 개인의 삶은 크게 바뀌게 된다.

아들러는 모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열등하다고 말한다. 아들러는 인간이 단순히 유전형질로 어떻게 태어났는가와 처해진 환경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초점을 두었는데(권육상, 2008:167) 인간은 통합적으로 움직이는 전일적인 존재이면서 목표 지향적이라고 보았다.(권석만, 2019:126~128) 아들러는 열등감을 긍정적으로 자기완성을 위한 필수 요소로 보면서 이러한 열등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심리적 건강에 이르기도 하고 열등감 콤플렉스라는 신경증에 빠지기도 한다고 말한다.(김보기, 박유미, 2020) 아들러는 우월에 대한 추구가 인간 생활의 기초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모든 사람은 위대한 향상의 동기(great upward motive), 즉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나아가는 동기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월이나 완성을 향해 추구하는 동기를 선천적으로 갖고 타고난다.(Adler, 1964:103) 그러나 우월에 대한 추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긴 하지만 인생발달단계에서 적절히 신장되어야만 하는데 출생 시 그것은 실체가 아닌 잠재력으로 존재한다. 그러하기에 이 잠재력을 자기 나뉘므로 현실화하는 것은 각 개인에게 달려 있다고 설명한다.(권중돈, 2014:259~260) 이러한 우월의 목표는 인간 사회발달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긍정과 부정의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긍정적인 경향은 사회적 관심이나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지향하는 이타적 목표이며, 부정적인 경향은 개인적인 우월성을 추구하는 자기존중, 권력, 개인적인 허세와 같은 이기적인 목표들이다.(권육상, 2008:168) 어린 시절 형성된 비현실적 목표는 삶의 방향을 이끄는 지침으로서 그것에 도달하려고 집착하고 애쓰는 과정에서 부족함이나 마이너스(-)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결국 좌절이나 낙담도 경험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목표(fictional goal)에 집착하여 왜곡되거나 기본적 오류를 포함한 자아개념에 의해 집착함으로써 좌절에 대한 불안감을 경험하게 된다.(김보기, 박유미, 2020:99)

아들러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인 공동체감(Gemeinschaftsgefühl)(Ansbacher & Ansbacher, 1982:140)은 각 사람의 삶은 세상의 일부분이며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의미한다. 이 개념을 직역하면 공동체감(community feeling)에 더 가까워 이 개념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사회적 관심(Social interest)’으로 번역되었다.(권석만, 2019:131) 사회적 관심은 아들

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인간은 태어나는 그날부터 사회적 맥락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다. 아들러가 말하는 사회적 관심이란 각 개인이 이상적인 공동사회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사회에 공헌하려는 성향을 말한다.(장성화, 윤향숙, 송종원, 2016:85) 일반적으로는 사회적인 관심은 가족관계 및 다른 아동기 경험의 맥락에서 발달하게 되는데, 특히 협동심이나 연대의식 또는 동료의식 같은 사회적 관심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바로 어머니이다. 아버지는 어머니 다음으로 사회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 아버지가 배우자나 직업, 사회에 대해 긍정적 태도로 성숙된 사회적 관심을 보여 준다면, 아동의 사회적 관심은 발달되기 시작하며 더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김청자, 정진선, 2006:156~157) 아들러는 사회적 관심을 개인의 장애에 모든 적응이 달린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여, 그는 개인의 사회적 관심에 대한 수준을 가지고 그 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추정하는 척도로 여기기까지 사랑하였으며,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사람은 적응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Ansbacher, H. L. & Ansbacher, R. R. (Eds.), 1956:126).

아들러는 생활양식의 진정한 형태는 생활과제에 어떻게 접근하며 이를 해결하는 태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구별된다고 하였다.(김보기, 박유미, 2020:90)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 세상에 대한 인식을 생활양식의 핵심 요소로 보고, 이 인식에서 기본적 오류를 발견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아의 존재로 나아가도록 돕는다. 아들러는 자기중심적인 우월성 추구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하는 왜곡된 나로부터 벗어나서 세상과 함께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어 함께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김보기, 박유미, 2020:102)

2) 가족주의

가족이란 무엇인가. 네이버(Naver) 국어사전에는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이라고 설명되어 있으면서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가족주의란 무엇인가. 네이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하는 가족주의란 개인보다는 가족 전체에 가치의 중심을 두고 사는 사고방식이다. 바로 가족을 중심으로 개인의 삶을 계획하고 꾸려

나가는 삶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다.

(1) 한국의 가족주의

한국인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족과 결속되어 민족의 삶을 형성해왔다. 한국은 가족주의가 강한 나라로 역사 속 문화적인 면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고구려의 결혼 풍습, 테릴사위제는 어린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일정기간 생활한 후에 결혼하는 제도였는데 남자가 없는 집에서 노동력이 필요하여 실시하였다. 그 후 유교의 영향으로 여자가 시집을 가면 출가외인이라 하여 남편의 가족에 귀속되는 풍습이 뿌리를 내렸고 남자를 중심으로 하는 가부장제가 발달하게 되었다. 유교 철학의 영향뿐 아니라 논농사 등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던 경제구조로 인해 대가족제도가 예로부터 이어져 왔다. 역사적으로 나라의 형벌에 연좌제란 것이 있었는데 이는 20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시행되었다. 연좌제란 부모형제의 죄는 자동으로 혈연관계에 있는 자에게 물려지며 공동의 책임을 갖는 제도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3족을 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족주의는 유교와 결합하여 조선이라는 국가의 기반을 세워 국가의 가치와도 결부되어 다방면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하기에 하나의 피를 나눈 한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역사와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려 혈통주의를 더욱 공고히 세우게 되었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산업화가 가속되는 한국사회에서 핵가족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개별 가족 구성원의 권리가 높아지고 가족 내 위계질서를 약화시켰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기혼여성이 부계가족 내에서 부계가족을 공고히 하기 위한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김민정, 2007:219) 오늘날의 여성들은 핵가족의 이념을 수용하면서도 직계가족의 범위에서 행동해야 하며 핵가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부계나 모계 모두 받아들이는 양계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김민정, 2007:219~220)

(2) 필리핀 가족주의

필리핀은 동양에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서구적 가치와 문화로 한국과 다를 것이라고 추측이 들지만 사실 필리핀의 국민들은 가족을 중심으로 살아간다. 박희(2002)는 필리핀의 가족주의와 ‘사회적 자본’의 문제 연구에서 필리핀은 서구적 아시아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일반적인 면과 달리 필리핀 사회가 가족주의적 전통이 강하다고 말한다. 필리핀은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히스패닉화, 미국

화, 일본화의 과정을 경험하였지만 전통적 가치는 상당히 유지되었는데 가족적 유대, 친족적 전통, 종교성과 연장자에 대한 존중심을 들었다. 부계와 모계를 모두 친족 범주에 포함시키는 공계적인 특성을 지니면서(김민정, 김영수, 1997:300) 혈연관계는 친족 관계를 범주화 하는 중요요인으로 작용한다.(박희, 2002:134)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강하기에 이웃들 간의 의사결정에서도 개인 구성원이 아닌 가족 전체가 결정의 주체가 되며 가족의 명예는 그 가족 구성원이 위법을 저지를 경우 크게 위협받는다.(박희, 2002:136) 그러면서도 가족의 이해관계는 개인에게 초점이 모아져 미혼모가 직접적인 친족의 지원을 받으며 가족의 구성원으로 수용되기에 양로원이나 고아원에 맡겨지는 예가 드물다(Jocano, 1998:63)

필리핀에서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는 각자의 양변적 친족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우자의 친족 관계도 받아들이며 혈통집단을 구성하지 않고 대신 폭넓게 확장되는 친족인식 속에 친족관계망은 실제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김민정, 2007:221) 가족주의는 가족 안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단위나 종교에도 영향을 주며 가족 중심으로 삶을 형성시키곤 한다.(박희, 2002:137) 필리핀의 가족주의는 성별 역할분담과 활동영역의 구분은 확실한 편이나 남녀 모두 현실적 필요에 의해 그 경계를 넘나든다.(김민정, 김영수, 1997) 이러한 동남아 특유의 전통적인 요소는 서구 식민지배 이후 가부장제 가치관과 여성의 성별 분업에 있어 혼합적이고 양변적인 면이 혼재되어 있어서 여성의 역할에 모순을 낳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 여성의 역할이 더 가중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문은영, 강문구, 전경옥, 정슬기, 2005:74). 미국 내 필리핀과 한국인 부모, 대부분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족주의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바에 따르면 두 집단 모두 가족주의에 대한 높은 의식을 나타내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재미 필리핀 부모들이 재미 한국인 부모들보다 가족주의에 대해 더 전통적인 양상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Choi Yoonsun, Kim Tae yeun, Noh Samuel, Lee Jeanette, Takeuchi David, 2018)

III. 연구방법

1. 내러티브 탐구 방법

연구자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와 경험을 오롯이 담기 위해서 질적 연구방법인 내러티브 탐구 방법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Clandinin과 Connelly(2007)에 의하면 내러티브 탐구는 ‘경험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사람들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삶을 구성하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살아가고, 말하고, 다시 살아가고, 다시 말하는 가운데 끝난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개인이 살아온 이야기, 이야기된 이야기들에 표현된 경험들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다.(Clandinin & Connelly, 2007:98) 또한 Riessman(2008)은 내러티브 연구가 단일한 개인 혹은 소수 개인들의 상세한 이야기 혹은 인생 경험들을 포착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한 자료수집과 기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면서 면접기록의 다양한 방법을 예시하였는데 이러한 기록은 연구자를 강조하고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에 역점을 두고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대화를 전달한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왜 내러티브인가? 우리는 경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내러티브는 경험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이며 그러하기에 내러티브는 사회과학의 현상이자 방법이기 때문이다.(Clandinin & Connelly, 2007:60) Dewey(1929)는 경험이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것으로 정의하였다. 인간들은 단지 개인으로만 이해될 수 없고 항상 사회적 관계와 맥락 속에서 존재한다고 보면서 경험은 다른 경험으로부터 생겨나며 또 다른 경험을 이끌어낸다는 경험의 연속성에 대해 말하였다.(Clandinin & Connelly, 2007:33) 한 인간이 살아온 인생은 한 인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그 삶을 관찰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타인에게 영향을 끼친다. 우리 모두는 태어나고 살아가고 인생을 마감하지만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말할 것인가는 개

인의 개성과 특성에 달려 있다. 또한 우리는 한 인간의 인생을 바라볼 때 자신의 인생과 비교하며 거울처럼 비추기도 한다. 지구상에 수많은 인간들이 살아가지만 지문이 똑같은 인간이 없는 것처럼 비슷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한 개인의 삶의 이야기는 자신의 지문처럼 각각 다른 이야기와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을 연구하는데 내러티브 연구는 그 다양성과 독특성으로 인해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서덕희(2011:10)는 연구 참여자의 내러티브 외에 연구 참여자들의 집을 방문하여 오감으로 체험한 모든 것을 중요한 해석의 준거로 삼으면서 내러티브라는 문(文)을 포함해서 넘어서서 연구하는 ‘질(質)적 탐구’라고 명명하였다. 서덕희(2011:10)는 다시 말해 이야기(文)을 둘러싸거나 기반이 되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사이에 언어화되기 이전의 몸의 태도와 체험, 느낌, 감정, 욕망 등을 중시하여 ‘문(文)’을 넘어서 몸의 변화를 추구하는 글쓰기라고 설명한다. 전현영(2012:29)은 결과를 제시하는 서술 방식으로 참여자의 면담 내용을 앞에서 제시하였는데 이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개인이 문화적인 영향을 받고 주변인간들과 관계를 맺으며 실체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존재라는 관점으로 보아 연구 참여자가 인식한 삶의 언어와 표현을 아는 것이 피부에 가장 잘 와 닿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표현한다.

2. 연구자의 자전적 이야기

연구자는 학창 시절부터 영어에 관심이 많았다. 그 시절에는 제주에서 영어를 사용할 만한 직업이 거의 없어 다들 일본어를 공부할 때 연구자는 굳이 영어를 선택하여 공부하였고 그 후 영국에서 어학연수를 받았다. 영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필리핀 간호사들을 알고 지낼 수 있었는데 같은 이주민이라는 동질감으로 더 친해져서 약 반년 동안 그들 자국민 모임에 자주 참여할 수 있었다.

필리핀 사람들의 문화는 한국의 것과 많이 달랐다. 필리핀 사람들은 아주 낙천적이었다. 필리핀 간호사들은 주중에 종합병원에서 열심히 일하다가도 주말이 되

면 돌아가면서 모임을 갖고 파티를 즐겼다. 모임에는 항상 수다와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춤과 노래가 있었다. 필리핀 공동체 마을을 형성할 정도로 주변에 모여 살았고 주말마다 파티를 열고 동료들과 수다를 떨고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며 필리핀 음식으로 마음의 향수를 달래곤 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필리핀에 살고 있는 가족들의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 일을 찾아 이주해 왔다. 필리핀 간호사들이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기에 그리고 경제적인 짐을 지고 있기에 힘들고 우울하게 살 거라고 생각도 들었지만 그러한 나의 예상은 빗나갔다. 이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꿈을 포기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아 보였다.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가능하면 계약을 갱신하여 오랫동안 영국에 머물고 싶어 했다. 영국에서 이들의 삶의 질은 아주 높았다. 이들은 주어진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주말에 본국 동료들과 만나서 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인생을 즐기기보다 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국의 사람들과는 아주 달라 보였다. 무엇보다도 연구자는 필리핀 간호사들은 필리핀에 살고 있는 대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삶이 마치 당연하고 자신의 운명처럼 받아들였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받아들이게 했을지 한국인인 나로서는 궁금했다. 몇 십 년이 지난 지금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를 정하면서 그때 그 기억을 떠올렸다.

연구자는 실제 심리 상담을 한지 3년 정도 되었다.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한편론 상담사로서 뭔가 도움을 줘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고 도움이 되지 못하면 어쩌나 라는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심리 상담사는 문제해결사가 아니라 옆에서 돕는 자라는 개인의 신념을 상기시키곤 한다.

상담을 배우면서 이주여성보호시설에서 의뢰된 다문화 부부를 상담하는 것이 주 업무로 주어졌을 때 마치 자신의 일처럼 도움을 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정작 다문화 상담이라 할지라도 남편들을 주로 상담하게 되고 결혼이주여성과의 상담은 통역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다. 부부상담도 심리치료적 접근보다는 문제해결적인 방향으로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다. 마침내 결혼이주성과 개인 심리상담을 하게 되었을 때 한껏 부푼 마음으로 임하였지만 통역을 통하지 않고 결혼이주성을 상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깨닫게 되었

다. 모국어 통역사가 있어야 하거나 한국어를 잘 하더라도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서툴러서 말이 잘 전달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하였다. 특히 통역을 통한 상담시에 내담자로부터 답변이 돌아오기 보다는 통역사와 내담자가 여러 얘기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 정작 상담은 뒷전이 되곤 했다. 통역사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도 정작 내담자의 답변은 동문서답이 되곤 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혼이주여성을 상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고 심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그래서 찾은 도구가 바로 ‘인형’ 이었다. 내담자는 ‘인형’ 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편하게 느끼고, 연구자는 인형을 통해 말로는 다 표현되지 못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인형은 언어의 한계를 느끼는 결혼이주여성을 상담할 때 마음속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었다. 그 후 연구자는 지속적으로 심리치료시 인형치료(Figure Therapy)를 적용해 오고 있다.

연구자는 영국에서의 학업 이후에도 해외에서 약 7년 정도 영어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며 생활했다.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해외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한국어가 아닌 언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업무를 해야만 했다. 그러하기에 연구자에게 영어는 한국어 다음으로 친근한 언어이면서 나를 표현하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다. 이러한 개인적 경험이 영어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이번 상담을 진행하면서 연구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 되었다. 그렇기에 연구자는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긴장하기도 했고 걱정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연구 참여자가 연구자가 일하는 기관에 파견 받았기에 업무적으로도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나면서 연구자로서의 객관적 관점을 잃게 되면 어쩌나 라는 걱정도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연구자에게 도움이 되었다. 면접상담을 통해서만이 아닌 업무를 같이 하면서, 그리고 일상적인 교류를 통해 연구 참여자를 더 잘 이해하고 관찰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3. 연구 참여자 소개

이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는 편의주의적 연구 참여자 선정방법(opportunistic sampling)을 이용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 방법은 연구자료 수집이 시작된 후에 미리 설정된 연구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insights)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 특징이다(Creswell, 2008)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를 찾던 중 상담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통역사 없이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연구 참여자를 찾았는데 깊은 대화가 잘 안될 상황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대상자 이기를 바랐다. 처음에는 같이 일하고 있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동료 상담원에게 의뢰하여 부탁하면서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기를 요청하였다. 그러한 사람을 찾았다고 하여 만나려고 하였으나 연구자가 몇 주가 지나 연락을 하려 하니 일이 바빠져서 주중은 물론이고 토요일도 일을 해야 해서 상담받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 다른 사람을 물색하게 되었다. 이후 만나게 된 연구 참여자가 바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인 영화(가명)이다. 영화는 만18세 결혼이주를 하여 한국 생활 12년차로 현재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 영화는 영어, 타갈로그어, 한국어로 통번역이 가능하고 남편과는 17세 나이차이며 자녀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두고 있다. 인간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한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내러티브 탐구 방법으로 연구하기로 하였다.

< 표 III -1 > 연구 참여자 기초정보

연구 참여자	나이 (만)	출신 국	한국거주 기간	직업	동거 가족	자녀 정보	배우자정보		친정가족정보		
							나이 차	직업	부모 상태	형제 (명)	자매 (명)
영화 (가명)	30	필리핀	12	통번역사	남편, 자녀2	2녀 (11세, 7세)	17	기술직	부사망, 모생존	5	4

4. 연구절차

이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탐구과정 5단계로 제시한 Clandinin과 Connelly(2007)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장으로 들어가기, 현장에서 현장텍스트로 옮기기, 현장텍스트로 구성하기, 현장텍스트에서 연구텍스트로 바꾸기, 마지막으로 연구 텍스트 작성하기의 과정을 거쳐 기술하였다.

1) 현장으로 들어가기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만나 상담실에서 심리 상담을 진행하였다. 면접상담은 2020년 10월부터 시작하여 2021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총 6회기 면접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총 4회기 동안 인형치료 도구를 사용하였다. 3회는 동물인형을 사용하였고 1회는 사람인형을 사용하였다. 각 면접상담은 60분에서 90분 정도 이루어졌다. 면접상담의 장소는 구분된 공간인 상담실에서 일대일로 이루어졌다.

연구가 시작되면서 연구 참여자에게 어떤 이름으로 불리기를 바라는지 물어봤을 때, 자신은 트랜스포머 영화를 좋아한다면서 ‘영화’라고 불리고 싶다고 하여 함께 정하였다. 트랜스포머 영화를 너무 좋아하여 같은 영화를 여러 번 볼 정도라고 말하였다. 트랜스포머 영화는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하여 악당과 싸우다가도 다시 자동차로 모습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영화 주인공인 변신하는 로봇 자동차들이 연구 참여자인 영화가 바라는 삶과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적합한 이름을 선택하였다는 느낌이 들었다.

연구 참여자는 인형을 선택하였는데 선택한 동물인형들의 모습을 통해 원가족의 현재 자기와 바라는 자기, 원가족의 구성원들의 현재 모습과 기대하는 모습, 원가족에서의 자기와 바라는 자신의 모습을 탐색하였다. 또한 선택한 동물인형들의 배치와 구도를 통해 가족의 역동을 탐색하였다. 또한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통해 상처받고 억압받은 모습을 치유하기 위해 사람인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상담과정 속에서 간간히 연구 참여자는 속이 시원해졌고 공감 받았으며 내편이 있다는 위안을 받았다고 대답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 긴장하였고 눈물을 흘렸고 화가 났고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경험을 말할 때 그 시간과 장소, 개인과 연결된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처럼 서술했다. 연구 참여자는 과거의 이야기를 풀어 놓을 때에도 마치 현재 일어난 사건처럼 같은 감정과 마음을 털어 놓았다. 연구 참여자가 말한 과거는 연구 참여자의 바로 현재의 삶에 공존하고 있었다. 이것은 마치 과거의 사건들과 경험들이 시간과 함께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연구 참여자의 몸속 한 켠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 언제든지 꺼내서 흥미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살아 있는 어떤 존재와 같은 것이었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러한 인생의 과정 중에 함께 있는 것처럼 느꼈다. 연구자는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아주 적극적인 자세와 표현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인생을 주도해 나가는 큰 에너지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2) 현장에서 현장텍스트로 옮기기

내러티브 탐구가 관계적 속성을 갖기에 완전히 개입하여 연구 참여자와 ‘사랑에 빠져야 하지만’ 또한 한걸음 물러나 냉담한 관찰자가 되어 탐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함께 살고 있는 더 커다란 전경을 바라보아야 한다.(Clandinin & Connelly, 2007:162~163) 연구 참여자의 특정 경험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리고 개인적 사회적 측면, 즉 3차원적 측면에서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알게 해준다.(Clandinin & Connelly, 2007:175)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3차원적 측면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상담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가 말하는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연구 참여자가 되어 보기도 하고 관찰자가 되어 보기도 하며 질문을 던져보는 외부인도 되어 보았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상황과 맥락은 무엇인지 예의주시하여 듣고자 하였다. 또한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듣고자 하였다.

상담 시 호소내용으로 먼저 시작하였다. 최근에 가장 힘든 점이 어떤 것인지를 질문으로 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상담 시 사용한 질문들은 < 표 III-2 >와 같이 사티어의 경험주의 가족치료에서 빙산탐색을 위한 질문 기법을 사용하였다.(김영애, 2014:20) 빙산탐색 질문이란 개인의 심리 내면을

빙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수면 위의 보이는 부분은 인간의 행동, 감정, 생각으로 구성될 수 있고 인간의 수면 아래 부분은 인간의 무의식적인 부분으로써 쉽게 알 수 없는 인간의 기대, 욕구 및 자아를 탐색하기 위한 질문방식이다.

< 표 III-2 > 사티어의 빙산탐색 질문

탐색 질문 영역	빙산을 탐색하기 위한 주요 질문 내용
행동 탐색	● 어떤 행동을 했나요?
감정 탐색	●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1차 감정) ● 그 감정이 들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2차 감정)
사고 탐색	●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1차 사고) ● 그 생각이 들자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2차 사고)
기대 탐색	● 상대가 어떻게 하기를 원했나요? (상대) ● 나는 어떻게 했으면 했나요? (자신)
욕구 탐색	● 진정으로 원한 것이 어떠한 것이었나요?
자아(Self) 탐색	●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연구 참여자의 무의식적인 반영과 가족의 역동성을 탐색하기 위해 < 표 III-3 > 와 같이 인형치료의 탐색질문들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포함된 원가족과 현가족의 현재 모습을 닮은 동물들을 골라보고 기대하는 자신과 원가족, 현가족의 모습과 닮은 동물들을 고르도록 한 후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상담을 통해 연구 참여자가 무엇을 선택하고 그로 인해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를 환기할 수 있도록 반구조화 질문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얘기된 내용들 속에서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가족들에 대한 느낌과 생각, 기대와 바람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질문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험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지금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 나타난 연구 참여자의 가정생활 경험과 그 맥락이 어떠한지, 또한 나타난 의미가 어떠한지에 대해 탐색하였다.

< 표 III-3 > 인형치료 탐색 질문

질문 영역	가족체계를 탐색하기 위한 주요 질문 내용
현재 원가족 모습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정가족 식구들과 닮은 (동물)인형을 골라보세요 ● 어떤 점이 친정가족 식구들과 닮았나요?
기대하는 원가족 모습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하는 친정가족 식구들과 닮은 (동물)인형을 골라보세요. ● 어떤 점이 닮았나요?
현가족의 현재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가족 식구들과 닮은 (동물)인형을 골라보세요 ● 어떤 점이 현가족 식구들과 닮았나요?
기대하는 현가족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하는 현가족 식구들의 모습과 닮은 (동물)인형을 골라보세요. ● 어떤 점이 닮았나요?
시어머니와의 갈등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 시어머니, 남편과 닮은 (사람)인형을 골라보세요 ● 나와 남편, 시어머니의 모습, 거리, 위치는 어디에 있나요? ●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떤가요?
시어머니와의 화해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 시어머니, 남편과 닮은 (사람)인형을 골라보세요 ● 나와 남편, 시어머니의 모습, 거리, 위치는 어디에 있나요? ●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떤가요?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가정생활이라는 연구내용을 탐구하기 위해서 < 표 III-4 >와 같이 질문들을 사용하였다. 자아탐색과 원가족, 현가족의 경험들을 알아보기 위한 반구조화된 형태로 탐색하였다.

< 표 III-4 > 가정생활 탐색 질문

연구 주제	경험을 탐색하기 위한 주요 질문 내용
자아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즘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든가요? ● 국제결혼을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 형제들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 이루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이 있나요? ● 나에게 있어서 인생은 무엇인가요? ● 나에게 있어서 가족은 무엇인가요?
원가족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릴 때 친정엄마에 대해 어떤 것이 기억나세요? ● 친정엄마가 나를 알아본다면 어떨까요? ● 아빠는 어떤 아빠였나요? ● 형제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 친정가족들을 부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어떤 가족이 되길 바라세요?
현가족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 시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에요? ● 자녀들은 어떤가요? ● 가족들에게 바라는 게 있나요? ● 시댁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3) 현장텍스트로 구성하기

질적 연구에서 현장 텍스트는 연구 자료이다. 현장 텍스트의 구성은 해석적인 과정이며 현장 텍스트의 기록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관계를 표현한다.(Clandinin & Connelly, 2007:182~184) 그러하기에 내러티브 연구에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상호작용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중요한 텍스트가 된다. 이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이야기에 연구자의 해석과 관점이 추가 되었다. 면접상담 과정 중에 연구 참여자가 새롭게 발견하거나 재해석 되는 경험적 이야기들도 현장텍스트에 포함시켰다.

연구 참여자가 구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한 객관적 사실 속에서 연구 참여자가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경험이다.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동안 예기치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자 당황하기도 했고 과거의 아픔을 회상하며 속상해 하였다. 무엇보다도 상담 과정 중에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들을

지금-여기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고민하면서도 마침내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든 경험들을 현장텍스트로 담아내고자 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김대현, 2006)

각 상담마다 상담내용을 녹음하여 축어록을 작성하였고 상담 중에 중요한 부분이나 강조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메모로 기록해 두었으며 상담 전후에 연구 참여자를 관찰한 내용과 연구자의 생각도 기록하여 두었다. 이러한 연구기록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현장텍스트를 구성하여 정리하였다.

<연구자의 관찰노트 예시>

“기대하는 친정가족이 되면 어떨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에 ‘시원할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두 손을 안에서 밖으로 움직이며 펼쳐 보였다. 마치 안에 담겨진 무언가를 밖으로 비우려는 듯한 시도처럼 느껴졌고 그 행동을 통해 그러한 느낌을 상상하는 것처럼 보였다.”

[11월 13일자 상담 관찰 노트]

“상담 시작 전 어떻게 지냈는지 편하게 이야기 하다가 본격적인 상담의 내용으로 들어가 인형을 고르라고 주문하니 차를 마시다가도 순간 긴장하듯 일에 돌입하듯이 인형들을 살펴보았다.”

[1월 19일자 상담 관찰 노트]

“힘들다는 생각이 더 힘들게 해요.”

[기관 홍보캠페인 참여시 직접 쓴 글]

또한 면접상담 동안 선택된 인형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어 두었다. 상담 후 연구 참여자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작업(member check)을 거쳤다. 인형은 연구 참여자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돕고 스스로 내면에 있는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하는데 더 많은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도구이다. 특히 한국어가 제2외국어인 경우에는 무엇인가 보여주거나 표현할 수 있는 시각적인 도구가 필요하였다. 그림을 그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표현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인형이라는 도구는 쉽게 고르고 놓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고 심리적인 상태를 많이 엿볼 수 있었다. [그림 III-1]과 같이 상담을 진행하는 중에 연구 참여자에게 인형을 고르도록 요청하였다. 사람인형을 활용한 치유를 위해 연구 참여자는 시어머니와 자신, 그 사이에 갈등을 증재하는 남편을 고르도록 한 후 그

때의 심정을 표현하는 위치와 거리에 두도록 하였다. 그 이후에 지금-여기에서 그 때의 상황을 재현하도록 하였고 아직 남아 있는 감정들을 꺼내어 치유되도록 시연하였다. 또한 원가족과 현가족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인식과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동물 인형들로 가족 구성원들을 표현해 보도록 하였고 그 이유들을 탐색하였다.

4)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텍스트로

연구텍스트는 현장 텍스트와 달리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계속되는 질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연구자는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환경 내에서 혹은 이를 통괄하는 주제, 긴장, 내러티브 줄거리, 패턴을 찾으면서 연구 텍스트를 기술하기에 이런 의미에서 연구자는 분석용어를 가지고 현장 텍스트를 내러티브하게 코딩한다(Clandinin & Connelly, 2007).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경험을 시간적 순서로 또는 사건을 중심으로 구술한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추출된 질문에 따라 가정생활의 경험을 구술하였다. 이러한 현장 텍스트를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시간 순서와 장소에 따라 정리하여 연구텍스트로 작성하였다.

5) 연구텍스트로

녹음된 자료와 축어록을 반복적으로 듣고 읽으며 가정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선별하였다. 이 과정 중에 시간적 순차, 가족들과의 상호작용, 논리적 연관성 등 맥락을 고려하여 시간 순서별 이야기로 재구성하여 연구 텍스트를 작성하였다. 현장 텍스트로 구성된 데이터와 자료를 심리 상담학적 관점에서 내용을 분석해 보기도 하고 주제별로 묶어 비교해 보기도 하고 역할별로 묶어보기도 하였다. 분석이론에 따라 최종적으로 주제를 분류한 후 시간과 공간을 고려하여 정리하였다. 그런 다음 수차례 현장 텍스트를 듣고 읽으면서 공통적인 주제들이 있는지 확인하며 의미 있는 표현들의 내용을 분석하여 표시하였다. 이렇게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자료에서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가정생활을 이야기함으로써 나타난 최종 의미를 부여하였다.

사람인형을 활용한 치유과정 시연 전
(6차 상담 : 21.1.27일)



사람인형을 활용한 치유과정 시연 후
(6차 상담 : 21.1.27일)



원가족 탐색시 고른 동물인형과 위치
(4차 상담 : 20.12.29일)



원가족 탐색시 고른 동물인형들과 위치
(1차 상담 : 20.10.07일)



원가족 내 갈등상황
(5차 상담 : 21.1.19일)



현재의 나, 바라는 나, 기대하는 원가족
(3차 상담 : 20.11.13일)



[그림 III-1] 인형치료기법 활용시 선택한 동물인형 모음

5. 연구의 신뢰성 및 윤리적 고려

이 연구는 질적 연구의 하나인 내러티브 탐구로 현장 텍스트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와 심리치료 과정의 상호교류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이기에 해석에 대한 연구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1) 연구의 신뢰성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다원화(triangulation)을 통해서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연구자와 같은 기관에서 약 6개월 동안 근무하였기 때문에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의 교류를 통해 연구내용들을 점검하고 관찰노트를 작성하여 연구결과에 반영할 수 있었다. 면접상담 후 연구 참여자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작업(member check)을 거쳤다. 또한 연구 참여자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로부터 연구 참여자와 관련하여 평가하는 내용을 경청(peer examination)하여 연구자의 판단과 분석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관찰과 자료 해석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도교수와 수차례의 면담(audit trail)을 진행하였는데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함께 분석하여 검증하며 정리하였다.

연구자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필요한 준비 과정을 밟아왔다. 연구과정 중에 대학원 교과목인 질적 연구방법론을 이수한 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특강, 질적 연구방법 과목을 다시 한 번 수강하여 필요한 내용을 숙지하였고 대학원 과정에 다문화 상담 과목을 이수하면서 다문화 상담자의 역량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연구자의 역량에 따라 연구 참여자의 내러티브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영향을 끼치기에 전현영(2012)은 다문화 상담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질적 연구에 있어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3년 정도 개인과 가족 상담을 해온 경험이 있으며 현재 이주여성을 상담하는 기관에서 일하면서 꾸준히 다문화 상담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상담자가 가진 세계관이 어떠한지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 없

는지 꾸준히 자기검열을 통해 내담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자 노력해 왔다.

2)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의향을 묻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박향경(2012)은 내러티브 탐구가 한 개인의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다루기에 연구 참여자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기에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연구자의 연구 목적을 포함한 계획에 대한 내용과 상담일정을 설명하고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그만둘 수 있다는 권리를 안내하였다. 또한 면접상담은 모두 녹음된다는 것과 연구 내용은 안전하게 관리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서면으로 된 연구동의서를 보여주면서 연구의 의도와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여부를 물어 서명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 참여자의 삶의 이야기

본 장은 연구 참여자, 영화가 구술한 이야기를 시간과 장소의 맥락에 따라 정리한 이야기이다. 연구 참여자는 결혼이주 전 친정가족인 원가족에서의 경험과 원가족에서 독립한 이야기,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된 상황에 대해 구술하였으며, 결혼 후에 경험한 결혼생활과 시어머니와의 갈등 등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 현재의 가족경험 순으로 정리하였다. 즉, 결혼 전, 결혼 직후, 현재 가정생활 틀에서 기술하였다.

1) 결혼이주 전 원가족 상황

(1) 원가족에서의 내 경험

연구 참여자인 영화(가명)는 형제 열 명 중 셋째라고 소개하면서 언니와 오빠 다음으로 태어났고 1년 후에 여동생이 태어났다. 5남 5녀의 2녀이다. 학력도 형제들 중 혼자만 제일 낮다고 말한다.

영화 : 형제 10명인데 저는 세 번째예요. (중략) 학교도 제가 제일 낮은 학력으로 나오고...

영화의 친정엄마는 치매증상을 앓고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심해진 거 같다. 영화는 엄마에 대한 따뜻한 돌봄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캥거루가 아기를 품듯이 엄마가 자신을 보호해 주지 못해 서운해 했다. 친정엄마는 캥거루처럼 막내 동생을 챙기곤 했다.

영화 : 그래서 엄마가 저만 기억을 못하니까. 저는 우리 엄마한테 그런 애정을 못받았으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기억을 해요..(중략) 그니까 캥거루는 자기 자식을 항상 보호하려고 자기 옆에 있어 붙려고, 애정,

여기서 이렇게 배주머니에 보호하겠다는 거잖아요?

상담사 : (중략) 내가 원하는 모습은 막내동생을 챙기는 캥거루 같은 엄마의 모습을 바랬는데 그런 거를 받지 못하셨네요.

영화 : 네. 그런 거는 못받았어요.

친정아빠는 강한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약하다. 영화가 친정아빠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자녀들과 동등하게 대해 주는 것이었지만 친정아빠가 남자 형제들만 챙겼기에 화가 났다.

영화 : 그니까 그 모습이 강한테 속 마음이 좀 약해요. 사자, 강한 모습 (중략) 그러면서도 남자들한테만 잘 챙겨줘요. 우리 (친정)아빠가...

상담사 : 남자형제처럼 나를 동등하게 대했다면 내 삶은 어떻게 바뀔 거 같아요?

영화 : (생각 중) 그 화내는 마음 크면서도 없었을 거 같아요. (중략) 미안하다 똑같이 해주지 못해서 (홀쩍)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친정아빠는 현재 가족뿐 아니라 원가족을 위해서도 희생하고 헌신하였지만 그로 인해 너무 많은 짐을 지며 힘들게 살았다. 영화는 이런 친정아빠의 삶을 닮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영화 : (친정아빠는) 자기 힘들어도 옆에 있는 가족을 잘살기만 하면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이제 친정아빠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서 친정아빠처럼 나는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겠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영화에 비해 오빠나 동생들은 친정아빠에게 기대를 많이 했다. 영화는 다른 형제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곤 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고 그러한 형제들을 다 도와주는 친정아빠의 모습에도 화가 난다.

영화 : 밑에 동생들의 성격을 보면 아빠 밑에서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자랐었거든요. 내가 20살 넘게 되도 아빠 밑에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되지 않을까 (중략) 아빠가 그걸 다 도와주고.

상담사 : 그런 모습 보게 되면 우리 영화씨는 마음이 어때요?

영화 : 화나요.

(2) 만16세에 혈혈단신 독립하다

영화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혼자 독립했다. 결혼 전까지 2년 동안 친정 아빠에게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혼자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전전긍긍했고 밑바닥 인생까지 살아봤다. 그렇다고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 혼자 어려움을 삼켜야 했다. 부모님의 돌봄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자신은 성숙할 수 있었고 바른 길로 오게 되었다. 영화는 결국 힘들었던 경험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영화 : 이런 나이로 혼자 독립적으로 살았었고 그래서 저는 가족에 대한 관심을 아예 바라보지 않았어요.(중략) 왜냐면 저는 16살때부터 집에서 떠나가지고 혼자 살았기 때문에(중략) 2년동안 혼자 살았을 때(짜증 섞인 목소리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어요.(중략) 우리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아빠도 힘드니까. (중략) 나는 그냥 마트에서 일도 해 봤고 시장에서도 일을 해 봤어요. 가사도 우미도 해 봤었고. 남 밑에 밑바닥인 삶을 해가지고 (중략) 공장에 가도 괜찮아요. 아무 일이라도 괜찮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중략) 다른 사람 같았으면 옆에서 잘 이끌어주는 부모님이...(중략) (저는) 그 힘든 시절, 아마 힘든 시절 때문에 성숙되고 바른 길로 오게 됐고, 도움, 큰 도움이라고 생각이 돼요.

필리핀에서 혼자 독립하여 살 때에도 영화는 형제들과 교류하지 않았지만 아빠와는 연락하며 살았다. 치매를 앓고 있는 엄마는 영화를 기억하지 못했고 오빠와도 자꾸 싸우게 되었다.

영화 : 치매처럼, 우리 엄마도 저만 기억이 안나요. 우리 10명 형제 중에.(중략) (동생들과는) 연락 안했어요. 그냥 아빠만,(웃음) 기억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아빠랑 오빠랑 기억이 많이 나요. 자꾸 부딪혔으니까. (중략)

영화는 친정아빠에 대해 양가감정을 느꼈다. 삶의 큰 짐을 지고 살아가는 친정아빠가 불쌍하면서도 화가 나기도 한다. 필리핀에서 혼자 독립하여 일을 할 때에

도 월급의 반을 가족들의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친정아빠에게 보내주었다. 친정아빠가 원가족의 형제들을 보살피 준 것처럼 영화도 그렇게 아빠의 짐을 덜어 주기도 하고 형제들에게 생활비 보탬을 위해 열심히 생활하였다.

상담자 : 아빠를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영화 : 붙잡히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요.(중략) 마트에서 일을 했을 때도 (중략) 제 월급에서 한 반 정도는 보내줬어요. 생활비 보탬으로 해가지고.(중략) 공무원 된 사람이 우리 아빠밖에 없었고.(중략) 아빠도 나처럼 이렇게 동생, 형제를 보살피 줬어요.(중략) 제가 계속 생활비를 보탬어요. 아빠의 무게 좀 덜어 낼려고.

영화는 친정아빠가 대학교에 입학하라고 말했을 때 정말 기뻐했다. 하지만 친정아빠는 오빠를 결혼시켜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영화에게 대학을 포기하라는 말을 하였다. 영화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실망감이 크다 못해 친정아빠를 원망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린 나이에 결혼을 선택한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 친정아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속마음을 말한다.

상담자 : (중략) 아빠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직접 얘기해 봐요.

영화 : (중략) 어린 마음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어려우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한 거지 (중략) 아빠가 처음에 대학에 입학하라고 했을 때, 내가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근데 오빠 결혼시켜 줘야 한다고 대학 포기하라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원망했는지 알아?

(3) 탈출구, 한국 남자와의 결혼

영화는 국제결혼을 하게 된 동기가 친정아빠에게 기댈 수 없는 형편과 너무 힘든 삶을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영화는 이미 한국 남자와 결혼한 언니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한다. 영화에게 현재 남편은 힘든 삶의 탈출구였다.

영화 : 아빠가 있긴 하지만 그니까 형제들이 많았으니까. 기대할 수가 없어

요. 그때는 언니가 결혼 했을 때는 글썄요. 그것보다는 제가 (중략) 혼자 살아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생각. 우리 남편을 보면서 힘든 생활을 벗어나고 싶은...

영화는 현재 남편을 결혼업체를 통해 만났다. 남편이 영화를 마음에 들어 먼저 선택했고 따로 둘만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때 남편은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었고 의사소통을 위해서 한영사전을 들고 만났는데 착하다는 첫인상을 주었다. 영화는 결혼업체가 알려준 남편에 대한 정보가 받은 맞았지만 받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화는 이를 남편의 설명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남편이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으며 자세히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에게 오히려 신뢰가 생겼다. 그 모습을 보니 이 남자와 결혼을 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담자 : 필리핀에서 남편과 만났을 때 어떤 부분 때문에 선택했던 거 같아요?

영화 : 저하고 남편이 결혼업체를 통해 만났어요. 그때는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저를 선택했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편이 영어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때 처음에는 한영사전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착하다라는 마음이 와 닿았어요. (중략) 우리 남편은 그 자리에서 결혼업체에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고 이제 밝혔을 때는 남편은 사실이 아니라고 여자가 알면 여자가 거부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그걸 무시하고 진실을, 진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중략)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믿음이 간다 결혼을 해도 걱정을 안해도 된다는 생각...

남편은 서류로 결혼절차를 마친 다음 지방에 있는 영화의 친정 부모님을 만나러 가자고 하였다. 결혼정보업체에 주는 비용과는 별도로 남편이 기꺼이 친정 부모님을 만나고자 하는 모습에 영화는 남편이 마음에 들었고 부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편을 느낄 수 있었다.

영화 : 그때는 제가 마음에 들어 했던 거는 부모에 대한 거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같아요. 우리가 이날 만나가지고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서류, 결혼신고를 한 다음에 바로 우리 지방에, 집으로 비행기 타고 갔

었어요. 그거는 우리 남편이 결혼 업체에서 계획이 제외였어요. 근데 남편이 그거를 결혼하려면 일단 부모님과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남편과 함께 친정집을 방문하였는데 영화는 오랜만에 집밥을 먹게 되어서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런 영화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도 영화를 따라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 영화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남편이 자신을 존중해 준다고 느꼈고 남편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

영화 : 필리핀에서 (중략) 음식 맛있게 먹으려고 하면은 손으로 먹는 거예요. 남편도 제가 손으로 먹는 거를 따라서 하드라구요.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왜 그렇게 하나 하지 않고, 따라해 주니까 ‘남편이 나를 존중해 주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는 친정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결혼신고를 해버린 후에 친정아빠에게 연락을 하였다. 영화는 과감하게 결혼을 혼자 결정하고 친정 가족을 만나러 간다고 통보했다. 친정아빠는 그런 딸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교사로서 주변의 평판도 신경이 쓰였다. 그러나 영화는 자신의 결혼에 대해 당당했다. 남편이 영어로 가족들과 대화하고 잘 어울리는 것을 보고 친정아빠도 안심하게 되었다.

영화 : 내가 결혼하겠다고 하는 결정, 우리 아빠도 몰랐어요. 동의 없이 결혼해 버렸어요. 결혼하고 나서 비행기 타기 전에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나 남편하고 간다고. 아빠 그때 충격 받았어요. 말도 안하고. 왜냐하면 아빠가 선생님이잖아요. 너무 창피하다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중략) 그런데 어찌됐어요 결혼은 이미 했고.(중략) 저는 그냥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중략) 남편이 영어도 되니까 대화도 된 거예요. 남편도 잘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아빠) 마음이 나아진 거 같아요.

2) 결혼 직후 가정생활

(1) 시어머니와의 문화 충돌과 화해

결혼 후 시어머니와 같이 살게 된 영화는 시어머니와 큰 갈등을 겪게 된다. 시어머니는 영화를 ‘니’ 라고 불렀고 집안일을 여자가 다 혼자 해야 되고, 집안일

을 하는 여자는 집에서 놀기만 한다는 말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주었다.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화가 나고 억울하지만 언어가 안통해서 말을 못하곤 했다.

영화 : 그냥 니라고 불렀어요. 니 집안일 때문에 그렇게 힘들면 너 어떻게 살려고? 옛날 우리가 임신을 하고 애기를 낳아도 애기 낳자마자 그냥 맡일 했었는데.(중략) 집안일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니 오빠는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 오는데 남편 집안일을 해야 돼? 니는 집에서 놀기만 하고 남편이 버는 돈을 다 쓰면서 집안일도 못해?

상담자 : 그때 영화님은 어떻게 대답했어요?

영화 : (그때는) 그냥 조용히 방으로 나가요.

영화는 시어머니가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젊은 부부의 생활양식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정작 시어머니와 영화는 쳐다보지도 않고 서로 감정도 좋지 않아 심리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영화는 시어머니가 젊은 부부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시어머니를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다.

영화 : 어머니가 내가 원했던 것을 반박하지 않고 조금 같은 여자로서 같은 마음을 좀 통했으면 좋겠어요. (중략) 제 남편에 대한 원했던 것을 어머니가 반대를 했으니까.(시어머니와 나와의 관계 거리는) 멀리 있었어요. 이야기할 때도 그냥 어머니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안좋은 감정이 있었으니까.(중략) 어머니의 성격은 젊은 부부의, 집에서 일을 분배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영화는 한국에 오자마자 다양한 차이에 어려움을 겪었다. 첫 번째는 한국과 필리핀의 날씨 차이였고 두 번째는 언어차이였고, 세 번째는 젊은 시대의 문화와 어르신 세대의 사고방식의 차이였고 네 번째는 한국의 문화와 필리핀 문화의 차이였다. 영화는 그때 갓 20세가 되었을 때였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힘들었던 것은 한국의 문화와 어머니의 옛날 방식이었다. 시어머니는 영화에게 한국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역할을 가르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영화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싫어하고 못되게 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났다.

영화 : 처음에 1년 정도는 너무 힘들었어요. 한국말도 안되고 날씨. 언어, 날씨.(중략) 한국 문화라는게 있잖아요. 그때 어머니는 대개 옛날 분이잖아요. 저는 뉴 제너레이션(new generation). (중략) 진짜 달라요. 한국 문화라는 거 저한테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제게 엄격하고 못되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나한테 싫어서 그렇게 한게 아니고 좋은 엄마, 좋은 며느리로 사는 것을 가르친 거 같은데. (어머니는) 경상도 분이예요. (아버님과) 어머니는 옛날 살았던 시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중략) (그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났었어요.

영화는 한국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직접 시어머니에게 말하곤 했다. 영화는 시어머니가 그런 영화의 모습에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자신도 상처를 받았다고 말한다. 지금 되돌아보면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다. 남편도 영화가 시어머니에게 못되게 대해서 시어머니가 달라졌다고 한다. 시어머니와 영화는 갈등이 골이 깊어져 갔다.

영화 : 어머니가 상처를 받고 저도 상처를 받고, 제가 직접적으로 어머니한테 얘기했었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힘들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남편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무 못되게 하니까 어머니가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됐다고.

영화는 한국어 방문 선생님을 통해, 동료 결혼이주여성들과의 만남을 통해, 또한 스스로 해보는 경험을 통해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되고 시어머니의 얘기를 조금씩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게 된다.

상담사 : 어떻게 해서 바뀐 거 같아요?

영화 : 살다보니 집안일 보다는 너무 힘든게 많은 거예요. 집안일 못하면 밖에서 어떻게 적응할까. 집안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중략) 한국어 방문선생님이 6개월동안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한국에서 이런 문화도 이런 것도 있구나. 친구들과 조금씩 조금씩 만나기도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만났던 친구들은 시어머니랑 살진 않았었고, 근데 남편이 그런 모습이 우리 어머니하고 조금 비슷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남편들이 나이가 좀 있다 보

니까.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영화는 둘째 임신 중에 시어머니와 크게 싸우고 나서 분가를 했다. 아기가 조산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기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시어머니를 평생 원망하고 얼굴 안보겠다는 극단적인 마음까지 가지게 되었다. 시어머니와 동거하고 얼마 되지 않아 첫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8개월쯤에 아이를 유산했던 경험을 영화는 이미 가지고 있었기에 의사로부터의 이러한 이야기로 화들짝 놀랐고 그 때의 아픈 기억이 생각나 더욱 화가 났을 것이다. 그리하여 영화는 남편과 분가를 하게 된다.

영화 : 그때는 둘째 임신 중이었어요. (중략) 어머니, 이거는 어머니한테 받아들여라 하고 강하게 싸워 가지고. 분가를 했었어요. (둘째) 애기가 개월 수가 부족해서 인큐베이터 들어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머니 대개 원망 했었어요. 예전에 애기한테 일이라도 생기면 어머니 평생 원망할거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죽을 때까지 얼굴 안보겠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시어머니와의 화해는 둘째 아이의 출생과 함께 드라마틱하게 주어졌다. 영화는 시어머니에게 아이의 탄생을 알리지 말라고 남편에게 말하였으나 가족들을 통해 알게 된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찾아와 영화를 안아주고 고생했다고 말해 주니 한순간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미움의 감정이 녹아들었고 오히려 자신을 며느리가 아닌 자식으로 받아들인다는 이해와 함께 미안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다.

영화 : 그때 남편이 얘기하니까 형님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병원에 찾아 왔어요. 그때 나를 안아주고 고생했다고 툭툭 얘기했어요. 며느리는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지만 평생 안보겠다고 했는데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찾아와 가지고 고생했다고. 어머니가 나를 남의 자식 아니다. 대개 미안하드라고요.

(2) 부부, 서로 영향을 받다.

영화는 자신이 이렇게까지 크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도움 때문이었

다고 말한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아내를 키워주기 위한 계획을 세웠었다. 남편의 도움으로 영화는 능력을 키우고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영화는 자신을 챙겨주는 남편이 정말 좋았다고 말한다.

영화 : 우리 남편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크지도 않고 이렇게 발전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때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에 대한 계획을 했었어요. 필리핀 사람하고 결혼해서 (중략) 적극적으로 받혀주겠다.(중략) 책도 여러개 사줬어요. 테솔 수업을 받으려고 온라인 수업, 남편이 알아봤었어요. 남편이 저를 챙겨주는게 정말 좋았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영화 편에 서주었고 어머니와 중재해 주는 역할도 해주었다. 영화는 그런 남편이 안타까웠다. 그러면서 힘들었을 남편의 입장을 이해했다. 그래서 영화는 남편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전달해주지 않은 이유도 납득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런 남편을 이해하면서 한국어를 할 수 있게 된 영화는 직접 시어머니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영화 : (남편이) 어머니를 설득해 주는 역할.(중략) 화가 나면 제가 남편한테 뭐라고 하고. 남편을 보면 안타까웠어요. 남편은 중간에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전달자 역할을 하지 않아도 제가 한국말을 조금씩 조금씩 하니까 직접적으로 어머니한테 얘기했었어요.

영화는 남편을 친구와 같이 자신을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격려해준다고 말한다. 다른 다문화가정의 가부장적인 남편의 모습과는 달리 영화가 무엇을 하든 믿고 지지해 준다고 말한다.

영화 : 친구같은 남편, 다른 다문화 가정을 비교를 하면, 내 남편은 제가 뭘 하면 간섭하지 않아요. 네가 좋다고 하면 그냥 알아서 해. 해볼 수 있으면 해 봐.

영화의 남편은 나이가 들어 하던 일을 바꾸게 되었을 때 용기를 잃었던 적이 있었다. 영화는 그런 남편을 위해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하

었다. 그때 영화는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일을 그만두고 대대적으로 공부를 하라며 투자하고 지원해 주었다. 남편은 자꾸 사기가 떨어지고 포기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지해주는 영화로 인해 끝까지 도전할 수 있었다. 남편은 결국 자격증을 취득하여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영화는 여러 가지 걱정이 되었지만 끝까지 남편을 믿고 지지해 주었다.

영화 : 남편이 이전에 실기시험에서 한번 떨어졌는데 두번째는 제가 신청을 해줬어요. 처음에 떨어졌으니까 자기도 자신감이 다운됐어요. 근데 제가 자꾸 격려했어요. 당신 혼자 공부하는 거는 모자르니까, 기술학원도 다녀.(중략) 그때 일년 넘게 투자할 만큼 다 투자하자. 나도 고민을 했었어요.(중략) 그때도 가기 전에도 그날에 제가 일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전화 왔었어요. 남편이(중략) 과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고민. 당신 비행기표 끊었는데 왜 안가.(중략) 합격 결과가 나온 거예요. (남편이) 영화가 아니었으면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었고.(중략) 저는 항상 남편을 믿었어요. 모든 거 포기하면 안되잖아요.

영화는 남편과 밑바닥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부부는 악착같이 일했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영화는 물건을 거의 사지도 않고 절약하며 열심히 그렇게 10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남편은 경제권을 영화에게 다 맡겼다. 남편은 자기 일에 충실했고 영화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애들 관리, 학교일도 다 도맡았다. 이렇게 10년 동안 혼자 다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힘들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모든 일을 도맡아서 살아보니 오히려 한국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었고 책임감도 생기고 경제관념도 생기게 되었다고 말한다. 영화는 예전에 노력하고 고생했던 삶을 통해서 지금의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한다.

영화 : (생략) 우리가 옛날에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악착같이 살았어요 진짜. 뭐 우선 옷 같은 것, 새로운 거 입어본 적도 없고 그냥 한 벌옷 있잖아요, 그런 것만 입었고.(중략) 우리 1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우리 생활이 많이 바뀌었어요. 편해졌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생활해 가지고. (남편이) 경제적인 부분을 믿는 거 같고. 10년 넘게 잘 맡겼으니까 (중략) 남편은 자기 일만 집중을 해요.

몇 년동안 10년 동안 넘게 애들 관리도 학교도 제가 다 해요. 제가 10년 동안 다했으니 힘든 거예요. 힘든데 그런데 제가 이걸 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 같아요. 한국 사회가 어떻게 사는지.(중략) 남편이 버는 돈은 저한테 다 맡기고 그냥 저도 나한테 맡기니까 책임을 지고 돈을 모이द्र라구요. 그리고 돈 쓰는 것도 아끼게 쓰고...

(3) 원가족과의 갈등

친정아빠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한국에 시집을 온 언니에게가 아닌 영화에게만 도움을 요청하였고 영화는 계속 친정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냈다. 그런데 영화가 친정에 보낸 생활비가 친정아빠를 통해 오빠에게 들어간 것을 알고 너무 화가 났다. 영화는 동생들을 위해 생활비를 쓰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미 결혼한 오빠를 위해 동생인 자신이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런데 친정아빠는 어차피 가족에게 들어간 돈인데 따지지 말라며 일축했다.

영화 : 그래서 아빠가(중략) 나한테만 그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밑에 형제들 하고 오빠가족이 어려우니까. 아빠도 나름대로 어려웠었고. 그래서 제가 계속 생활비를 보냈어요. 근데 제가 아빠한테 생활비를 이제 보내주면 제가 보내준 그 생활비 받은 오빠한테 들어간 거예요. 내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중략) 친정아빠한테 제가 따지는 소리밖에 안되니까 가족한테 따지지 말라고 어차피 가족한테 들어간 돈인데.

영화는 자신이 힘들게 혼자 견디며 살아왔던 것같이 친정아빠가 오빠에게도 힘들어도 이겨내라는 말을 해주기를 바랐다. 친정아빠에게 원한 것은 형제들을 동등하게 대해주는 것뿐이었다. 오히려 친정아빠가 영화의 바람을 들어주기 보다는 영화에게 화를 내며 가족관계를 끊겠다고 말했다. 영화는 친정아빠에게 자신이 어떤 자식인지 자괴감이 들어 마음이 아팠다.

영화 : 그런데 오빠는 이미 가족이 생긴 거예요. 그냥 똑같이 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제 중에 생활이 나아져도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지 말고, 너 힘들어도 네가 이겨내야 된다는.(중략) 그래서 친정아빠가 나한테 (중략) 이제부터 내 자식이라는 걸 기대하지 말라는, (울먹거림) 그런 말도 했었어요.

상담사 :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어요?

영화 : 아프죠.(중략) (나는) 어떤 자식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영화는 어렵게 고생하면서 돈을 벌고 가족을 돕는 이유는 아빠와 동생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오빠로 인해 대학교를 포기해야 했던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고 가족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오빠를 오히려 아빠가 도와주는 것이 영화는 못마땅했다.

영화 : 내가 이렇게 돈을 어렵게 벌었는데 아빠한테 동생들한테 주는데 왜 오빠한테 갖다 주느냐.(홀쩍) 오빠 땀에 난 학교도 못갔는데, 오빠가 우리 가족한테 뭐 도와주는 것도 없는데(홀쩍 홀쩍)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영화는 오빠와 자주 싸웠다. 싸운 이유는 돈 때문이었는데 친정아빠가 그 사이에 끼여 있었다. 오빠는 영화를 협박하면서도 정작 도움이 필요하면 영화에게 손을 벌렸다. 오빠와의 갈등은 울케에게까지 번졌었다.

영화 : 그전에는 자꾸 막 협박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었어요. 내가 자꾸 돈 때문에 자꾸 따지니까, 시언니까지 문자 메시지 문자에서 안 좋은 내용까지 주고 받고 했었고.(중략) (홀쩍거림)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나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면서도 왜 내가 자기네한테 이렇게 나쁜 말하고 이런 협박이라든가.

3) 현재의 가정생활

(1) 친정 식구들의 어려움

영화는 형제들 중에 생활이 가장 나은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친정 식구들이 어려울 때마다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에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안도와줄 수가 없다고 말한다.

영화 : (중략) 우리 형제 중에 제일 생활이 나아진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중략) 솔직한 말,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형제들은 나한테 막 뭘 필요할 때마다 누나 언니 이렇게. 힘들어 가지고 우리 좀 도

와 달라. 한번 두 번 정도는 해줄 수는 있는데 저도 가족이 있고.
(중략) 나한테 그런 도움을 문자로 요청이 오니까 안 도와 줄 수가
없어요.

영화는 자신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현재 나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
해 아무것도 안하는 동생들을 보니 더 힘들다. 이전부터 계속 도와줬지만 친정가
족들의 상황이 전과 비슷하고 계속 힘든 생활을 하게 될 것 같다고 우려를 표한
다.

영화 : 내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생각 중) 굶을 거 같다는 느낌이 있
어요.(중략) 왜냐면 지금도 (중략) 지금 몇 년 됐어요. 제가 여기서
한국있는 13년? 올해가 12년 인가, 그 모습이 똑같아서.

영화는 일이 힘들면 쉽게 그만두는 동생들의 ‘놈팽이’ 같은 모습과 자신도
미래를 위해 더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친정 식구들을 돕는데 주저하게
된다. 영화는 동생들을 위해서 재산을 활용하는데 지원을 했는데도 별다른 효과
없이 끝났다. 영화는 동생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 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스트레
스를 받는다.

영화 :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니깐 그래서 그나마 생활이 좀
나아졌는데 만약에 저도 이제 동생들처럼 이렇게 일이 없다 아무것도
안하는 모습을 보이면 저도 힘들어요.(중략) 문제는, 저도 답답한게
일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그만뒀어요.(중략)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
청 많이 받았어요. 그니까 저도(중략) 미래를 생각해서 저도 조금씩
조금씩 돈을 모아놓으면 나중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게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동생들 좀 안좋은 말을 하긴 하지만, 좀
놈팽이에요 솔직히.(중략) 왜냐면 우리도 땅도 있는데 재산은 놀려
있어요.(중략) 그걸 제가 돈을 보내 가지고 그것을 사람을 이용해서
같이 해가지고 좀 해보라. (중략)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돈을
보태주고 다 해주는데도 다 게을러졌어요.

영화는 필리핀에 있을 때 언니와 함께 희망을 가졌었다. 그러던 언니의 모습은
더 이상 간데없다. 한국의 타지역에 결혼하여 이주하여 살고 있는 언니는 영화에

게 더 이상 가족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 돈이 필요할 때마다 연락하며 돈을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를 낸다. 언니는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지 못하고 겁을 내고 숨어버리는 달팽이처럼 살고 있다. 이런 언니와 영화는 관계가 좋지 않다. 영화는 언니가 열심히 했다고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 영화는 언니가 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망정 오히려 동생들에게 돈을 받아내려는 모습이 못마땅하다.

영화 : 필리핀에 있을 때는, 언니랑 같이 있을 때는(중략) 수도 마닐라 수도에 가서 좋은 일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중략) 돈 때문에, 최근에는 언니가 어쩌냐 이러지도 않고. 뭘 필요할 때마다 연락이 와요.(중략) 달팽이는 움직였다가 자기 몸을 겁나게 되면 자기 먼저잖아요. 항상 붙어 있어요. (중략) 근데 언니가 나보다 더 위인데 어떻게 동생들의 돈을 뜯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중략) 본인이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공급해요. 그 열심히 했다는 말이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중략) 아직도 힘든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바로 밑 여동생은 한국 남성과 결혼을 했다. 그런데 영화는 제부를 볼 때 일반 한국 사람과 달리 열심히 살지 않고 자신의 말에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화가 난다. 현재 여동생이 식당 일을 하면서 생활비뿐 아니라 제부가 진 빚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 영화는 동생이 너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영화 : 지금 우리 동생이 식당 일을 하고 있어요. 월 26일 동안 9시부터 5시까지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월급으로 해 가지고 자기 생활비를 보태주고 제부의 얻었던 빚도 갚아줘야 되고 (중략) 우리 동생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지금 몸도 너무 말라가지고.(중략) 우리 동생 진짜 불쌍해요.(중략) 한국인은 열심히 일하잖아요? 가족을 위해서.(중략) 그런데 제부는 반대적 모습이 보여 가지고.

친정아빠가 2년 전 돌아가셨는데 영화는 요즘 친정아빠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발견하게 된다. 영화는 친정아빠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 후회를 했다. 친정아빠가 생일 아침에 꼬박꼬박 전화를 했던 모습, 자신이 친정아빠 생신을 위해 준

비하도록 한 일 등 이런 모습들이 떠올라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못한 것이 생각난다. 영화는 말보다 돈으로 친정아빠를 챙길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친정 아빠도 영화에게 말로 표현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생일이 되면 항상 전화를 하여 마음을 표현했다.

상담자 : 옛날에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바뀐 생각이 있나요? 아버지의 존재라고 할까?

영화 : (눈물을 흘리며)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는 오늘 특히 제 생일인데 전화가 와요 먼저. (중략)

상담자 : 오늘, 더 생각이 많이 났겠네요. 제가 느낄 때는 영화씨가 아빠를 많이 닮기도 하고 존경하고 사랑이 깊은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어때요?

영화 : 선생님 얘기하는게 맞는 거 같아요. 아빠도 저나 말로 표현하지는 않은데 챙겨주는 행동을 많이 해요. 말로는 조금 어색하니까. 처음에 아빠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아빠한테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해서 후회한다고 했잖아요.(중략) 아빠 생신 때, 다 돈으로 표현했어요. 몸으로 신경쓸 수 없으니까.

친정아빠는 잘 모르는 한국남자와 덜컥 결혼을 하고 잘 모르는 나라, 한국으로 시집가는 자신의 딸, 영화를 걱정했는지라도 결과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힘들어 하는 것을 영화는 기꺼이 도와주고자 하였다. 친정아빠가 영화라는 자녀로 인해 자신의 짐을 믿고 맡길 수 있어 걱정이 가셨을 것이다.

영화 : 아빠가 걱정 기대했던 거 보다는 오히려 아빠한테 도움을 많이 준 거 예요.(중략)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가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아빠 힘들면 이야기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적어도 경제적으로 도와주니까 아빠도 든든한 느낌이 드는 거 같아요.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나라의 자식이 있으니까 가도 이제 괜찮다는 아마 아빠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 같아요.

친정아빠의 사망 후 각 자녀들은 유족 연금을 일시불로 받게 되었다. 결혼 안한 동생들과 언니, 여동생이 회의를 하여 영화가 이 돈을 관리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래서 영화는 지난 번 지진으로 망가진 친정집을 공사하도록 지시하고 돈도

보태주고 있다. 이에 더 앞서 영화는 친정엄마와 동생들을 위해 월 10만원씩 적금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영화 : 얼마 전에 우리 (친정)아버지의 그 연금을 받았었거든요. 우리 엄마하고 동생 밑에, 결혼 안한 동생들이 받은 연금을 저한테 보내 가지고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제가 적금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제거를 지난번에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공사하는 것을 돈으로 보태주고. 그리고 여기 있는 두 명의 동생들도 같이 해가지고 우리한테, 받은 연금을 집에서 공사하는 것을 언니도 그렇게 하기로 처음에 결정했어요.(중략) 저는 지금 우리 엄마하고 동생을 위해서 매달 10만원씩 적금하고 있었거든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워보니 친정아빠와 친정엄마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 친정아빠는 아픈 친정엄마를 대신해서 혼자 자녀들을 부양해야 했다. 친정아빠는 엄마와의 관계에서 부부관계보다는 아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 영화는 그런 친정아빠의 모습을 보며 안타깝다고 느낀다.

상담자 : (중략) 지금 결혼생활을 해보니까 부모님의 부부 관계에 대해 어떻게 느껴요?

영화 : 부부관계? 일단은 부담. 왜냐면 우리 엄마가 아프시니까 그 모든 부담은 우리 아빠가 안고 살았어요.(중략) 경제적인 부담. 애들을 지켜주는 부담, 그 무게 아빠가 혼자서.(중략) 아빠가 오히려 혼자서 챙겨줬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의 그 관계는 부부관계 보다는 아빠가 엄마를 돌봐줬었다는(중략)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는 느낌.

영화는 친정가족들로부터 힘들다는 문자를 받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나아진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어려운 가족의 모습에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힘들어하는 가족의 모습 속에 자신의 과거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한다.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에 영화 자신이 너무 힘들었던 삶이 자꾸 떠오른다고 한다.

영화 : 왜냐면 힘들다는 문자가 오면 잠이 안와요.(중략)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살고 있는데 우리 동생들은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 때문에.(중략) 그때는 제가 혼자 살았을 때 (짜증 섞인 모습)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어요.(중략) 남 밑에 저 밑바닥인 삶을 해가

지고 그래서 도움 요청했을 때는 너무 이제 내 옛날에 그 경험했던
진짜 너무 자꾸 떠올라서.

(2) 친정 식구들에게 기대하는 바

영화는 친정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면서도 힘들어 하는 이유는 친정 가족들이 열심히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한다. 신경 쓰면 쓸수록 힘들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영화 : 지금은 그냥 아예 제가 신경을 안써요. 일부러 신경을 안쓸려고 내가 힘들니까.

영화는 오빠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최근 아빠가 돌아가신 후 사이가 좀 나아졌다고 말한다. 오빠가 최근에 좀 더 자립적으로 변해 가는 모습이 긍정적이다. 그만큼 영화는 짐을 덜고 있다. 오빠는 성실히 맡은 일을 잘하고 있다.

영화 : 지금 (친정)아빠가 돌아가시니까 지금 2년쯤 관계가 좀 좋아졌는데 (중략) 오빠는 이제 그때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자기가 마닐라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열심히 일을 했어요 1년 동안.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방에 돌아가야 되고.(중략) 우리 집에 공사하고 있는 집에 제가 돈을 보태주고 있어요. 오빠가 거기서 그냥 일당을 받고 있어요.

친정아빠가 돌아가신 후 동생들은 영화를 의지하고 있다. 친정동생들도 도움을 받을 아빠가 없어서 영화에게 물어본다. 친정아빠도 돌아가시기 전에 영화 누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가족들에게 알렸다.

영화 : 그니까 지금은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저한테 물어봐요.(중략)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동생들한테도 힘들 때는 그 누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라고.

영화는 도와주고 있는 친정 동생들 중에 한사람이라도 성공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 성공이란 자신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는 것과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다. 현재 어려운 동생들을 도와주면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제는 친정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로서 자동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한다.

영화 : 진짜 우리 10명 형제 중에 한사람이라도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중략) (성공은) 자기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중략) 그냥 한달에 나오는 생활비처럼 필리핀 얼마 보내줘야 되고 자동적으로 계획이 되는 거예요.(중략) 그니까 동생들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도와주면 나중에 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3) 시어머니와 남편의 지지

남편은 영화가 대학교를 입학하고 직장일이 계약 종료가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옆에서 좋은 말로 격려하고 영화의 능력을 인정해주며 지지해 주고 있다. 영화가 어떤 것을 할 때 두려워하는 모습을 남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격려를 해준다.

영화 : 지금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제가 힘들다고 얘기 했을 때만 좋은 말, 좋은 조언을 해 줘요. 어제 저는 (일이) 이번 달까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영화만큼은, 결혼이주여성들 중에 능력있는 사람이 열명이나 될까.(중략) (제가) 항상 두려워하니까.(중략) 격려를 해 주는 거는 자연스럽게 남편이 해주는 거 같아요...

그러한 남편을 보는 영화는 누구보다도 남편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준다. 영화는 남편이 착하며 시원시원한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좀 느리고 답답하지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며 좋은 결과를 낸다고 칭찬한다. 그러면서도 자신과 다른 남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려고 한다.

상담자 : 지금 가족 중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영화 : 우리 남편이에요.(중략) 착하고 시원시원한 사람이에요.(중략) 그냥 움직이는 것도 느리고, 하면 대개 좋은 결과가 있어요. 제가 옆에서 답답해요. (중략) 자기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해요. (중략) 저는 그냥 막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편이 그런 사람이구나 그냥

존중을 하고.

영화는 남편이 내 인생에서 없어지면 안 되는 친구라고 말하며 남편 덕에 성숙해지고 배우게 되었다고 고마워해 한다. 남편은 영화를 키워줬으며 때론 아빠처럼 그리고 남편의 역할로 친정식구들에게도 경제적으로 보태줬다.

영화 : (중략) 진짜 우리 남편 아니었으면 이렇게 잘 살지 않았을 거고 (홀쩍 홀쩍) 제가 이렇게 성숙하지는 않았을 거고. 제가 10년 만에 배운게 우리 남편 덕이라고,(중략) 특히, 제가 필리핀에서 고등학교 밖에 만나왔으니까 뭔가 좀 해서 챙겨주는 그런 아빠의 역할, 남편의 역할. 그리고 우리 가족한테 경제적으로 보태주고...

영화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구들과 캠핑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었지만 남편은 가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영화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남편이 캠핑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부부가 서로에게 더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가정 분위기도 좋아졌고 유대감도 더 생긴 것 같다고 말한다. 이전에 남편이 캠핑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남편을 챙겨야 하는 부담이 있어 캠핑 중에도 자주 전화를 하곤 했다.

영화 : 올해 처음으로 가족과 같이 캠핑하는 거. 예전에도 우리 남편이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올해는 오히려 남편이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 같아요. 남편은 정리하는 거나 뒷정리하는 거 귀찮아해요. 걱정하지마 내가 다 할테니까.(중략) 같이 가주니까 남편이 조금씩 조금씩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같아요. (중략) 그리고 우리 가족의 그런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 같고(중략) 더 친해지는 거 같아요.(중략) 그니까 항상 옛날에는 우리는 밖에 가서 노는데 항상 남편이 집에 있어요. 뭐해 밥 먹었어? 밥 먹는 걱정. 제가 남편한테. (중략) 항상 전화를 해요.

영화는 시어머니에게 자주 안부전화를 드리며 챙기려고 노력한다. 시어머니가 예전보다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모시고 가겠다고 하지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시어머니는 오히려 영화와 아이들을 걱정하며 만류한다.

영화 : 예전보다 많이 챙기고 있어요. 자주 전화도 하고(중략) 그냥 지금은

건강이 안좋으니까 제가 전화를 해 가지고 병원에 가 볼까. 아이고 됐다. 지난주 일요일 어머니한테 갔었는데 머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건강이 다 너무 안좋았어요. 너는 애들이 있으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병원에 가면 안되니까. 내가 병원 간다면 지혜(가명) 아빠한테 얘기해 볼게 말 하고...

영화는 시어머니가 많이 바뀐 모습이 반갑다. 시어머니는 현재 큰 아주버님 부부와 살고 있지만 예전처럼 간섭하지 않는 모습이다. 쉬는 날에 영화의 집에 와도 오히려 남편에게 영화를 도와주라고 한다. 이는 영화가 시어머니에게서 바라던 말이었다. 시어머니는 예전에 했던 자신의 모습을 언급하는 것이 썩스럽다.

영화 : 어머니가 지금 많이 바뀐 거 같아요. 어머니가 지금 큰 아주버님처럼 살고 있어요. 지금 집안일을 큰 아주버님이 다 해요. 지금은 간섭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옛날 얘기를 가끔씩 꺼내요. 어머니는 썩스러운 거 같아요. 아이고, 됐다. 어머니가 쉬는 날에 우리 집에 오면 밥 준비하는 동안 밥 먹은 다음에 남편이 설거지 하면 어머니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남편이 가만히 있으면 뭐하나 안 도와주고. 남편이, 어머니 남자는 집안일 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면 어머니는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중략) 우리 남편한테 직접 시켜 가지고 '지혜(가명)엄마 좀 도와주라' 그거 제가 직접 (시어머니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영화가 가진 친정가족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남편도 시어머니도 알고 있으면서 영화를 이해하고 지지해 준다. 시어머니와의 큰 갈등을 겪은 후 영화는 시어머니를 좋으신 분이라고 말한다.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예전에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모습이 떠올라 더 미안해진다.

영화 : (친정 식구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남편도 알고 있어요. 어머니도 알고 있어요. (중략) 시어머니가 흐흠(웃으며 티슈로 눈물을 닦으며) 대개 좋으신 분이예요.(중략)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생활비 구할 데가 없잖아 네가 좀 보태줘라 이런 얘기.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암튼 옛날 완전 안좋았던 생활, 떠오르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시어머니가 영화에게 했던 말이 의미 있는 말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자기가 ‘마지막 여행’ 이라고 얘기한 것이 영화가 친정아빠를 만나는 ‘마지막 여행’ 이 되었기 때문이다.

영화 : 그니까,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자기가 이제 마지막 여행이라고. (중략) 거기서 한 일주일 동안 보내다가 왔는데 일주일 후에 우리 아빠 돌아가신 거예요. (울먹거리며)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한 말이 자기가 아직 마지막 여행이라고 얘기를 한게 그게 아니고 그게 우리 아빠한테 그런 점, 모르겠는데 어머니는 그냥 아무런 생각없이 얘기를 하셨을 텐데 뭔가 의미있는 말인 거 같더라고요,

(4) 보호자의 역할, 부모

영화는 아직도 친정 엄마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영화는 친정엄마가 막내 동생이 안보여서 불안해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아이들을 위해 같은 마음이라고 말한다.

영화 : 저는 이제 엄마한테 애정을 못받아도 저희 애들한테 해주고 있어요. 길에서 엄마와 딸이 손잡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엄마와 내가 저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중략) 엄마처럼 막내 동생을 말없이 안보이면 그렇게 불안하다는 것을(중략) 우리 엄마가. 저도 그런 건 하죠.

한편으로 영화는 자녀들에게 엄격하고 무서운 존재라고 표현한다. 자녀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훈육한다.

영화 : 나는 사자. 나는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사자를 보면 무서워서 다가가지 않잖아요.(중략) 집에서 무서워요. 애들한테는 엄격해요 제가. 우리 애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중략) 화날 때는 무서워요.(중략) ‘항상 엄마도 하기 전에 생각하고 해. (중략) ‘너도 책임을 저’ 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친정아빠에게 보호받지 못해 고생한 영화는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자녀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능력을 키워주는 것으로 엄마로서 적극적으로 받쳐주겠다고 한다.

상담사 : 원가족 얘기할 때도 아빠의 모습이 나를 보호하길 바란다는 얘기 기억이 나요.

영화 : 저도 아빠처럼 제 자식을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요.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상담사 : 보호는 어떤 의미인가요?

영화 : 그니까 (잠시 생각중) 뭔가 능력을 심어줘요. 그니까 그 능력을 심어줄려면 내가 받혀줘야 되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5) 전쟁 같은 인생, 가족은 나의 집

영화는 힘들게 살았던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 어떤 일이라도 다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상황이 안 된다고 일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영화 : 우리처럼 이런 일(사무직)하다가 나중에 식당가도 괜찮아요 저는. 공장에 가도 괜찮아요. 아무 일이라도 괜찮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최근에 사이버 대학에 들어간 영화는 중간고사를 치르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영화는 원가족 내에서도 현가족 내에서도 자신이 열심히 달리고 있다고 설명한다. 영화는 가족뿐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뛰고 있다고 설명한다. 필리핀에서 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나중에 더 좋은 일이 생기도록 노력하는 마음으로 계속 도전한다고 말한다.

영화 : (사이버 대학교 중간고사)시험이고 하니까, 지난 주에는 과제 같은 거나 정리하고 정신적으로. 일단 생각을 그쪽으로 집중하니까(중략) 전, 얼룩말이요.(중략) 그러니까 말은 계속 뛰잖아요. 좀만 쉬다가 달리잖아요.(중략) 그리고 이제, 사자도 이제 열심히 뛰고 있는데.(중략) 저는 항상 뛰는 거 같아요. (중략) 필리핀에서 해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중략) 나중에 더 좋은 일이 생겼으면 노력해 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계속 도전을 하고.(중략) 항상 쉽없이 뛰고

있어요. 제 발전이긴 하지만 제 가족을 위해서 나부터 노력을 하고 제 자신을 발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영화는 아직 미성년인 남동생의 학비가 큰돈이지만 꿈을 향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동생의 모습을 보면 부담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자신도 꿈을 위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또 동생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지원해줄 만하다고 생각한다.

상담자 : 남동생의 학비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영화 : 그런 거는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같은 입장에서 나도 공부하고 있으니까. (중략) 왜냐면 나도 꿈이 있으니까 자기도 꿈이 있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만 부담되진 않아요.

영화는 자신의 능력이나 모습을 낮게 보며 자신을 믿지 않고 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에 임한다.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생겼지만 안 해본 것들을 조금씩 하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한다. 또한 주변에서 영화의 능력을 보고 칭찬을 하게 되면 영화는 자신을 좋게 봐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누구다 다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주변에서 자꾸 격려하고 칭찬해 주니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잘하게 된다고 말한다.

영화 : 저는 제 자신을 너무, 그 뭐라 해야 되나, 낮게 보는 그런게 있는 거 같아요. 제 자신을 믿지 않는 거, 대개 저는 항상 두려워요. 저는 항상 잘해야 한다는.(중략)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중략) 아 나를 좋게 봤구나 생각이 들고, 뭐 어떤 정보들은 어떤 도움을 물어봤을 때 (중략)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잘한다고 했을 때는 잘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는 정보들도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략) 해 보니까 그냥 하면 되는구나. 자신감이 생겨 가지고.(중략) 자꾸 격려를 해 주니까

영화는 주변 친구들에게 고민을 들어주곤 한다. 그리고 더 큰 꿈을 키우고 있다. 필리핀에서 누릴 수 없었던 기회를 한국 땅에서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게 되면서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희망을 말한다. 노력하고

도전하다 보면 결혼이주여성 대표가 되어 더 많이 이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날을 준비하고자 한다.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다.

영화 : 솔직히 친한 친구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항상 들어주는 입장만(중략) 제가 한국에서 제가 이렇게 이런 일 경험해 볼 거라는 상상,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중략) 여기 살다 보니까 기회가 많은 거예요. 나만 노력하면.(중략) 기회가 많아지니까 조금씩 도전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저도 결혼이민자 외국인이어도 여기 와서 여기 내가 사는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그 외국인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중략) 만약에 제가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이 되면 그 과정에서 그 자리 갈 때까지(중략) 실패해야 성장이 된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

영화는 나비처럼 자유롭고 자연스럽고 여유롭고 가볍게 살고 싶다. 영화는 친정 가족들이 열심히 살게 되면 힘들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생활을 청산하게 되어 그 의무에서 벗어질 날을 고대하고 있다..

영화 : 그냥 나비되고 싶어요. 여유롭고 아무도 신경 안쓰는, 뭐라 해야 되나, 이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요. 이제 (형제들이) 열심히, 열심히 하게 될 거니까 걱정없이. 뭐 나중에 형제들이 힘든 생활을 하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뭐 경제적인 보탬을 이제 안해줘도 되고 그럼 나도 여유로운 생각, 자유로운 생각을 갖고 있게 되니까 좀 그런 무게가 좀 이제 없어지니까.

영화에게 가족은 행복이면서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 가족은 영화의 인생이며 집이다. 전쟁과 같은 인생, 싸워야 이길 수 있는 인생에서 가족은 전쟁 동지이다. 가족은 집처럼 함께 갖춰져야 하고 세워져 가야 하는 존재이다. 영화가 이해하는 가족은 친정과 시어머니, 현재 가족이 모두 들어 있는 확대가족인데 언니처럼 사이가 좋지 않은 가족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영화 : 가족은 행복이에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중략) 인생이라는 전쟁. 항상 그니까 나만의 싸움, 인생을 항상 싸워야 된다. 싸워야만 그

니까 이길 수는 있어요.(중략) 가족은 제 인생이에요, 제 집이에요. 집이 지붕이 없으면 집은 아니잖아요. 문이 없으면 집이 아니잖아요. 뭔가 부족하잖아요. 하나라도 없으면 쉽게 무너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너지는데 나중에 어떻게 일궈야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가족.

상담사 : 그 가족 안에는 친절도 있고 시댁도 형제자매도 있는 걸까요?

영화 : 네. 우리 가족도 있고 시어머니도 친절도 있고. 지금 언니랑 사이가 안좋아요. 안좋은 한데.

2.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가정생활 의미

여기서부터는 연구 참여자가 구술한 이야기 속에서 나타난 가정생활의 의미를 분석한 내용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연구 문제에 중심을 두고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이 인형치료에 참여하면서 밝힌 가정생활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필리핀 가족의 체계 속에서 한 사람의 필리핀 여성으로 태어나고 자란 연구 참여자는 자신과 가족, 가정생활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였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결된 맥락 속에서 연구 참여자는 어떻게 한국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한국에서의 가정생활 경험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그 의미는 ‘가족 안에서의 나’, ‘가족 밖에서의 나’, ‘가족을 이끌어가는 나’ 로 나타났다. 원가족에서 경험한 어린 시절과 결혼 후 한국에 갓 들어왔을 때는 가족이라는 체계 속에서 그 영향을 받는 가족 구성원이었다. 한편 가족이라는 체계를 뒤로 하고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개척하는 경험들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들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족 체계의 중심에서 서면서 ‘가족들을 이끌어가는 나’ 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1) “가족 안에서의 나”

(1) 사이에 낀 아이

영화는 열 명의 형제자매 중 셋째로, 오빠와 언니가 있었고 태어난 지 1년 후

여동생이 태어나는 것을 경험했다. 또한 학력도 형제자매들 가운데 가장 낮은 학력으로 자랐다고 말한다. 출가한 언니와 오빠를 제외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가족을 떠나 경제적인 독립생활을 한 가족 구성원은 영화밖에 없었다. 심지어 결혼한 오빠와 일찍 결혼한 남동생도 부모님 집에 얹혀살거나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왔다.

영화: 학교도 제가 제일 낮은 학력으로 나오고 이런 나이로 혼자 독립적으로 살았었고 그래서 저는 가족에 대한 관심을 아예 바라보지 않았어요. (중략) 왜냐면 저는 16살 때부터 집에서 떠나가지고 혼자 살았기 때문에

아들러는 아이의 출생순위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중간 아이는 첫째나 막내보다 특출한 자립심과 능력을 키우게 된다. 김춘경(2002)은 형제자매 사이의 둘째 아이는 보다 독립적이고 반항적이며 민감하고 공공연히 부모에게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 받고 싶어 하여, 요구를 더 많이 하고 만이가 추구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높다고 설명한다. 둘째는 셋째가 태어날 경우 둘째 아이 또한 “주위의 관심이 줄어든” 아이가 되어 버리며 형제가 셋인 가정의 둘째 아이는 자신의 위치가 양쪽에서 압박을 받는다고 느낀다. 이런 상황을 사람들은 “샌드위치 상황”으로 표현하는데 자신만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지각하며 그의 존재는 만이와 비교할 때 기존의 질서를 방해한 침입자로 인식하고 가족의 사회체계 내에서 “사이에 낀 아이”이며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발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김춘경, 2002)

영화는 자신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는 친정엄마가 막내 동생에 대해서는 유독 애뜻한 모습에 대비가 느껴졌다. 한편으로는 친정엄마가 막내 동생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엄마의 사랑을 알면서도 엄마에게 기억되지 못한 소외감을 느꼈다.

영화 : 그래서 엄마가 저만 기억을 못하니까.(중략) (다른 형제들은) 다 기억을 해요.(중략) 엄마처럼 막내 동생을 말없이 안보이면 그렇게 불

안하다는 것을.(중략) 저도 그런 건 하죠.

중간 아이는 자신이 첫아이나 막내보다 부모로부터 차별받는다고 느끼곤 하여 그것으로 부모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한 관심을 얻고 싶어 한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친정아빠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영화는 기대하는 것만큼 그러한 관심을 받지 못해 서운해 하며 눈물을 흘렸다.

영화 : (중략) 그러면서도 남자들한테만 잘 챙겨줘요 우리 아빠가. (중략)

영화 : (친정아빠와의 대화 재현 중) 내가 얼마나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그걸 아빠가 못 알아보고. (중략) (눈물을 훔치며 훌쩍 훌쩍) 제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 했던 거 같아요.

상담사 : 친정아빠로부터 원하던 대답이 뭐였어요?

영화 : 미안하다. 똑같이 대해주지 못해서(훌쩍거림).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소외감은 어떠한 무리에 속하지 못했다는 외로운 느낌으로서 나만 빠져 있다는 외로운 기분이다. 영화는 친정아빠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 자신보다 오빠를 더 챙기는 모습에 소외감을 느꼈고 오빠와의 갈등이 지속되었다. 이재연과 이완정(2006:135)은 부모에 대한 소외감이 높은 아동은 형제간의 갈등정도를 높게 지각한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대부분 상처와 고통에 반응하기 때문이다.(Satir & Baldwin, 1983) 영화는 친정아빠가 남자 형제들을 편애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겪은 상처와 고통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다. 친정아빠의 사망으로 오빠와의 깊은 갈등의 골은 일단락 짓는 모습을 보인다. 더 이상 친정아빠는 오빠를 챙길 수 없기 때문이고 영화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영화는 자신의 삶을 친정아빠의 삶과 비교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도 친정아빠처럼 가족들을 보살피면서 살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결국 친정아빠와 같은 삶고 있다. 형제들에게는 친정아빠의 삶이 대물림되지 않기를 바라며 자신처럼 경제적으로 독립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영화 : 아빠도 나처럼 이렇게 동생, 형제를 보살피 줬어요.(중략) (친정아빠는) 자기 힘들어도 옆에 있는 가족을 잘살기만 하면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이제 친정아빠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서 친정아빠처럼 나는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겠다고 (중략) 우리 동생들도 제발 좀 열심히 해갖고 좀 친정아빠처럼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영화는 자신의 역할을 통해 가족들이 잘살기를 바랐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친정아빠처럼 힘든 삶을 살지 않는 것이었다. 가족 구성원들 간에도 그 지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양식이 있는데 이러한 행동양식 및 규준이 바로 역할이다.(박진옥, 2011:38) 가족의 역할이 외부적으로는 관습, 도덕, 법률 등 사회규범과 제도에 의해 규정되어 왔는데 내부적으로는 성, 세대, 연령, 친척 관계 등에 의해 개인의 지위와 다른 가족 구성원과 구별되는 기대되는 역할이 주어진다.(박진옥, 2011:38)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역할수행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연구한 김진(2020:5~6)은 역할수행이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주관적 역할기대와 외부나 타인으로부터의 객관적 역할기대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한다.

영화는 자신이 약삭같이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을 친정아빠에게 인정받았다. 그러나 친정아빠가 자녀들에게 더 나은 형제가 서로 도와야 한다는 말에 불만을 표출한다.

영화 : (중략) 나도 자식인데 나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어느 정도 살게 되는 건데.(중략) 좀 인정을 해준 거 같지만 (중략) 우리 형제 중에 생활이 나아져도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지 말고, 너 힘들어도 네가 이겨내야 된다는(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영화에게 있어 친정아빠가 자녀들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고 느끼면서 차별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차별은 힘들어도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는 영화의 삶에 확고한 기준을 세우게 되었다. 이지선(1994:135)은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어떤 기준이나 모델이 되기도 하며 서로에게 자극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빈번한 갈등과 충돌과 싸움이 오히려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설명한다.

(2) 시어머니와의 갈등과 화해

시어머니는 집안일은 너무 쉬운 일이라며 아들이 벌어들인 돈을 헤프게 쓰는 영화에게 잔소리를 하곤 했다. 초기에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아무 얘기도 못하고 속으로 삭혀야만 했다.

영화 : 그냥 니? 니라고 불렀어요.(중략) 집안일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니 오빠는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 오는데 남편 집안일을 해야 돼? 나는 집에서 놀기만 하고 남편이 버는 돈을 다 쓰면서 집안일도 못해?

상담자 : 그때 영화님은 어떻게 대답했어요?

영화 : (그때는) 그냥 조용히 방으로 나가요.

영화는 시어머니가 같은 여자로서 자신을 누구보다도 이해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무시당하고 강요당한다고 생각되어 화나고 섭섭한 마음이 컸다. 또한 영화는 시어머니의 말들이 자신을 만만하게 보고 간섭하고 싫어서 그런다고 느꼈다.

상담자 : 시어머니에게 바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영화 : (중략) 어머니가 내가 원했던 것을 반박하지 않고 조금 같은 여자로서 같은 마음을 좀 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했던 거. 제 남편에 대한 원했던 것을 어머니가 반대를 했으니까.(중략) 어머니가 가리켜 주는 건데 어머니가 간섭하고 나를 만만하고 내가 만만한가. 잔소리로만 들렸어요. 모든 게 잔소리. 나를 싫어서 그런 건가.

박길순, 이은아, (2020)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은 시부모가 결혼이주 여성을 여성으로 인정하기보다 시부모 말에 무조건 따르고 집안일을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하는 며느리의 역할에 대해 부담감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 게다가 가사분담, 자녀교육에 있어서 남편이 관여하지 않으며, 자녀교육은 엄마가 도맡아야 한다는 역할에서도 불만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의 생활방식, 한국이 갖고 있는 전통성, 가족간의 역할과 관계들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박길순, 이

은아, 2020:600) 박진옥(2011)에 따르면 며느리의 고부갈등과 고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출신국이 있다고 밝혔는데 중국출신의 며느리는 고부간의 갈등이 낮은 반면, 베트남과 필리핀의 경우 고부간의 갈등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며느리의 연령에 있어서도 20대가 갈등의 정도가 가장 높아 나이가 어린 며느리의 경우 고부간의 갈등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진옥, 2011:78). 영화의 경우도 한국 나이로 갓 20세에 필리핀에서 한국에 시집을 왔기에 그 고부갈등 정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도 다른 결혼 이주여성들이 경험한 바와 같이 시어머니가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하며 시어머니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강요한다고 느꼈다.

그 과정에서 영화도 시어머니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 시어머니는 젊은 부부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고 영화는 시어머니가 가진 한국의 전통적인 사고를 이해하지 못했다. 영화는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말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자신을 못살게 군다고 생각했다.

영화 : 저는 옛날에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 문화라는게 있잖아요. 그때 어머니는 대개 옛날 분이잖아요. 저는 뭐지? 뉴 제너레이션(new generation). 그니까 문화도 다르고 나라도 언어도 다르고 한국 문화라는 거, 저한테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제게 엄격하고 못되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영화는 한국사회의 문화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한국 사회의 문화는 영화가 살아왔던 평등적 위계를 지향하는 필리핀 문화와 아주 많이 달랐다. 장현섭(1993:193)에 따르면 단독가구의 비율로 핵가족화를 파악한다면 오히려 19세기 말엽이 더 핵가족화 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직계가족의 원리가 대단히 강했던 시기였다고 보고한다. 한국사회는 지금도 직계가족의 원리로 돌아가며 가족성원들의 결속을 유지하며 나아가 사회를 통합시키고 있다. 한국사회에 뿌리박힌 유교사상은 위계관계를 중요시하여 사회뿐 아니라 가족관계에서도 중요시 되었다. 이러한 가족 내 위계는 남녀의 성과 상하의 세대였다.(최흥기, 2006:50)

영화는 조금씩 시어머니에 대한 시각을 바꾸었다. 집안일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시어머니의 요구가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한국어 방문 선생님과 동료 결혼이주여성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한국문화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영화 : 살다보니 집안일 보다는 너무 힘들게 많은 거예요. 집안일 못하면 밖에서 어떻게 적응할까. 집안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중략) 한국어 방문선생님이 6개월동안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한국에서 이런 문화도 이런 것도 있구나. 친구들과 조금씩 조금씩 만나기도 하면서.(중략) 제가 그때 만났던 친구들은 시어머니랑 살진 않았었고, 근데 남편이 그런 모습이 우리 어머니하고 조금 비슷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영화와 시어머니는 둘째 딸 아이가 태어나면서 극적으로 서로 화해하게 되었다. 영화는 따뜻한 모습으로 안아주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자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영화 : (중략) 그때 어머니가 병원에 찾아 왔어요. 그때 나를 안아주고 고생했다고 툭툭 얘기했어요. 며느리는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지만 평생 안보겠다고 했는데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찾아와 가지고 고생했다고. 어머니가 나를 남의 자식 아니다. 대개 미안하드라고요.

영화는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것이 시어머니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문화와 한국 문화 사이의 차이라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다. 영화는 시어머니와 크게 대립하였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기간을 통해 한국문화에 적응하게 되었다. 최병두(2010)는 외국인 이주자들이 정착한 장소에서 새롭게 주어진 여러 환경적 요소들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경자(2013:725)는 한 개인이 기존의 문화에서 나와 새로운 문화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적응은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전해성(2019:47)은 한국 가족문화에서는 부인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족에서 의도하지 않게 부지불식간에 역기능적인 가족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한국가족 문화에서는 결혼

한 아들과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분리되고 분화되지 못하는 특성이 강하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그런데 전해성(2019:47)은 며느리가 한국문화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일 경우 시어머니는 더욱 아들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의도 가운데 관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3) 남편을 의지하다

영화의 남편은 영화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필리핀에서 친정집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남편은 아내가 손으로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였다. 이 모습을 보고 영화는 남편이 자신을 존중해 준다는 생각으로 남편을 믿고 따라올 수 있었다.

영화 : (중략) 남편도 제가 손으로 먹는 거를 따라서 하드라구요.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왜 그렇게 하나 하지 않고, 따라해 주니까 ‘남편이 나를 존중해 주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살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걱정 없이 그냥 남편을 따라 왔어요.

영화의 남편은 국제결혼을 위해 영어를 준비하였다는 것과 아내가 하는 모습을 판단하지 않고 따라하였다. 남편은 아내의 언어뿐 아니라 문화에 대해서도 차이를 이해하고 배우며 수용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박진옥(2011:75)은 남편이 아내의 문화를 수용하려는 태도가 높으면서 자신의 한국문화를 적극 알리고 자녀들에게 다문화에 관해서 교육하겠다는 태도가 높은 집단이 부부간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부부는 상대방 문화에 대하여 개방적일수록 부부간 적응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박진옥(2011:137) 전해성(2019:47)은 다문화부부는 서로에 대한 정보 및 이해 없이 갑작스러운 결혼을 선택하게 되는데 갑작스러운 결혼으로 부부가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고 정서적 교감이나 애정에 기반을 두지 않은 결혼생활 속에서 부부 적응을 해나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남편의 자세는 결혼생활 중에 부부싸움이나 시어머니와의 갈등 관계

속에서도 큰 자원이 되었을 것이다. 영화는 남편이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챙겨 준 것이 너무 기뻐다. 최근에 영화는 일을 다니면서도 대학에 들어갔다. 영화가 하는 일의 계약이 종료되어 속상했을 때도 남편은 영화의 능력을 지지하고 믿어 주었다.

영화 : 우리 남편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크지도 않고 이렇게 발전되지도 않았을 거예요.(중략) 남편이 저를 챙겨주는 게 정말 좋았어요. 시험도 준비해줬으니 공부만 하고 시험을 봐. 아무튼 영어학원에도 등록시켜 줬어요.(중략) 지금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제가 힘들다고 얘기했을 때만 좋은 말, 좋은 조언을 해 줘요. 어제 저는 (일이) 이번 달까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영화만큼은, 결혼이주여성들 중에 능력있는 사람이 열명이나 될까.

권용혁(2012:286)은 현대인에게 결혼이란 상대방의 자유와 자아실현 계획을 상호인정하면서 상호 배려하는 형태를 띠지 않고서는 그 성공 확률이 낮아질 뿐이라고 설명한다. 다문화 가정이라는 특수한 배경은 한국의 일반가정과 달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상호 배려할 수 있는 부부의 역량이 더욱 필요하다. 여성이 한국으로 오는 결혼이주의 경우에는 남편의 배려가 더 큰 역할을 차지하는데 결혼이주여성들은 언어와 문화를 모르는 상황에서 결혼생활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다.

영화는 착한 남편을 만나 많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한다. 경제적인 면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남편은 영화의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친구이자, 능력을 키워주는 아빠이자, 내 친정 식구들의 경제적인 보탬을 함께하는 지지자이다.

상담자 : 살아보니 부부는 어떤 관계인 거 같아요?

영화 : 저는 부부는 그냥 친한 친구. 내 인생에서 없어도 안되는 친구.(중략) (눈물을 흘리며) 진짜 우리 남편 아니었으면 이렇게 잘 살지 않았을 거고 제가 이렇게 성숙하지는 않았을 거고. 제가 10년 만에 배운게 우리 남편 덕이라고.(중략) 뭔가 좀 해서 챙겨주는 그런 아빠

의 역할, 남편의 역할. 그리고 우리 가족한테 경제적으로 보태주고.

영화의 경우처럼 다문화 부부관계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드물며 오히려 다양하게 어려움을 호소한 연구들이 더 주목을 받아왔다. 단효금(2017:133)의 연구에서 학계가 다문화가정의 본질적인 문제를 밝히기보다 여성 결혼이민자가 가족 내에서 경험하게 되는 부부만족, 부부불화, 가정폭력 및 학대 등에 중점을 두어 실천적인 담론이 매우 불충분하다며 그에 따른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단효금(2021)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부부간 갈등의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부부의 학력, 의사소통, 문화이해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 이혼 가능성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김시양(2017)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개방과 공감능력 모두 다문화가족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긍정적 자기개방과 필리핀 출신 변수도 부부 친밀감에 강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화는 남편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에 영향을 받았다고 자신과 다른 남편의 모습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졌다. 영화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존재는 자녀도 아닌 남편이다. 또한 남편이 자신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지지하고 허용적인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 영화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상담자 : 지금 가족 중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영화 : 우리 남편이에요.(중략) 네가 좋다고 하면 그냥 알아서 해. 해볼 수 있으면 해 봐(이렇게 얘기해요) (중략) (제가) 항상 두려워하니까. (중략) 격려를 해 주는 거는 자연스럽게 남편이 해주는 거 같아요.

가족체계에서 부부체계는 가족체계 전체의 규칙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부부간에 얼마나 서로 잘 적응하고 협조해 나가는지에 따라 가족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배우자에 신뢰감이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결혼안정감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다.(장운정, 2007:15). 전해성(2019)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부부의 결혼은 한 쪽 배우자의 해외 이주로 시작되고,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혼 초기에 이루어지는 필수

과업인 ‘부부 적응’ 을 소홀히 하기 쉽다고 밝힌다. 부부 적응은 결혼한 남녀가 조성하는 결혼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들을 대화와 상호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결혼생활의 안정과 궁극적으로 결혼의 만족을 추구하는 부부의 행동적 또는 정서적 상호작용의 과정을 말한다.(전혜성, 2019:49)

2) “가족 밖에서의 나”

(1) 나는 인생의 개척자

영화는 필리핀에서 혼자 어린 나이에 독립하여 방황도 많이 하고 인생의 쓴맛도 경험했다. 더 이상 기댈 데 없는 환경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아보기도 했다. 혼자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 봤기 때문에 국제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모험을 걸 수 있었으며 그 어떤 어려움도 해낼 수 있다는 의지를 키울 수 있었다.

영화 : 제가 2년 동안 혼자 살았을 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어요. (중략) 남 밑에 밑바닥인 삶을 해가지고 (중략) (생각 중) 우리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아빠도 힘드니까. (중략) 아무 일이라도 괜찮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들러는 실패와 어려움이 더 많은 노력과 더 나은 기술을 이끌어내는 자극이 된다고 말하면서 이런 사람은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배려도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가 맞닥뜨린 과제가 많건 적건 어려울 수밖에 없고 과제에 도전해 실패하는 경우 또한 생겨난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조차도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염려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다음에는 실패하지 않을까를 생각하며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Adler, 2017:283) 전주성(2011)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삶은 그들이 모국에서 경험했던 과거와의 개인적 및 사회적 차원에서의 일방적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영화가 살아낸 필리핀에서의 힘겨웠던 삶의 경험들은 한국에 와서도 억척스럽게 인생을 살아내는 자양분이 되었다.

(2)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 국제결혼

자신에게 지지자가 되어주지 않았던 친정가족을 떠나 독립하여 생활했었던 영

화는 아이러니 하게도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그 가족 안으로 들어가려 결심하게 된다. 영화의 언니는 이미 한국에 시집을 온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언니의 조언을 구하지 않고 국제결혼을 선택했다고 한다. 영화는 가족들이 자신을 도와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친정부모에게 도움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믿고 힘든 생활을 벗어나기로 하였다.

영화 : 내가 결혼하겠다고 하는 결정, 우리 아빠도 몰랐어요. 동의 없이 결혼해 버렸어요. 결혼하고 나서 비행기 타기 전에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나 남편하고 간다고.(중략) 남편이 영어도 되니까 대화도 된 거예요. 남편도 잘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아빠) 마음이 나아진 거 같아요.(중략) 벗어나고 싶은 생각. 우리 남편을 보면서 힘든 생활을 벗어나고 싶은...

필리핀 해외이주위원회(Commision on Fillipinos Overseas), 2018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해외로 나간 필리핀인이 약 1천2십만명에 이른다고 보고한다. 장단기 및 불규칙적 이민자 수를 합한 통계이다. 그 중 한국에 결혼이민으로 들어오는 필리핀 여성은 2018년 기준으로 1만1천4백여명이었다. 아시아계 국가들 중에서는 상위 5위에 해당되는 수치다. 이용승(2014)은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주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가족부양과 취업 기회 확대, 더 나은 삶에 대한 욕망과 만족추구, 사회적 네트워크 등이 중층적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나의 공부, 일, 꿈

영화는 학업에 새로운 도전을 하며 강하게 성장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 영화는 필리핀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으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학력을 인정받는 대신 한국의 검정고시를 통해 한국의 초등학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공부를 마쳤다. 최근에 사이버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해서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영화 : 아, 그냥 바빴던 거 같아요. 웬지 모르겠어요. (사이버 대학교) (중간고사) 시험이고 하니까. 지난주에는 과제 같은 거나 정리하고 정신적으로, 일단 생각을 그쪽으로 집중하니까...

영화는 친정 형제들에게 학비를 보내는 부분도 부담이 아니라고 하면서 꿈을 위해 투자하는 자신을 소개한다.

영화 : 그런 거는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같은 입장에서 나도 공부하고 있으니까. (중략) 왜냐면 나도 꿈이 있으니까. (중략)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만 부담되진 않아요.

영화는 남편이나 가족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기로 결심하고 배우며 도전하는 삶을 추구한다. 이러한 삶을 통해 참 많은 것들을 성취해 왔다. 아직도 계속되는 배움의 여정에서 영화는 더 큰 미래를 보고 있다. 이주여성들에게 있어서 배움은 새로운 나를 창조하는 도구이며 생물학적 및 사회적 생존을 위한 필수장치이기에 그들은 새로운 비형식적 학습기회(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위한 각종 다문화교육프로그램)는 물론 온라인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무형식 학습 기회에도 부단히 참여하여 자신의 자아를 확장시키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재구성한다(전주성, 2011:21). 이러한 점에서 이주여성에게 있어 배움은 삶과 동일한 의미로 다가오며 살아간다는 것은 배워가는 것을 의미하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삶에 있어 주체적이 되어 홀로서기가 가능해진다.(전주성, 2011:21).

영화는 미래에 더 나은 일을 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해보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 계속 도전하며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영화의 발전이 가족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한다.

영화 : 일단 필리핀에서 해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런 일 보다는 나중에 더 좋은 일이 생겼으면 노력해 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계속 도전을 하고. 그 도전을 하려면 항상 두려운 게 있어요. 항상 쉽없이 뛰고 있어요. 제 발전이긴 하지만 제 가족을 위해서 나부터 노력을 하고 제 자신을 발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영화는 자신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쉽 없이 뛰고 있다고 말한다. 인형치료 과정에서 원가족 내 자신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얼룩말과 사자를 고르면서 ‘뛰고 있는’ 나라고 표현했다. 현가족 내 자신의 모습을 말과 사자로 골랐을 때에도 ‘뛰고 있는’ 자신이라고 소개하였다.

(1차 상담)

영화 : 전 이거요. 얼룩말이요.

상담사 : 어떤 게 닳은 거 같아요. 얼룩말은 어떤 부분이 닳은 거 같아요?

영화 : 그러니까 말은 계속 뛰잖아요. 좀만 쉬다가 달리잖아요.(중략) 그리고 이제, 사자도 이제 열심히 뛰고 있는데...

(4차 상담)

상담사 : 말하고 닳은게 있을까요?

영화 : 저는 항상, 항상, 뛰는 거 같아요.

상담사 : 가족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영화 : 나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뛰기도 하지만...

인형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할 때 사자와 얼룩말로 골랐는데 이 동물들과 닳은 점이 ‘뛰다’는 것이었다. 무언가를 향해 항상 뛰고 있는 자신의 상황과 태도를 설명하였다. 동시에 쉬지 못하는 나로도 표현하였다. 쉬지 못하고 계속 뛰어야 하는 연구 참여자의 마음은 어떠한가? 황미영(2019:47)은 인형치료를 통한 부모의 애착세대전이에 관한 사례연구에서 얼룩말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말은 강력한 리비도적 동물로 삶의 에너지, 삶의 주도성을 나타내며 얼룩말은 가족화되지 않은 야생마로서 자신이 주인이다. 연구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역사와 이야기를 살펴볼 때 사자와 얼룩말을 표현한 자신의 모습 속에 삶의 에너지와 삶을 주도하는 생활양식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연구 참여자는 통번역 인력으로 파견되어 직업으로서 통역 일을 하고 있다. 단순 통역뿐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통번역 업무들도 하면서 전문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이렇게 전문적인 통역을 하는 것에 대해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나 하나씩 경험을 해감으로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영화 : 저는 제 자신을 너무, 그 뭐라 해야 되나, 낮게 보는 그런게 있는 거 같아요. 제 자신을 믿지 않는 거, 대개 저는 항상 두려워요. 저는 항상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중략) 옛날에는(중략) 일반적인 거 통역했는데, 법원가서 변호사, 경찰 갔을 때 통역 하는 거 그런 일들이 저한테 큰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해 보니까 그냥 하면 되는 구나. 자신감이 생겨 가지고.

아들러는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더 나아지길 바라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영화는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 노력하며 이 열등감을 없애려고 하였다. 열등감을 품은 상태로 오래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고 이러한 상태의 긴장을 경험하게 되면 인간은 좀 더 나아지기 위해 행동하기 마련이라고 설명한다.(Adler, 2017:60)

영화는 다문화 관련 기관에서 일을 시작할 때에도 주변 동료들이 해준 격려로 인해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한다. 영화는 스스로 못한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는 자아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나오는 표현이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와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은 영화의 업무태도를 칭찬하면서 영화가 상황적 눈치가 빨라서 맡은 일을 확실히 처리하고 시키지 않은 일도 찾아서 술선수범 한다고 평가하였다. 직장 동료들은 심지어 컴퓨터 작업 관련 하여 오히려 도움을 받곤 했다.

상담자 : (중략) 여기서 영화의 장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담감과 기대감으로 열심히 나를 푸쉬하는 점이 있고 (중략) 옆에서 잘한다 하면 격려를 얻어서 더 잘할 사람이예요. 어떤 거 같아요?

영화 : 맞아요. 저는 00센터에서 그렇게 갔었던 거 같아요. 자꾸 격려를 해주니까. 나는 못한다고 했을 때는 주위 사람들이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아들러는 용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참된 용기는 언제나 도움을 주는 용기로서 용기가 있다는 것은 인생의 많은 과제들에 대처해 나아간다는 뜻이다. 인생의 많은 과제들에 대처해 나아가는 것이 용기가 있다는 의미와는 반대로 ‘인

생의 많은 과제들에 대처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다'는 뜻이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용기가 있고 자신감이 있으며 마음을 편안히 먹는 사람만이, 알고 보면 모든 게 대인관계 문제인 인생의 과제들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Adler, 2017:60) 영화는 자신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직장생활에서 보여줌으로써 직장동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세워나갔다. 직장생활은 맡은 일에 대한 성실성, 책임감, 동료들과의 협력이 요구될 뿐 아니라 업무의 성과를 내야 하는 분야이다. 영화가 보여준 직장생활을 통해 동료들의 격려가 있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더 강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친구들이 찾아와 고민 상담할 때 영화는 들어주는 역할을 많이 했다. 이러한 역할이 개발되어 언젠가는 체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꿈을 키우고 있다.

영화 : 솔직히 친한 친구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항상 들어주는 입장만... 친구들한테 들었으니까.

상담자 : 친구들이 고민 상담을 하는 편이예요?

내담자 : 예. 그런 역할밖에 안했으니까. 저도 내담자가 (웃음) 주변 친구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데.

영화는 힘들게 살았던 필리핀에서의 환경과 현재 환경을 비교해 보면서 기회가 많은 한국 땅에서 도전의식이 생겼다고 말한다. 조금만 노력해도 기회가 생긴다는 희망을 가지고 큰 꿈을 꾸고 있다. 바로 외국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표자가 되어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정보를 주고 싶다.

영화 :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이런 일 경험해 볼 거라는 상상,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필리핀에서는 고등학교 밖에 만나왔으니까. 필리핀 있으면 (중략)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그냥 그 자리. (중략) 여기는 고등학교를 나와도 기회가 많아지니까 조금씩 조금씩 도전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저도 결혼이민자 외국인이어가 여기 와서 여기 내가 사는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그 외국인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아들러는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열등감이 언제나 스트레스를 만들어 냄으로

늘 우월감으로 향하는 보상을 얻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우월성의 목표는 개인적이고 독창적이어서 인생에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달라지며 이렇듯 생활 방식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우월한 상황에 이르려는 노력은 사람의 성격 전체를 아는 열쇠이므로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생활 방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Adler, 2017:77).

영화는 바라는 자신의 모습을 고르라고 했을 때 나비를 골랐다. 가족 안에서의 나의 모습, 특히 원가족 안에서의 나의 모습이 가족을 위해 항상 뛰어야 하고 먼 곳을 내가 먼저 바라봐야 모습으로 얼룩말과 기린이었다. 그러나 이제 나비를 선택한 영화는 자신이 원하던 것들을 다 이룬 후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영화 : 그냥 나비되고 싶어요. 여유롭고 아무도 신경 안쓰는, 뭐라 해야 되나, 이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요. 이제 (형제들이) 열심히 하게 될 거니까 걱정없이. 뭐 나중에 형제들이 힘든 생활을 하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뭐 경제적인 보탬을 이제 안해줘도 되고 그럼 나도 여유로운 생각, 자유로운 생각을 갖고 있게 되니까 좀 그런 무게가 좀 이제 없어지니까 시원한 그런.

인형치료에서 나비는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을 상담할 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상징물로 사용된다. 고치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이 시작되며 새로운 생명과 변화의 상징물이다.(최광현, 선우현, 2016:245) 영화는 경제적 부담이라는 인생의 무게가 없어지고 여유로운 삶, 자유로운 생각을 하며 시원한 삶을 동경하고 있어 보인다. 언젠가 자신이 나비처럼 가족의 짐과 무게를 벗고 자유롭게 훨훨 사는 날을 기대하며 날고 싶다고 표현했을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꿈을 키우며 현재를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에 한층 자유롭고 여유롭게 자신의 삶을 꾸리며 또한 외국인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의 비상을 예언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3) “가족을 이끌어가는 나”

(1) 원가족의 중심에 서다

영화는 친정아빠에게 표현을 잘 하지는 못했지만 경제적으로 친정아빠를 지원해 줌으로써 사랑을 표현하였다. 필리핀에서 혼자 독립생활을 했던 가난한 시절에도 친정아빠 생신을 차리기 위해 챙겨주었다.

영화 : 친정아빠 생신 때, 다 돈으로 표현했어요. 몸으로 신경 쓸 수 없으니까. 제가 돈을 보내줘서 동생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어요.

영화는 기꺼이 가족 내에서 이렇게 스스로 가족을 돕고자 역할을 정했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영화가 스스로 정한 역할이 처음에는 원가족을 위하는 마음보다는 사랑하는 친정아빠를 도와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내는 것이었다.

영화 : (만) 16살 때부터 마트에서 일을 했을 때도 제가 월급 받으면 조금이라도 제 월급에서 한 반 정도는 보내줬어요. 생활비 보탬으로 해 가지고. (중략) 아빠의 무게 좀 덜어 내려고...

박진옥(2011)의 연구에서 역할은 역할인지, 역할기대, 역할수행의 3가지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밝히며 역할인지(role perception)는 역할담당자가 어떤 역할을 자기가 수행해야 할 일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박진옥(2011:48)에 따르면 역할기대(role expectation)는 역할담당자에 대한 타인으로부터의 요구나 역할수행상의 평가적 기준으로, 이것은 집단 내의 타인과의 상호접촉을 위해서 주로 모방에 의해 학습되며 개인의 인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영화는 친정아빠가 돌아가시자 친정아빠 대신 원가족의 부양자로 자처하여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돌아가시기 전 친정아빠가 원가족 내 영화의 역할을 다른 자녀들에게 말함으로써 영화의 이러한 역할을 공표하였다.

이러한 역할은 친정아빠가 강요한 것이 아닌 영화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졌다. 이전부터 영화는 친정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자로 서서히 자리를 잡아 왔다. 그것은 친정아빠가 남겨준 책임이자 부담이기도 했지만 기꺼이 친정아빠의 짐을 덜어내고자 하는 효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영화 : 아빠가 걱정 기대했던 거 보다는 오히려 아빠한테 도움을 많이 준 거 예요.(중략)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가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아빠 힘들면 이야기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아빠도 적어도 경제적으로 도와주니까 아빠도 든든한 느낌이 드는 거 같아요.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나라는 자식이 있으니까 가도 이제 괜찮다는.

필리핀 가족속의 삶은 양면제(bilateral kinship) 가족문화에 기인하는데 여성이 친정에 대한 지원 의무감으로 가족을 위한 이주가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송복희(2011:38)는 설명한다. 김민정(2002:17)의 연구에서 필리핀 가족이 양면적인(bilateral) 면을 설명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강조되지 않는다고 밝힌다. 김민정(2002:26)은 또한 필리핀 농촌에서 성공한 후손들이 돌아가며 가족모임을 개최하는데 이는 부유한 성원은 ‘베푼’으로써 그 집단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정받고 권위와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영화는 혼자 독립을 했을 때에도 친정 가족 중 연락하는 사람이 아빠밖에 없었다. 동생들은 너무 어렸고 오빠와는 자주 싸워서 부딪혔다. 엄마의 기억에 영화가 없어진 것처럼 가족들 사이에서도 영화는 잊혀진 존재였다. 그러나 아빠가 돌아가시자 가족들은 영화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아빠가 동생들에게 당부하기도 했고 영화가 자처해서 돕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친정집 공사에 돈을 보태면서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하였다.

영화 : 그니까 지금은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저한테 물어봐요.(중략)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동생들한테도 힘들 때는 그 누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라고. (중략) 아빠도 자세하게 동생한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동생들이 생활비에 대해서 우리가 보태주고 있어요.(중략) 우리 집에 공사하고 있는 집에 제가 돈을 보태주고 있어요. 오빠가 거기서 그냥 일당을 받고 있어요.

박희(2002:147)는 필리핀이 식민지의 역사를 거치면서 생존을 위한 제도적 보장대책이 없어 왔기에 국민들은 존재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어 혈연을 통해 가족과 친족 집단만이 유일한 안식처로 여겨져 가족주의가 더 강화

되었다고 밝혔다. 문은영 외(2005:74)는 아시아 여성 연구에서 동남아 특유의 전통적인 요소가 서구 식민지배 이후 가부장제 가치관과 여성의 성별 분업에 있어 혼합적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양변성을 띠고 있는 문화로 인해 여성이 가족 내에서의 역할이 더 가중되는 부작용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친정 가족들은 모두 영화를 아빠대신 가족의 경제권을 넘겨받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 형제자매들이 아버지의 사망연금을 일시불로 받았을 때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지 고민하여 결국 영화가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영화는 제법 그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뿐만 아니라 먼 미래까지도 준비해 가고 있다.

영화 : 얼마 전에 우리 아버지의 그 연금을 받았었거든요. 우리 엄마하고 동생 밑에, 결혼 안한 동생들이 받은 연금을 저한테 보내가지고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중략) 저는 지금 우리 엄마하고 동생을 위해서 매달 10만원씩 적금하고 있었거든요.

아빠를 위해 친정 가족의 부양자가 된 영화는 이제 직접적으로 형제들에게 기대 본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대하듯이 영화는 형제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서 안정되고 성공하기를 바란다. 형제들을 뒷받침해 줌으로써 자신의 삶에도 희망을 기대하게 되었다.

영화 : 진짜 우리 10명 형제 중에 한사람이라도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예요.(중략) 그니까 동생들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도와주면 나중에 뭐 우리한테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런,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략) 그냥 한달에 나오는 생활비처럼 그냥 자동으로 필리핀 얼마 보내줘야 되고 자동적으로 계획이 되는 거예요.

아들러는 한 사람의 가치를 ‘이타성’에서 찾는데 아들러가 말하는 이타성이란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이며, 이렇게 인간이 혼자 살 수 없고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기에 독립적인 존재로 혼자 살 수 없다고 말한다(윤경숙, 2015:6). 아들러는 적어도 관계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삶에 기여함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윤경숙,

2015:7)

영화는 친정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도 받지만 한편으로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힘든 것이다(연구 참여자의 온라인 홍보 슬로건)’ 라고 말하며 피할 수 없이 해야 할 일이라면 그냥 끌어안고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부모는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나보다 성공한 모습으로 독립하기를 바란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자신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영화는 원가족 안에서 부모처럼 그렇게 자신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2) 시어머니는 내편

영화는 한국어 구사가 가능해지자 시어머니에게 직접 의사를 전달하기 시작했다.

영화 : 남편이 전달자 역할을 하지 않아도 제가 한국말을 조금씩 조금씩 하니 직접적으로 어머니한테 얘기했었어요.

영화는 시어머니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였다. 영화는 일을 하고 있는 중에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크게 싸워 분가를 결심하고 감행하게 된다. 의사가 출산 예정일보다 한 달 일찍 나와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에 영화는 시어머니를 더 원망하게 되면서 시어머니와 감정적으로 극하게 대립하였다. 시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보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영화 : (중략) 어머니, 이거는, 어머니한테 받아들여라 하고 강하게 싸워 가지고 분가를 했었어요.(중략) 예전에 얘기한테 일이라도 생기면 어머니 평생 원망할거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죽을 때까지 얼굴 안보겠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영화는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기준에 맞출 것을 강하게 요구함으로써 한국 문화 적응 전략을 선택했다. 정진경과 양계민(2004:116)은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은 개인과 상황의 특성에 의해 매개되며 최종적으로 정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문화 적응적 관점에서 스트레스 대처 시각에서 접근하는 연구는

일차적 전략과 이차적 전략으로 나뉘는데, 일차적 대처는 자신에게 환경을 맞추는 것이고 이차적 전략은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다.(Lazarus & Folkman, 1984:141)

정선주(2020:155)에 따르면, 시어머니의 갈등을 역할기대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살아왔던 남존여비의 생각이 며느리에게 통하지 않을 때,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에게 지지 않으려고 할 때 시어머니가 기대하는 며느리 역할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선주는(2020:167)는 며느리의 갈등 요소로 ‘시어머니의 방식대로’는 어떻게 해도 시어머니 눈에 들기는 어려우니 포기하고 시어머니가 하는 걸 방관하는 형태와 시어머니와 계속 부딪히며 대립각을 세우는 형태라고 설명한다. 이 연구에서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며느리가 괘씸했을 것이지만 며느리인 영화는 임신한 상태에서 직장도 다니는 자신의 상황을 같은 여자로서 이해해주지 않고 여자가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이다. 특히 임신한 아이에 대한 염려와 과거의 안 좋았던 기억이 덧붙여져서 더 반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영화는 시어머니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간다. 몸이 불편하다고 하는 시어머니에게 자주 전화하고 병원도 모시고 가려고 한다.

영화 : 예전보다 많이 챙기고 있어요. 자주 전화도 하고.(중략) 그냥 지금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제가 전화를 해 가지고 병원에 가 볼까.

이제 시어머니는 영화가 요구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영화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힘들었지만 영화의 강한 태도가 시어머니를 바꾸게 되었다고 남편이 말한다.

영화 : 어머니가 상처를 받고 저도 상처를 받고 제가 직접적으로 어머니한테 얘기했었어요. (중략) 남편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무 못되게 하니까 어머니가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됐다고.

박정숙, 박옥임, 김진희(2007:64)의 연구에 따르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높은 자아 존중감, 적은 경제적 문제갈등, 적은 시댁관계갈등, 많은 자녀수, 높은 소득수준 순으로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osenberg(1965)는 자아 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설명하여 자아 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수용, 존중하고 자신을 좋아하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말한다. 영화는 무조건 시어머니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타하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였다. 남편은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못되게 했다고 표현하였으나 영화는 자신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표현하기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힘든 마음상태를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화는 시어머니와 동거했던 4년 정도의 시간동안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후 분가를 하게 되고 시어머니와 부딪히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

시어머니는 최근에 국제결혼을 한 큰 아주버니 부부와 살고 있는데 예전에 영화에게 요구했던 한국의 보수적인 생활습관을 강요하지 않는다. 요즘에는 시어머니가 영화 집에 놀러 왔을 때 밥을 먹고 가만히 앉아 있는 아들에게 오히려 집안일을 도와주라고 시킨다. 이렇게 변화된 시어머니를 보는 영화는 너무 반갑다. 시어머니에게 너무나도 듣고 싶은 말을 들은 것이다.

영화 : 어머니가 지금 많이 바뀐 거 같아요.(중략) 어머니가 쉬는 날에 우리 집에 오면 밥 준비하는 동안 밥 먹은 다음에 남편이 설거지 하면 어머니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남편이 가만히 있으면 뭐하나 안 도와주고.(중략) 우리 남편한테 직접 시켜 가지고 ‘지혜(가명)엄마 좀 도와주라’ 그거 제가 직접 (시어머니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박진옥(2011:99)은 며느리의 성 평등적인 젠더의식이 오히려 고부간 적응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구자경(1999:15)은 현대 사회서 며느리의 지위가 올라감에 따라 빛어지는 ‘권력 구조적 갈등’, 고부의 역할에 대한

상호기대와 수행의 불일치로 일어나는 ‘역할 구조적 갈등’, 한 남자를 두고 아들과 남편을 빼앗는 침략자, 경쟁자로서 갈등을 하게 되는 ‘애정 구조적 갈등’, 고부간의 자라온 생활환경, 세대차이, 성격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 구조적 갈등’ 등 네 가지로 나눈다고 설명한다. 시어머니는 영화에게 며느리로서의 기대감과 아들에 대한 강한 애정욕구로 인해 갈등을 빚었다면 영화는 시어머니에게 생활 구조적 갈등의 형태로 고부갈등을 드러냈다. 영화가 시어머니에게 예전 모습을 언급하면 시어머니가 쑥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표현한다. 시어머니는 말로 표현이 많지 않지만 태도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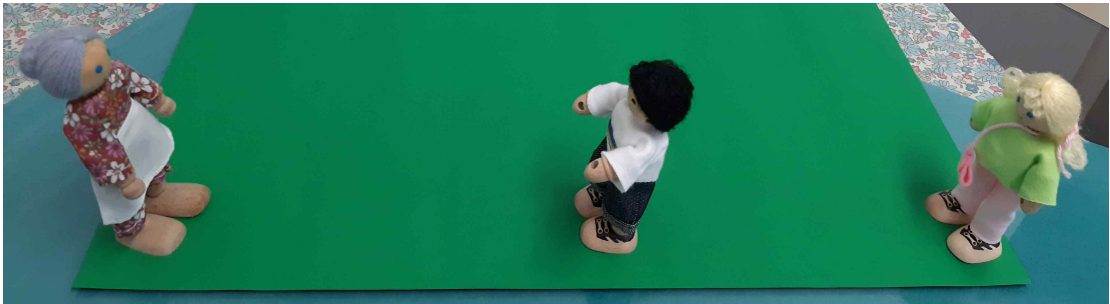
이제 시어머니가 더 이상 투쟁의 대상이 아닌 지지자로서 우뚝 서있다. 지금 시어머니는 친정식구들을 도와야 하는 며느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에 함께 가서 목도한 친정식구들의 상황을 알고 있으며, 설상가상 친정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처할 가족의 어려움을 공감하게 되었다. 영화는 나의 지지자로 변한 시어머니를 보며 옛날 자신이 했던 일들이 기억이 나 미안한 감정이 든다.

영화 : 어머니도 알고 있어요. 옛날에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에는 용돈을 보내주는 것은 아무 말도 안하는데 그 외는 불만이었어요. (중략) 지혜(가명)엄마, 그거 엄마한테 잘 챙겨줬나 라고 물어봐요.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생활비 구할 데가 없잖아 네가 좀 보태줘라 이런 애기.

영화도 살아가며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도 영화의 문화와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가족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영향을 받는 운명 공동체이다. 새로 가족에 투입된 영화는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문화적 요구에 순응하지 않았다. 박진옥(2011)의 연구에서 문화적응에 대해 설명한다. 한 개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체득된 문화와 다른 문화와의 만남에서 그 개인은 새로운 문화에 어떤 방식으로든 적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곧 문화적응은 한 사람 혹은 집단이 새로운 사회의 문화를 접함으로써 그 문화를 배우고 그 문화의 구성원이 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박진옥, 2011:22)

(3) 남편은 내편

영화의 남편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대화가 안 되어 갈등을 겪었을 때 둘 사이에서 갈등을 중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갈등이 깊어지자 결국 아내의 결심을 존중하여 함께 분가하였다.



[그림 IV-1] 시어머니와 나의 관계에 중재하는 남편
(21.1.27일자 상담시 표현한 현가족의 갈등관계)

박소영과 박태영(2008:9)은 고부 갈등에 있어서 고부 관계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와 남편의 중재가 있는 경우 고부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거나 고부갈등을 낮출 수 있다고 보며 남편 역할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영화는 남편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었다. 영화의 남편은 나이가 들어 직종을 바꾸게 되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이었다. 남편이 영화의 능력을 키워줬던 것처럼 영화는 남편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었다. 영화가 남편의 격려를 얻어 자라난 것처럼 남편도 그런 영화로 인해 힘들 얻게 된다.

영화 : 남편이 이전에 실기시험에서 한번 떨어졌는데 두 번째는 제가 신청을 해줬어요. 처음에 떨어졌으니까 자기도 자신감이 다운됐어요. 근데 제가 자꾸 격려했었어요.(중략) 그때 일년 넘게 투자할 만큼 다 투자하자. 나도 고민을 했었어요.(중략) 아무리 합격하지 못해도 한번 해보라. 믿어 봐봐 그런 식 이야기를 했었어요. (중략) (남편이) 영화가 아니었으면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었고. (중략) 저는 항상 남편을 믿었어요.

영화와 남편은 상호 신뢰를 통해서 애착형성이 건강하게 이루어졌고 그로 인

해 부부관계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애착은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형성되고 유지되어 성인기 동안에도 가장 중요하고 오래 지속되는 친밀한 관계이다(김도경, 강택구, 2018:216). 김도경과 강택구(2018:216)은 부부간에도 성인애착 성향이 더욱 강화되며 나타난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관계를 부부애착으로 명명했다. 다문화 가정의 부부애착은 상대 배우자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통해 신체적 및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과 배려하는 감정 이외에도 상대방 문화의 다름에 대한 인정까지도 포용하는 감정이다(김도경, 강택구, 2018:218) 성인애착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안정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대체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친밀하고 지지하며 공감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미나, 채규만, 2012:73)

영화는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가족캠핑에 참여하자고 요청하며 남편을 이끌었다. 약삭같이 열심히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캠핑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곤 했지만 그간 남편이 참여하지 않아 아쉬웠었다. 그런데 이번 해부터 남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서 영화는 이런 남편의 행동이 유대감을 더 강화시킨다고 느낀다. 영화는 남편에게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이해시키고 협조를 요청한다.

영화 : 올해 처음으로 가족과 같이 캠핑하는 거. (중략) 근데 올해는 오히려 남편이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 같아요. 남편은 정리하는 거나 뒷정리하는 거 귀찮아해요. 걱정하지마 내가 다 할테니까. (중략) 나는 이런 거 좋아해. 당신은 협조해 줘라.

아들러는 애정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일’이며 둘이서 일하는 경험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한다. 둘 사이의 협력을 이해하려면 두 배우자가 자신보다 상대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사랑과 결혼이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부부가 자기보다 상대에게 관심이 있다면 둘은 대등하며 이 친밀함과 서로에 대한 헌신으로 인해 비로소 평등한 관계가 가능해진다고 말한다.(Adler, 2017:236)

4) 나는 가족을 이끄는 책임자

영화는 자녀들에게 무섭고 엄격하다. 자신이 화를 내서 애들이 겁쟁해 하지만 아이들은 이유를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자기를 닮은 첫째 딸이 옛날의 자신처럼 친구를 너무 믿어서 걱정된다. 딸들에게 책임지는 삶, 먼저 고민하는 삶을 주문한다.

영화 : 나는 사자. 나는 무서우니까.(중략) 애들한테는 엄격해요.(중략) 엄마 미안해 (얘기해요), (중략) '항상 엄마도 하기 전에 생각하고 해. 만약에 어떤 일 일어나면 책임을 져야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돼.'

영화는 친정부모에게 의지할 수 없어 혼자 살아야 했던 어려움으로 인해 아이들에게는 능력을 심어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어 한다.

영화 : 그니까... (잠시 생각 중) 뭔가... 능력을 심어줘요. 그니까 그 능력을 심어줄려면 내가 반혀줘야 되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인형치료에서 사자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을 상징한다. 긍정적으로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며 호랑이보다 가족과 더 잘 어울리는 존재를 나타내지만 부정적으로는 가족을 힘들게 하고 힘을 사용해 통제하려고 하는 존재로도 표현될 수 있다.(최광현, 선우현, 2016:234-235) 영화는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원가족에게서 받지 못한 능력과 보호를 아이들에게는 심어주고 싶고 자신처럼 힘을 가진 존재로 자라나기를 바라고 있다.

영화는 필리핀에서 힘들게 살았던 삶의 경험은 영화가 맞닥뜨린 한국에서의 어려운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악착스레 살 수 있는 양분이 되었고 그런 삶의 자세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16세부터 가족의 생활비를 보냈던 경험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친정 가족들을 위해 재정을 보내며 가장의 역할을 해오고 있으면서 동시에 현재 가족을 세워가고 있다.

영화 : (생략) 우리가 옛날에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악착같이 살았어요 진짜. 뭐 우선 옷 같은 것, 새로운 거 입어본 적도 없고 그냥 한

별웃 있잖아요, (중략)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생겨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영화는 10년 넘게 현가정의 모든 일을 다 도맡아 하고 있다. 부부는 10년 동안 함께 고생하면서 돈을 모았고 지금은 생활이 많이 편해졌다. 남편은 영화에게 모든 경제적인 권한을 맡기면서 영화는 가족 안에서 중심축이 되었다. 그로 인해 영화는 더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 책임감으로 영화는 더 빨리 한국에서의 삶과 문화에 적응할 수 있게 되었다.

영화 : (중략) 그래서 우리 1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우리 생활이 많이 바뀌었어요. 편해졌어요. (중략) (남편이) 경제적인 부분을 믿는 거 같고. 10년 넘게 잘 맡겼으니까(중략) 10년 동안 넘게 애들 관리도 학교도 제가 다 해요. (중략) 힘든데 제가 이걸 하지 않았으면 (중략) 한국 사회가 어떻게 사는지 방식 같은거 문화를 몰랐을 거 같아요.

영화는 10년 이상 집안의 경제적 책임자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경험을 통해 한국사회를 더 잘 이해할 뿐 아니라 체득하며 받아들이게 되었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문화적응이란 한국 생활에서 언어소통, 음식문화, 전통적인 풍습 등 한국의 생활방식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습관이 되어 가는 익숙함이었다. (박길순, 이은아, 2020:602) 김인아(201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신념체계와 조직유형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부 적응 사이에 중요한 대치요인임을 확인하였고, 결혼이주여성의 부부 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가족탄력성을 강화하도록 제언하였다.

영화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인생관을 설명하면서 인생은 전쟁이며 싸워 이겨내야 하고 이기기 위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성공임을 설명한다. 가족을 위해 자신은 뛰고 있다고 말한다.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가족을 위해 계속 도전하려고 한다.

영화 : (중략) 인생이라는 전쟁. 항상 그니까 나만의 싸움. 인생을 항상 싸

위야 된다. 싸워야만 그니까 이길 수는 있어요.(중략) (저는) 나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뛰기도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도 뛰는 거예요.

영화는 가족이 자신의 인생과 집이라고 표현하며 가족 안의 한 구성원으로써만이 아닌 능동적인 주체자로 표현한다. 인생은 지어진 집처럼 갖춰져야 하며 자신의 인생이라고 설명하면서 친정과 시댁, 형제자매들도 포함시킨다.

영화 : 가족은 제 인생이에요. 제 집이에요. 집이 지붕이 없으면 집은 아니잖아요. 문이 없으면 집이 아니잖아요. 뭔가 부족하잖아요. 하나라도 없으면 쉽게 무너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너지는데 나중에 어떻게 일궈야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가족.

상담사 : 그 가족 안에는 친정도 있고 시댁도 형제자매도 있는 걸까요?

영화 : 네. 우리 가족도 있고 시어머니도 친정도 있고. 지금 언니랑 사이가 안좋아요. 안좋은 한데...

영화는 가족의 개념이 현재 함께 살고 있는 핵가족의 개념이 아닌 그보다 더 넓은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다. 친정도 포함되고 시어머니도 포함된 넓은 개념이라고 말한다. 필리핀 사회는 다른 동남아시아 사회들과 유사하게 부계와 모계를 모두 친족 범위에 포함시키는 공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김민정, 김영수, 1997:330) 필리핀의 친족은 부계와 모계의 엄격한 구분이나 성별 구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박희, 2002:135)

필리핀은 표면적으로 오랜 스페인 통치를 통해 전통이 상당히 희석되어 왔고 미국의 통치기간을 통해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만연하더라도 가족주의적 전통이 강한데 그 전통적 가치라 하면 가족적 유대와 친족적 전통, 종교성과 연장자에 대한 존중심 등이라 하였다.(박희, 2002:134) 개인에 기초한 일종의 친족적인 성격을 드러내는데, ‘ماغ-아낙(Mag-anak:가족)’을 중심으로 부계와 모계가 앙칸(Angkan친족집단)에 포함되며 이웃들 사이의 의사결정에서도 가족 전체가 결정의 주체가 되며, 가족의 이해관계는 개인에게 모아지지만 가족의 이해관계가 개인보다 우선하는 초개인적인 특성을 보여주기도 한다.(박희, 2002:153)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이 인형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표현된 가정생활에 대해 그 경험을 탐색하여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살펴보고 결혼이주여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심리치료 등 지원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담자들과 결혼이주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삶을 시간과 장소의 맥락을 통한 가정생활의 경험을 탐색한 후 그에 따른 가정생활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개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논의이다. 이 연구를 통해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인 연구 참여자, 개인의 삶의 이야기가 탐색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자신이 처한 가족관계라는 체계의 영향과 국가의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영향도 받고 있는 수동적인 존재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닥뜨리게 된 인생의 어려움에 대해 능동적인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여성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이 낯선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삶의 개척자로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필리핀과 한국에서도 선택과 배움에 있어 용감하고 능동적인 주체자였다는 것과 이러한 개인적인 모습이 가족 안에서 ‘가족을 이끌어가는 나’ 로도 발전하였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이해웅(2014)은 본국에서 일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은 한국 내에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보고하며 경험의 연속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본국에서의 노동 직종의 경험이라기보다 포괄적인 경험이라고 설명한다. 이 연구 결과처럼 본국에서 일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은 한국 내에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이해웅, 2014:15)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특정한 인생시기가 아닌 가정생활과 관련된 전 생애를 탐구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접근은 신난희(2016)의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신난희(2016)는 1960년대에 태어난 필리핀 이주여성 두 명을 생애사 연구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맥락과 연구방법이 다르나 이주여성의 삶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였다는 것과 필리핀에서부터 경험한 삶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생애사를 오롯이 보여주는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것이 동일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영화 ‘트랜스포머’의 주인공처럼 로봇으로 변신하면서도 다시 자동차로 돌아오는 모습을 좋아해 ‘영화’라는 가명을 지었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의 삶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대처해 나가는 삶의 자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의 내러티브는 전현영(2012)의 연구 결과와도 동일하였다. 전현영(2012:28-29)은 ‘결혼 이주 여성의 삶은 어떠한가?’라는 연구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면서 ‘결혼 이주 여성의 개인적 요인으로서의 탄력성의 중요도’를 언급하였다. 전현영(2012)은 연구 참여자를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는 대나무’에 빗대어 설명하면서 이러한 개인적 역량을 ‘높은 개인적 정체감이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 대처 요인’이 되며 이러한 것들로 자신의 삶을 가꾸고 만들어가며 한국 문화에 적응해 나간다고 설명하였다.(전현영, 2012:41)

연구 참여자는 힘들었던 젊은 시절을 거쳐 악착같이 살아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 경제적 안정을 누리게 되었으며 이러한 안정은 친정가족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강영미(2015)의 연구에도 비슷한 맥락을 찾을 수 있었다. 강영미(2015:131)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를 연구하면서 연구 참여자가 모계사회가 강한 필리핀의 문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했으며 그러한 인식으로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자발적으로 모시고 돌보는 삶의 모습으로까지 확장하여 사랑의 ‘반음’과 ‘되갚음’으로 의미를 보여주었다는 부분에서 이 연구 결과와 비슷한 맥락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가정체계에 둘러싸인 한 사람의 개체로써 바라보고자 노력하였다. 그런데 기존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문화 적응적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바라보면서 한국의 동화주의적 방향으로 접근하였다. 한 인간으로서 오롯이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기 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부류로써 대상화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이 적응을 위한 대처전략 연구(김희주, 은선경, 2007), 결혼만족도에 대한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자원의 영향(애리텐, 안정신, 2021), 한

국가정생활 문화적응 단계별 특성(홍달아기, 채옥희, 한은진, 송복희, 2012) 연구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인형치료를 받았던 맥락에 대한 논의이다. 연구자는 인형치료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귀로 듣고 인형으로 표현된 모습을 시각으로 보면서 더 깊은 심층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때 추가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아직 수면위에 나타나지 않았던 경험을 찾아 낼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는 자신에게 이미 있었던 숨겨진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심리치료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를 또 다른 경험으로 이끌었다. Okri(1997:46)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바꾼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연구자는 심리치료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삶의 변화를 이끌도록 접근한 반면, 신난희(2016)의 선행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삶에 변화를 주거나 개입한 것이 아니었다. 신난희(2016)의 연구는 연구자가 상호문화소통 주체자로서의 연구 관점으로 바라보았다면 이 연구는 심리상담을 진행함으로써 내담자의 삶과 소통하였다는 점이 다르다고 하겠다.

한편, 연구자가 다문화 상담자로서 접근한 인식 수준으로 연구 참여자의 삶의 이야기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받아들였는가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논의 대상이다. 신난희(2016)의 연구에서 이러한 부분이 자세히 나타났다. 신난희(2016:173)는 이주여성의 경험에서 연구자 자신의 인식 수준에 따라 두 명의 필리핀 이주여성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깊이가 달랐다고 설명하면서 연구자가 두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은 초기의 전략적 소통을 넘어 서로의 입장과 삶의 무게에 관한 공감이 깊어지면서 기술적 이해와 소통을 뛰어넘었다고 보고하였다. 신난희(2016)는 연구자로서 처음 필리핀 이주여성을 만났을 때 연구자의 인식 수준만큼 이주여성이 구술한 생애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다. 연구자가 이해한 이주여성의 생애는 ‘상황적 진실’로 연구자의 인식 수준에 구속되었기에 새로운 인식 수준에서 상황적 진실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한다고 밝혔다.(신난희, 2016:149) 다문화상담자 자질은 지식, 자각, 기술의 3요인 모델(Sue, Ivey & Pedersen,1996)이 대표적이다. 한편 김현아(2013:171)는 다문화 상담자 자질로 다문화적 태도의 정서적 기능과 인지적 기능을 설명하면서 정서적 기능에는 호기심, 흥미, 의지, 바램, 안정감, 열정이 있고, 인지적 기능은 다문화적

상담능력을 탐색하고 과제를 완성하는 동기를 부여한다고 설명한다. 상담자의 다문화적 역량은 심리치료 과정에서 내담자로 참여한 연구 참여자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선행연구들 중에 인형치료를 매개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인형치료는 트라우마 치료라는 관점으로 특히 성학대 피해아동(선우현, 최광현, 이진숙, 정미희, 2015), 가정 내 성폭력 피해 청소년(최광현, 2013), 왕따 피해 청소년(변은주, 2018) 등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내담자를 위해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효과가 높다는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새로운 대상에 대한 사례로써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는데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 연구가 인형치료라는 심리상담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기존 내러티브 연구에서 취했던 심층면담이라는 자료수집 방법과는 큰 차이를 가진다. 최광현과 선우현(2016)은 연구 참여자가 선택한 동물 피규어의 종류, 대비와 공통점, 공간적 배치, 전체적 구성을 보고 해석학적 의미를 찾고 내담자의 문제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고 이는 가족의 질서, 애착, 억압의 영역을 탐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상호 소통을 통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는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심리상담을 통한 자료수집은 내러티브 탐구 방법과도 비슷하다고 하겠다. 한편, 이유나(2015)나 도교동(2020)의 내러티브 연구에서는 3~4회의 면담을 통해 이주여성의 경험을 탐색하였다. 기존 내러티브 탐구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연구자들처럼 ‘면담’을 통해 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형치료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인형치료를 통해 내러티브 탐구 방법으로 접근한 점이 이 연구가 유일하였다. 인형치료 선행연구들이 사례연구, 진단 및 평가의 접근으로 주로 서술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인형치료를 통해 내러티브 탐구방법으로 접근한 점이 다르다고 하겠다. 김효진(2020), 박진수와 최광현(2020), 황미영(2019), 변은주(2018), 김명숙(2015) 등의 연구들이 인형치료 사례연구들이었다. 또한 최정임과 최광현(2020)은 인형심리진단평가를 활용하여 질적 사례를 분석하였다. 선우현 외(2015)는 성학대 아동의 진단평가도구로서 인형치료를 대해 연구하였고 하미경(2017)은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하여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을 연구하여 그 효과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한국어가 제2외국어인 연구 참여자에게 인형치료를 통해 심리 상담을 하고 가정생활의 내러티브 연구방법은 아주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특히 한국인에게는 전반적인 문화가 다르다고 알려진 필리핀이라는 나라의 젊은 여성이 결혼을 통해 한국에 편입되고 그 안에서 경험한 심리적 상처와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인형이라는 매개물로 표현하고 치유의 경험을 담은 이 연구는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유일한 연구이다.

마지막으로, 가정 생활적 차원의 논의이다. 연구 참여자가 가족 내 형성된 체계 속에서 어떻게 성장했으며 어떻게 삶을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개인이 가진 기대와 부모의 역할과 형제들 간의 역동 속에 그 영향력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필리핀 문화 안에 깊이 뿌리박힌 가족주의는 한국의 가족주의보다 더 크다는 결과를 보여준 Choi Yoonsun 외(2018)의 연구처럼 필리핀의 가족주의는 양변체로서 한국보다 더 포괄적으로 가족을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가족의 영향력이 깊었다. 최광현과 선우현 (2016)은 가족체계이론이 정신분석의 한계에서 시작되었는데 한 개인의 갈등과 문제는 개인의 감정과 심리구조에서 발생 되는 것이 아닌 가족체계 안에서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으로 한 개인을 바라볼 때 더 심층적이고 근본적인 뿌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가족체계적 관점에서 연구하였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가 가족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을 감내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과 그로 인해 친정가족들이 경제적 안정을 찾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 참여자의 친정부모가 부부로서 함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역할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었다. 친정엄마가 치매에 걸림으로 인해 친정아빠 혼자의 돌봄만으로 대가족을 돌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하기에 친정아빠는 아내 대신 가족을 함께 돌볼 가족 구성원이 필요했을 것이며 함께 부양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적으로도 연구 참여자는 누군가 아빠를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친정아빠도 가족들이 서로 돕고 기꺼이 짐을 지며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웬(Bowen)의 관점으로 핵가족의 정서체계를 설명하는 김미라와 하영윤(2020)은 다세대적 개념으로 개인을 바라보면서 가족이나 개인에게 나타나는

양상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체계적 맥락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김미라와 하영운(2020)은 부부가 갈등을 경험할 때 불안한 부부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자녀를 속죄양(희생양)으로 끌어들이는 개념의 삼각관계를 언급하면서, 이는 불안정한 이인관계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이때 라틴어로 ‘결정하다(decidere)’는 ‘희생양의 목을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진다.(Girard Rene, 2018:188)

연구 참여자는 결혼이주 이유를 필리핀에서의 힘든 삶을 탈출하기 위한 개인적 동기라고 언급하였으나 연구 결과를 통해 심리적으로는 가족이라는 연결된 맥락 속에 이를 결정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자신의 희생으로 친정 가족들이 혜택을 입은 것을 보게 되고 친정동생들을 위해 생활비와 교육비로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은 친정 오빠의 집을 짓는데 쓰여진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정작 연구 참여자는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힘들게 친정가족을 위해 돈을 보내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이렇게 개인적 이득을 위해 사용한 오빠의 게으른 태도로 인해 화가 나고 친정 아빠와 갈등하는 모습도 발견되었다. 현재에도 친정 형제들 중 누구라도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극 지원해주고 있으면서 과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현가족의 상황을 극복한 승리자의 모습이 있었다. 이는 신난희(016)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부분이었다. 신난희(2016:171)의 연구에서도 이주여성 모국의 가족이 상대적으로 풍요롭게 생활하고 계층 상승을 가능하게 할 교육을 지원하여 모국 가족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한다. 자신이 감내해야 하는 척박한 삶의 자리와 가족이 누리는 풍요 소식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이러한 상실과 고통을 재해석하며 ‘유예한 꿈과 소망’에 힘입어 구조의 굴레를 건디며 이주의 삶을 강인하게 살아간다고 밝혔다.(신난희, 2016:172)

연구 참여자는 입국 초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시어머니와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한국에서의 적응 요인으로 남편의 지지와 공부, 필리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맞닥뜨려 이겨낸 삶의 경험이 한국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용한 내러티브가 있어 전현영(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전현영(2012)은 결혼 이주 여성이 겪은 갈등으로는 돈과 취업, 술과 도박 그리고 의사소통, 시집식구들과의 갈등, 어른과의 도리의 문제를 밝혔고,

그에 대한 적응 요인은 남편의 지지, 이웃의 지지, 종교적 신앙, 문화 적응, 사회 참여, 개인의 탄력성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구자의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전 원가족에서부터 현재의 가정생활까지 아우르는 범위를 연구에 포함시켰으나 전현영(2012)의 연구는 중국 조선족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으로 결혼한 후의 경험만을 다뤘다는 점이 다르게 나타났다.

2.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결혼이주여성 한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가에 대한 고찰이다. 한 여성이 느끼는 가정생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한 여성의 삶은 나의 삶일 수도 있고 내 옆 사람의 삶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는 한사람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야기이자 나의 이야기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며 어떤 형태로든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에 속하게 된다. 가족 안에서 성장하며 가족을 통해 사랑받기도 하지만 미움도 받고 행복과 고통도 함께 느낀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가족 밖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 가족은 바로 우리 삶의 소우주인 셈이다. 그 소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의미가 있으며 그 의미는 그 가족 구성원의 삶속에 깊이 박혀 있게 되고 그것은 또한 다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두 번째로, 인형이라는 도구로 심리치료를 진행하면서 더 심도 깊은 가정생활을 탐구할 수 있었다. 인형은 경험한 이야기를 보조하는 매개체로 사용되었다. 그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가 인형이라는 시각적 매개체를 사용했을 때 무의식적인 부분과 새롭게 알게 되는 자기성찰의 순간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현가족을 닮은 인형들을 골랐는데 연구 참여자는 인형들 모두 반대편에 앉아 있는 연구자를 향해 가는 동물들의 모습으로 배치하였다. 연구자는 인형들 모두 한 방향을 향해 위치시킨 의도가 있는지 묻고 연구자가 받은 인상을 나눴을 때 연구 참여자도 자신이 가족을 그렇게 인식하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것과 자신이

인생에 대해 갖는 신념 등을 더 설명해 줄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특히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 나타낼 때 선택한 인형의 모습과 인형들 간의 위치 구도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심층적인 인식과 경험을 발견해 낼 수 있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어려움을 의사소통으로 보고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내담자를 심층적으로 상담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심리 치료적 매개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하여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통역의 오류나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형이라는 도구뿐 아니라 미술, 놀이, 원예 등 다양한 매개체를 가지고 접근할 때 심리를 더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이 연구는 한사람의 여성, 특히 필리핀에서 결혼으로 이주한 여성만의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다. 전현영(2012:42)은 중국조선족을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에서도 결혼생활에서 여성이 겪는 갈등은 결혼이주여성만이 겪고 있는 고유 요인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물론 결혼이주여성은 이주와 결혼이 동시에 이루어져 한국인들끼리의 결혼과는 많이 다른 점이 있다. 문화, 언어 등 서로에 대한 이해 없이 결혼부터 시작하는 관계이기에 결혼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전현영(2012:42~43)도 국제결혼이 국가적 문화의 차이와 의사소통의 큰 장애물을 안고 시작하기에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인들끼리의 결혼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두 남녀가 만나는 것이다. 한국문화라는 큰 배경 속에서 결혼을 하였으나 남녀, 개인이 살아온 문화가 다르고 부부가 새롭게 가족체계를 만들고자 할 때 시댁과 친정의 문화가 충돌할 수 있다. 한국인 부부도 각자에게 자연스럽게 되었던 기준들이 배우자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하기에 부부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나의 방식을 주장함으로써 부부갈등을 경험한다. 이는 결혼이주 여성과 결혼한 다문화부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한국인 부부들에게도 쉽게 볼 수 있다. 다만 한국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와 같은 문화를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뿐이다. 한국의 전통사상과 어르신들의 태도를 익히 듣고 보았기 때문에 그리 충격적이지 않는 것이고 오해하지 않을 뿐이다. 이 부분에서 일반적인 한국인 며느리와 이 연구

참여자가 다르게 경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결혼이주여성은 그러한 시어머니의 기준과 태도가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오해한 부분일 것이다.

끝으로, 우리의 인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나의 삶은 오롯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가족 속에 속해 있고 원하던 원치 않던 가족과 같이 살아간다. 인류는 결혼과 자녀 출산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영화 아바타에 나온 나비족 사람들이 신령한 나무를 중심으로 죽어있는 주인공인 아바타를 살리기 위해 모두 손을 잡고 영혼을 연결하고자 하는 모습의 영화장면을 보면 더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들러는 사랑과 결혼이 그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심리적이고 정신적으로 참가해야 할 공통의 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인류는 결혼과 관련된 어떤 책임이 있기에 모든 인류는 결혼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한다. ‘개인과 사회는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 얘기할 때 인류가 성장하고 진보한 것은 주위 사람들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고 얘기하며 가족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가장 본질적인 형태로 들어 있다고 설명한다.(Adler, 2017:222-223)

가족체계에서 연구 참여자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으나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처럼 가족을 부양해 왔다. 이러한 역할을 필리핀에서 처음 독립하여 생활할 때에도 자처하여 수행해 왔으나 친정 가족들이 연구 참여자에게 지우는 기대가 더 커짐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는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왜 그러한 친정식구들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는 걸까. 그 심리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 체계적 관점에서 연구 참여자를 바라볼 때 좀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결혼 전후 가정생활에서 겪은 어려움과 이를 극복해 나가는 연구 참여자의 모습은 연구 참여자가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이라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처해진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과감히 선택한 삶의 개척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연구에 대한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이 연구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한 가정생활 경험과 그 의미

를 연구한 것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의 남편 입장에서 이러한 아내를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아볼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아쉽게도 남편과 개인 상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내인 연구 참여자가 보고하는 가정생활의 경험과 남편이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에 추후 연구를 위한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연구 참여자는 남편이 자신의 한국적응과 욕구에 맞게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였다고 보고한다. 그러한 점이 연구 참여자가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결혼이주여성이 한국문화에 적응하고 가족문화에 적응하여 정착하기 위해 남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왔다.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오롯이 남편 개인의 성향과 개인의 노력만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반면 이러한 남편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도경과 강택구(2018)는 다문화 가정에서 한국인 남편 배우자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문화 가정의 해체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한국인 남편 배우자에 대한 관심과 역할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이국의 성인들이 만나서 결혼을 유지하는 일은 한국 일반가정과 다르기 때문이다(김도경, 강택구, 2018). 한국남성이 외국인과의 결혼을 하기 위한 조건이 예전보다 많이 까다로워졌지만 그러한 조건이 아내와의 결혼생활에 적응하고 건강한 부부애착을 통해 건강한 가정으로 정착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과 방안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두 번째로 이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와 남편의 부부 상담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 상호작용에 대한 경험을 다룰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부부 상호작용이 어떻게 결혼이주여성의 원가족의 심리적 결핍과 욕구에 영향을 미쳤으며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 못하였다. 대상관계이론에서 부부관계는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파생된 것으로 부부관계 양상은 서로 간에 대상관계의 질적 수준과 관련 있다고 보았다(Scharff & Scharff, 1991). 다만 이 연구에서 나타난 사항은 연구 참여자는 친정부모에게 받지 못한 보호와 지지를 남편을 통해 얻게 되자 원가족 안에서 보호받지 못한 결핍치 채워진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박경순(2009)의 연구에 따르면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결혼 생활의 정서적 만족이나 배우자의 선택이 어린 시절 겪었던 대상관계에

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부부대상관계란 개인에 관한 대상관계개념을 바탕으로 남편과 아내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내와 남편에게 억압되어있던 거부적 자아들이 건강한 방식으로 충족되기 위해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Dicks, 1967). 이러한 관점에서의 부부애착에 대해 이 연구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하였기에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추후 연구해 볼만한 주제가 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실천적인 부분을 제안한다.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에서 필리핀 문화 속에 아직도 살아 있는 남녀 평등적 가족주의의 가치를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제고하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다문화가정에서 더욱 이러한 부분이 요구되고 아쉽게도 한국사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남녀 평등적 가족주의의 가치는 현재 현대 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는 가치이다.

연구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개념, 친정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이 필리핀 문화의 한 부분이었다. 필리핀의 친족은 특정한 목적으로 특정 시기에 상호 협력적으로 지원관계를 유지하는 개인에 기초한 일종의 친속(kindred)이며 핵가족적 특성을 지닌다는 김민정과 김영수(1997:333)의 연구와도 일치하며 부계와 모계를 모두 친족범주에 포함시키는 친인척가족간의 유대관계는 대단히 강하며 가족주의적 성격을 지닌다는 박희(2002:134)의 연구와도 같다. 이는 우리나라 문화에도 있었던 가족에 대한 가치였다. 고구려시대에는 딸만 있는 집안에서 혼인한 딸을 시집으로 보내지 않고 처가에서 데리고 사는 데릴사위제가 있었다.(네이버 두산백과) 또한 솔서(率擯)라 하여 아들이 있는 집에서도 데릴사위를 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는 남귀여가(男歸女家)라 하여 혼례를 치른 사위가 자식을 볼 때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도 처가에 계속 머물러 살다가 본가로 돌아오는 습속이 있었다(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산업화가 진행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대부분의 가족들은 대가족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바로 조부모 세대와 손자까지 한집에서 사는 것은 당연했으며 그 가족들을 함께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문화였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우리 사회는 가족을 광범위하게 인식하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오히려 짐으로 여겨 핵가족화, 국가의 돌봄화 등 의무와 책임을 분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으로 가족에게만 지워진 부양과 돌봄의 짐을 나누게 되어 긍정적인 면도 있

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의 공동체적 의식과 연대의식이 느슨해져 버린 면도 없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가족은 해체되어가고 고립되어 외로운 섬처럼 되다 못해 고독사가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사회가 우리 역사 속에도 존재하고 있었고 현재 필리핀의 문화 속에 있는 연대적 가족의식을 상기시키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 강미연, 장인자(2009). 필리핀 결혼 이주 여성의 ‘엄마 되기’ :경험을 중심으로 본 정체성의 문화정치. *현대사회와 문화*, 28, 73~103.
- 강영미 (2015).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자기 복원’ 생애사. *한국사회복지질적 연구*, 9(1), 115~136.
- 강진구, 안기수, 김현철, 모희준 (2020).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다문화 연구 동향 분석. *다문화콘텐츠연구*, 35, 45~69.
- 구자경 (1999).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지각하는 고부간의 갈등.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명희 (201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심리사회적 자원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5(1), 275~302.
- 권복순 (2009).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1(2), 5~32.
- 권석만 (2019). *현대 심리치료와 상담이론: 마음의 치유와 성장으로 가는 길*. 서울: 학지사.
- 권육상 (200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유봉출판사.
- 권용혁 (2012). *한국가족, 철학으로 바라보다*. 서울 : 이학사.
- 권중돈 (2014).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학지사.
- 김가연 (2021). 한국어능력시험(TOPIK) 학습 경험에서 시작된 삶의 변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어문논총*, 38, 119~143.
- 김대현 (2006). 내러티브 탐구의 이론적 기반 탐색. *교육과정연구*, 24(2), 111~134.
- 김도경, 강택구 (2018).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의 부부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 간 감수성을 매개로. *철학사상문화*, 27, 212~244.
- 김동엽 (2010). 필리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초국가적 행태에 관한 연구. *동남*

- 아시아연구, 20(2), 31~72.
- 김래성 (2019). 선천성 지체장애자녀를 둔 필리핀계 결혼이주여성의 내러티브,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숙 (2015). 인형치료를 통한 부부간의 역기능적 체계에 대한 사례연구.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미라, 하영운 (2020). 중년기 부부관계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적용하여, 부부가족상담연구, 1(2), 31~51.
- 김민정, 김영수 (1997). 동남아의 사회와 문화, 서울: 오름.
- 김민정 (2002). 필리핀 친족의 양면성과 "집단" 만들기. 비교문화연구, 8(2), 3~36.
- 김민정, 유명기, 이해경, 정기선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59~193.
- 김민정 (2004). 필리핀 농촌 마을의 주민조직과 여성 리더십. 한국문화인류학 37(2), 49~70.
- 김민정 (2007). 한국 가족의 변화와 지방 사회의 필리핀 아내. 페미니즘 연구, 7(2), 213~248.
- 김보기, 박유미 (2020). 아들러 개인심리학을 적용한 상담과정과 상담기법에 관한 연구. 산업진흥연구, 5(3), 89~96.
- 김상희, 박성연 (1990). 형제간 및 또래간 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가족 인구학적 변인. 아동학회지, 11(2), 59~81.
- 김선숙, 고대영, 김혜원, 조요셉, 최성은, 민기채 (2020).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이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계층의식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과학연구, 31(3), 59~78.
- 김선정 (2012).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의 한국가정생활 적응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시양 (2017). 다문화가족 부부의 자기개방과 공감능력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경, 이정향 (2014).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근린공동체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2), 163~175.

- 김영옥, 한재희 (2014).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생활에서 나타나는 불안 경험에 대한 연구: 경기도 S의 필리핀 여성들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5(6), 2381~2602.
- 김영애 (2014). 사티어 모델: 핵심개념과 실제적용, 서울 :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 김인아(2017).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열린부모교육연구, 9(3), 53~74.
- 김정석 (2009). 필리핀신부의 결혼관과 국제결혼 사례연구. 한국인구학, 32(2), 1~27.
- 김정선 (2010). 아래로부터의 초국적 귀속의 정치학: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6(2), 1~39.
- 김정선 (2012).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변화하는 ‘home’의 의미와 시민으로 주체되기. 여성학논집, 29(2), 61~105.
- 김진 (2020).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역할수행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청자, 정진선 (2006). 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동문사.
- 김춘경 (2002). 놀이치료에서 고려해야 할 가족 영향력에 관한 개인심리학적 고찰, 놀이치료연구, 6(1), 1~14.
- 김필숙, 이운석, 김두섭 (2018). 결혼이주여성의 남편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 그리고 출산 의향: 초혼 및 재혼 차이를 중심으로. 조사연구(2018. 2), 19(1), 61~95.
- 김현식 (2018). 결혼이주 여성과 한국 여성의 출산력에 관한 연구: 출신 국가별 출산력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8(2), 42~70.
- 김효진 (2020). 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을 통한 아동의 또래관계증진에 관한 사례연구. 인형치료연구, 6(1), 39~54.
- 김희주, 은선경 (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위한 대처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5, 33~66.
- 김현경, 신동주 (2008).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의 한국 결혼생활 현상에 관한 연

- 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9(4), 519~535.
- 김현수, 최연실 (2012).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 관련 요인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435~456.
- 김현아 (2013). 다문화상담 관련 종사자의 다문화수용성과 다문화상담자 자질의 관계: 다문화상담자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3), 1717~1737.
- 김희정 (2011).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수요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윤경, 강미연, 장인자, 허수연 (2008). 결혼 이주 여성들의 행위자성과 평생교육의지향점 모색: 필리핀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4(4), 185~213.
- 노안영, 강영신 (2011). 성격심리학, 서울 : 학지사.
- 노안영 (2018). 상담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 학지사.
- 단효금 (2021). 다문화부부의 갈등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부산내 중국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박사과정.
- 도교동 (2020).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참여활동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주현 (2012). 결혼이주여성의 거주 분포와 민족적 배경에 관한 소고.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8(1), 71~85.
- 문은영, 강문구, 전경옥, 정슬기 (2005). 아시아 여성빈곤의 구조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의 여성가구주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44(1), 52~96.
- 문정화 (2017).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치료 사례연구: 단독으로 상담에 참여한 중국출신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55(0), 91~128.
- 맹미숙 (2019). 아동기 자녀를 둔 부부를 위한부부·가족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 한세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경순 (2009). 대상관계 이론적 시각에서 본 한국 가정의 결혼갈등과 주부 우울증. 스트레스, 17(2), 185~198.

- 박길순, 이은아 (2020).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연구 : 인천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8(11), 595~605.
- 박소영, 박태영 (2008). 며느리들의 시어머니와의 관계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4), 55~71.
- 박순용, 오덕렬 (2012). 취학연령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들의 교육문화 적응 연구: 필리핀인 및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5(1), 177~197.
- 박은민, 김성수, 박순희 (2011). 필리핀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결혼여성의 자녀 양육 경험: 농촌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8(4), 147~167.
- 박정숙, 박옥임, 김진희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59~70.
- 박진수, 최광현 (2020). 상처 입은 내면 아이 인형 치료를 적용한 부부치료 사례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1(1), 97~124.
- 박진옥 (2011). 결혼이주여성가족의 부부관계 및 고부관계에서 나타나는 적응과 갈등,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향경 (2012). 정신장애인의 어머니가 경험한 가족생활 내러티브 탐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현성 (2013). 결혼이주여성의 일·가정양립 경험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혜경, 이재경 (2010). 탈빈곤 전략으로서 이주결혼의 역설: 한국의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2(4), 33~62.
- 박희 (2002). 필리핀의 가족주의와 "사회적 자본"의 문제. 아시아연구, 5(1), 123~158.
- 변은주 (2018) 왕따 피해 청소년의 인형치료 사례연구: 변화과정과 변화내용을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6(1), 177~185.
- 서미정 (2018). 첫 자녀 출산 부모의 결혼만족도 변화경로 및 예측요인. 육아정책연구, 12(3), 31~53.
- 선우현, 최광현, 이진숙, 정미희 (2015) 성학대 아동의 진단평가도구로서 인형치

- 료, 청소년시설환경, 13(3), 53~61.
- 송복희 (2011). 아시아 지역 가정생활문화를 통해서 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가정생활 적응전략,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송선화, 안효자 (2011).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경험. 정신간호학회지, 20(2), 167~179.
- 송유진 (2016). 배우자의 국적에 따른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들의 다양성. 지역사학회, 17(1), 149~173.
- 서덕희 (2011). 세 여성의 삶, 세 차원의 다문화 교육 : 결혼이주여성들과의 만남을 통한질적 탐구. 교육인류학연구, 14(1), 1-42.
-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혜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2005).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 신난희 (2016), 상호문화소통의 주체로서 연구자는 생애 구술을 어떻게 깊이 이해하는가?. 다문화와 인간, 5(2), 147~179.
- 신영미 (2011). 「만복사저포기」를 활용한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교육 방안 : 문학치료적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35, 315~341.
- 안정애 (2016). 한국 내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정보탐색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계간 지역사회, 75, 44~45.
- 양순미, 정현숙(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결혼생활 적응과 만족에 대한영향 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 지제, 11(3), 223~252.
- 양윤정, 이근매(2013). 콜라주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20(6): 1225~1246.
- 오연미 (2017) 한국 다문화부부의 갈등해결을 위한 다문화상담 방안 연구: 사티어의 대화이론 모델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교육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은경, 최미, 최한나(2016), 국내 다문화 상담연구 동향 : 학술지 및 학위 논문 분석(1993~2016.7), 상담학연구, 17(5), 223-242.
- 윤경숙 (2015) 행복한 가족관계 위한 자녀이해 연구: 알프레드 아들러 개인심리학의 관점을 중심으로, 효학연구, 22, 1~20.

- 은고요나 (2017). 전략 중심 지도법의 한국어 교실 활용 연구: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자 (2013). 국제결혼 부부의 초국적 이주배경에 대한 공간인지와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4), 712~736.
- 이금순, 최광현(2018). 인형치료 집단 프로그램이 청소년 자녀와 모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6(2), 57~67.
- 이설희 (2019). 집단표현예술치료가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완화에 미치는 영향. 동작심리치료학회 신체심리연구, 4(2), 55~82.
- 이유나 (2015). 다문화 가정 여성결혼 이민자의 ‘어머니 됨’ 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육아지원연구, 10(4), 5~31.
- 이용승 (2014). 국제 이주의 동기에 관한 연구: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8(1), 119~144.
- 이지선 (1994). 아동이 지각하는 형제자매 역할기대 및 수행과 형제자매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연, 이완정(2006). 출생순위와 형제간 성별 구성에 따른 형제관계의 질과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 한국보육지원학회지, 2(2), 129~146.
- 이혜응 (2014). 결혼이주여성의 본국/한국 노동경험에 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6(2), 1~24.
- 이화영 (2012). 자율신경계의 자기조절을 촉진하는 신체 동작 심리치료가 결혼 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효과.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혜경, 정기선, 유명기, 김민정 (2006).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 한국사회학, 40(5), 258~298.
- 인효연 (2020).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 변화. 예술심리치료연구, 16(1), 161~188.
- 임수진, 오수성, 한규석 (200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요인 : 광주,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4), 515~528.
- 임화영 (2012). 자율신경계의 자기조절을 촉진하는 신체동작 심리치료가 결혼이

- 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효과.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애리덴 (2019).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자원의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애리덴, 안정신 (2021).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 결혼만족도에 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자원의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6(1), 27~49.
- 전은희 (2014), 고학력 결혼이주여성들의 구직활동과 취업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20(3), 233~267.
- 전주성 (20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과 학습, 그리고 홀로서기: 내러티브 (narrative)분석, 14(4), 1~25.
- 전현영(2012).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17년 결혼생활,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기, 교육연구논총, 33(1), 23~47.
- 전홍주, 배소영, 광금주 (2008).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교육지원의 실제와 의미: 필리핀과 일본 어머니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0(3), 161~186.
- 전혜성 (2019). 다문화가족의 부부적응 및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상담 방안 모색 : 구조적 가족치료를 중심으로, 복지와 문화다양성 연구, 11(2), 45~63.
- 장성화, 윤향숙, 송종원 (2016). 상담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경기: 정민사.
- 장은정 (2007). 결혼이민자가정 한국인 남편의 가족관련 가치관 및 문화적응태도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21(2), 1~27.
- 장주영 (2021).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 접근성과 우울감 경험: 출신 국가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30(2), 241~258.
- 장현섭 (1993). 한국사회는 핵가족화하고 있는가: 가족 정책의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91~195.
- 정근미 (2020). 모국 설화집 구성을 통한 다문화 가정의 상호문화주의 문화 교육 방안 연구: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을 대상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 정서영, 권봉, 김미경, 김여환, 양재건, 양철수, 이영만, 이척희, 임성은, 장미리,

- 최병석(2018). 상담심리학. 서울: 양성원.
- 정선주 (2020). 다문화가정의 고부갈등 양상 : EBS <다문화고부열전> 에 나타난 고부갈등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13(3), 145~195.
- 정의용, 문지영 (2019)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주관적 안녕감 및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1(1), 167-196.
- 정진경, 양계민 (2004). 문화적응 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101~136.
- 주성희, 한경임(2017), 장애아동을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삶, 특수아동 교육연구, 19(2), 243~268.
- 주은선, 조병주, 이현정 (2012). 결혼이주여성의 상담 체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1), 45~76.
- 채옥희, 홍달아기, 송복희 (2011).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배경과 출국 전 한국가정생활 교육내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0(2), 327~338.
- 최광현 (2013). 가정 내 성폭력(근친상간) 피해 청소년 내담자에 대한 인형치료 사례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1(4), 29~39.
- 최광현, 선우현 (2016). 인형치료 : 상징체계의 활용과 적용모델, 2판, 서울 : 학지사.
- 최병두 (2010). 일본 ‘다문화공생’ 정책과 지역사회의 지원활동 : (3) 외국인 이주자들을 위한 지역사회단체들의 활동-오사카와 히로시마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 44(3), 301~325.
- 최승은 (2019). 이주 어머니(migrant mother)의 자녀 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101(2), 77~109.
- 최장은 (2021). 비대면 인형치료 프로그램이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임, 최광현 (2020). 인형심리진단평가에 나타난 중년여성의 부부관계 경험 연구. 인형치료연구, 6(2), 41~61.
- 최홍기 (2006). 한국 가족 및 친족제도의 이해.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 하미경 (2017). 긍정심리기반 인형치료 집단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적응유연성과 낙관성 및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미용 (2015). 장애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가족생활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아름, 공마리아, 최은영 (2015). 집단미술치료가 결혼이주여성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11(3), 245-262.
- 한진숙 (2014).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한국어 교육지원에 관한 경험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미나, 채규만 (2012).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4), 69~85.
- 홍달아기, 채옥희, 한은진, 송복희 (2012). 결혼이주여성의 한국가정생활 문화적응 단계별 특성 :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4), 1~22.
- 홍영숙 (2019).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두명의 언어정체성 형성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언어학연구, 24(1), 299~325.
- 황미영 (2019). 인형치료를 통한 부모의 애착세대전이에 관한 사례연구. 인형치료연구, 5(1), 37-53.
- 황혜영, 김영순, 이춘양 (2018). 재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생활에 나타난 인정투쟁 경험과 의미. 교육문화연구, 23(4), 459~479.
- Adler, A. (1964). *Problems of neurosis*. New York: Harper Torchbooks.
- Ansbacher, H. L. & Ansbacher, R. R. (Eds.) (1956). *The individual psychology of Alfred Adler: a systematic presentation in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New York: Basic Books, Inc.
- Ansbacher, H. L. & Ansbacher, R. R.(1982). *Alfred Adlers Individual psychologie*. Reinhardt Miinchen/Basel.
- Adler, A. (2017). 아들러 인생방법 심리학. 한성자 옮김. 서울: 동서문화사. (원저는 1932년 출간).
- Choi Yoonsun, Kim Tae yeun, Noh Samuel, Lee Jeanette, Takeuchi

- David (2018). Culture and Family Process : Measures of Familism for Filipino and Korean American Parents. *Family Process*, 57, 1029~1048.
- Connelly, F. M. & Clandinin, D. J. (2007). 내러티브 탐구: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의 경험과 사례, 소경희, 강현석, 조덕주 공저. 서울: 교육과학사. (원저는 2000년 출간).
- Creswell, J. W. (2008). *Educational research: Planning, conducting, and evaluat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3rd ed.)*. Columbus, OH: Pearson.
- Dewey, J. (1929). *The quest for certainty: A Study of the Relation of Knowledge and Action*. New York : Paragon Books.
- Dicks, H. V. (1967). *Marital tensions: clinical studies towards a psychoanalytic theory of Interaction*.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Girard Rene (2018). 김진식 옮김. 희생양, 서울: 민음사. (원저는 1982년 출간).
- Hustn, T. & Rovin, E. (1982).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studying close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902~905.
- Jocano, H. L. (1998). *Filipino Social Organization: Traditional Kinship and Family Organization*, Quezon: Punland Researcher House.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Minuchin S. & Nichols M. P. (2013), 오제은 옮김,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치료, 가족치유, 서울: 학지사. (원저는 1993년 출간).
- Neonita Cruz Bang (2011).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의 소비행동과 가치관에 관한 평가. *글로벌경영연구*, 23(2), 153~163.

- Okri, B. (1997). *A way of being free*. London: Phoenix House.
- Riessman C. K. (2008). *Narrative Methods for the Human Sciences*. CA, USA: Sage Publications.
- Rosenberg, M. J. (1965). When dissonance fails: On eliminating evaluation apprehension from attitude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 28-42.
- Satir, V., & Baldwin, M. (1983). *Satir step by step: A guide to creating change in families*. Palo Alto, CA: Science and Behavior Books.
- Scharff, D. E., & Scharff, J. S. (1991). *Object Relations Couple Therapy*. Northvale: Jason Aronson Inc.
- Sue, D.W., Ivey, A.E., & Pedersen, P.B. (1996). *A theory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therapy*. Pacific Grove. CA: Sage Publications.

기 타 자 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

<https://law.go.kr/LSW/lsLinkProc.do?lsNm=%EA%B2%B0%ED%98%BC%EC%A4%91%EA%B0%9C%EC%97%85%EC%9D%98+%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chrClsCd=010202&mode=20&ancYnChk=0#>에서

21.6.3 인출

김춘경, 이수연, 이윤주, 정종진, 최용용 공저 (2016). 상담학 사전. 서울 : 학지사.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76440&cid=62841&categoryId=62841>에서 21.6.2 인출.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A%B0%80%EC%A1%B1&range=all>에서 21.6.2 인출.

네이버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59640&cid=47312&categoryId=47312>에서 21.6.2 인출.

네이버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A%B0%80%EC%A1%B1%EC%A3%BC%EC%9D%98&range=all>, 21.6.2. 인출.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32786&cid=46635&categoryId=46635>에서 21.6.2 인출.

여성가족부의 2018년도 [다문화 가족실태조사].

통계청의 2019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필리핀공화국법 제6955호(1990.6.13., 일명 우편주문신부금지법).

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 (C.F.O., 필리핀재외동포위원회),
출국전등록 (PDR : Pre Departure Registration) 과정, 2018년 통계자료,
www.cfo.gov.ph에서 21.6.2 인출.

연구소개 및 연구참여 동의서 (Introduction and Consent)

연구주제 : 인형치료과정에 나타난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의 의미
지도교수 : 김 민 호 교수
연 구 자 :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석사과정 김진미
연 락 처 : E-mail :

본 연구의 목적은 인형치료 심리상담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가정생활과 그와 관련된 삶의 영역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관점과 기대가 어떠한지 그러한 점들이 현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발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귀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의 가정생활에 적응하는데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에 대해 언제든지 질문하실 수 있으며, 원치 않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에 대한 참여와 중단을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혹여 참여 중단을 원하시면 면접상담 중간에도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자와 귀하는 수회기의 면접상담을 할 예정이며, 연구의 필요에 따라 추후에도 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면접상담시간은 약 1시간에서 2시간정도 걸릴 것입니다.
- 연구자는 면접 상담시 나온 내용 및 관련 자료들(언어, 그림, 사진, 글)을 매 회기마다 녹음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사용할 것이며 또한 수퍼바이저에게 상담적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면접상담 중의 기록물과 그림을 익명처리한 후 연구결과에 사용할 것입니다.
- 연구결과를 제시할 때 귀하의 신분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록한 내용이 귀하의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사실과 다름이 없고 귀하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여 전달되었는지를 확인받을 것입니다.
- 본 연구가 종결된 후 자료와 음성 파일들을 연구자의 개인 컴퓨터에 안전하게 3년 동안 보관할 것이고 그 후 모두 폐기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셨으면 아래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의 내용에 대해 설명 받았고 이를 완전히 이해하였으며,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참여자 : _____ 서명

연구자 : 김진미 서명

ABSTRACT

Narrative Inquiry on Family Life of a Filipino Marriage Migrant Woman in the Process of Figure Therapy

Jinmi Kim

Major in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S.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Min Ho Kim,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in depth a Filipino marriage migrant woman on figure therapy and find out what the meanings are in family life, and utilize for migrant woman's life and counselors in various supports including psychological counseling. For this purpose, the method of study is the narrative inquiry as one of the qualitative research. The narrative inquiry is the way to understand in depth and analyze family life on the experience of a Filipino marriage migrant woman. This study participant, Younghwa, is a Filipino woman who has married and migrated at the age of 18 and been living for 12 years in S. Korea.

The collection of data are from face to face counseling, figure's photos in the process of Figure Therapy and observation notes. I have done face to face counseling 6 times including 4 times of using the figures for 3 months between October in 2020 and January in 2021.

I have repeatedly listened and read the field texts, and cross-checked the data of photos of Figure Therapy and study notes. I have analyzed the meanings of it on those process, and selected the themes and checked with my thesis adviser. The meanings of family life to a Filipino marriage migrant woman are 'I in my family', 'I outside my family' and 'I leading my family'. First of all, the meaning of family life to a Filipino marriage migrant woman was 'I in my family'. Younghwa was born and grown up as a sandwiched child in the big family, and conflicted with mother-in-law and reconciled afterward. She has relied on her husband. Secondly, it was 'I outside my family'. Younghwa was a pioneer in her own life. She moved out and started to work as financially independent at the age of 16. She has chosen the international marriage for the better life. Also, she didn't stop to study and worked harder in S. Korea. She was dreaming of the life to work as a leader for marriage migrant women in the future. Thirdly, it was 'I leading my family'. Younghwa was the person in charge in her family. After her father died, she was active and leading her family of origin. She had her mother-in-law to her side. She was active and interacted in the relationship with her husband. Her husband also relied on her and let her manage all kinds of family events including a domestic economy and children's lives. Also, she was leading and supporting their children who would grow as responsible and strong in their future.

These results are meaningful in that it tried to approach as one participant's whole life focused on her family life. Especially, there was no other study like this one, such as Figure Therapy was applied on a

marriage migrant woman and used the way of narrative inquiry.

Because this study was about a Filipino marriage migrant woman's family life experiences, there was no narratives of her husband's family life and interactive experiences as a married couple.

Key words ; Filipino marriage migrant woman, figure therapy, family life, narrative inquiry